

# 도서관

통권 제 391 호 | 2017

ISSUE  
고문헌, 오래된 미래

ISSN 1011-2073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도서관

통권 제 **391** 호  
2017

ISSUE

고문헌, 오래된 미래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차례

### I ISSUE 고문헌, 오래된 미래

총론: 고문헌 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 006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불후(不朽)의 저술, 문집을 남기다 | 022

정진웅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또 다른 옛 책, 일본 고서 | 043

안혜경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고문서로 본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 | 069

김효경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그림식 고을지도, 조선 사람들의 소망공간을 담다 | 086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도서관의 숨은 보물찾기 | 105

이정효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기능 및 발전 방향 | 124

봉성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

### II 2017년 기획대담

[고문헌과에 비란다] 기록문화유산, 후대에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 143

사회 :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패널 :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김현영 前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박병주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 III 2017년도 연구현황

국립중앙도서관 | 15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59

국립세종도서관 | 159

국립장애인도서관 | 160

도서관정책기획단 | 161

### IV 부록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만든 자료들 | 162

한지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 ISSUE 고문헌, 오래된 미래

- 01 \_ 총론 : 고문헌 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 006
- 02 \_ 불후(不朽)의 저술, 문집을 남기다 · 022
- 03 \_ 또 다른 옛 책, 일본 고서 · 043
- 04 \_ 고문서로 본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 · 069
- 05 \_ 그림식 고을지도, 조선 사람들의 소망공간을 담다 · 086
- 06 \_ 도서관의 숨은 보물찾기 · 105
- 07 \_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기능 및 발전 방향 · 124



# 총론 :

## 고문헌 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01

#### 1. 머리말

고서와 고문서를 포함하는 고문헌은 선현이 남긴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이들은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복원작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문헌의 편찬과 간행배경을 이해하고 시기를 판별하는 것은 선현이 남긴 기록물에 대한 깊은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히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고문헌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와 연관되어 당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이를 수집 발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 고문헌은 중국이나 일본의 고문헌과 구분되며 형태적으로 지질, 판식, 표지, 장정법, 판종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발행방식에 따라 크게 사본(寫本)과 간본(刊本)으로 나눌 수 있고, 간본은 대부분 목판본과 활자본이다. 사본과 간본의 구분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간본 중에 목판본과 활자본의 감별, 활자본 중에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의 감별,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의 활자 감별, 목판본의 초쇄본과 후쇄본 감별 및 원간본과 번각본의 감별 등은 연구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확인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금속활자본 상호간의 감별과 목활자본 상호간의 감별은 각 활자의 자형과 생성 배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한국 고문헌의 성격을 파악하는 1차적 기준이 되고 있다.

고문헌은 소수 연구자들의 전유물로 비춰져서 제한된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현시점에

그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고문헌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실제 복합적이면서 여러 방면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된다. 지식 기반사회의 근원적인 원천이 고문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확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문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이용은 연구로 이어질 때 그 가치가 배가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고문헌의 수량으로 볼 때 그 양이 가장 많은 국립중앙도서관<sup>(1)</sup>은 이러한 국내 고문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용에 대한 오래된 역사와 사명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고문헌 연구의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체제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고문헌관리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를 제안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고문헌의 기준에 대한 언급과 함께, 서지기술의 기초자료로서 고문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살펴보겠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집, 정리, 이용 체계의 각 내용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준다면 연구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한국 고문헌의 기준과 성격

한국목록규칙 제4판<sup>(2)</sup>에는 고문헌의 기준을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이후 간사된 것으로 고서의 영인본이나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고문헌의 작성시기, 간행방식 등에 대한 기준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보다 상세하고 구체화된 내용이 수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소장 고문헌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체계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고문헌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둔다는

(1) 2016년 말 현재 귀중본 963종 3,475책과 족보, 문집 등 일반고서 164,991책, 고문서 24,350점, 고지도 780점, 일본고서 52,548책, 중국고서 34,924책, 기타, 총수량 277,593책을 소장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자료현황 참조)

(2)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 2003, p.159.

의미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문헌에 대한 기준을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기준과 여러 선학(先學)의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시기, 문자, 장정, 내용에 의한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는 ① 발행시기가 한국본의 경우 1910년 이전, 중국본은 청말(清末, 1911년) 이전, 일본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7년) 이전에 간행되었거나 필사된 문헌이고, ② 문자에 있어서는 한문을 비롯하여 한글,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 등 동양제국(東洋諸國)의 고어(古語)로 된 것이며, ③ 장황의 형태로는 권자본(卷子本), 첩장(帖裝), 선풍엽(旋風葉), 호접장(蝴蝶裝), 포배장(包背裝), 선장(線裝) 등으로 된 문헌으로 ④ 그 내용은 전통적인 고유사상과 학술의 성격이 있는 자료이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내용이나 문자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서책에 별다른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 발행년도와 장황(粧幀)의 기준에 있어서는 필사재료나 인쇄방식의 수작업 유무에 따른 구분과 연관되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즉, 장황의 경우 최근에 간행된 저작 중 고전(古典)의 내용이 아니면서 저작자, 발행자의 취향에 따라 동양식 선장본(線裝本)으로 제작된 것이거나, 현대에 영인(影印)하여 선장본으로 제작하고 발행한 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도서관에서 고문헌의 별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고문헌과 함께 별치하게 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붓으로 쓴 필사본이나 수백년 전에 간행된 족보를 요즈음에 고서의 장정방식으로 제작한 책 등도 이에 해당한다. 그 제작 방식이 전통방식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작성시기가 현대이므로 굳이 고문헌으로 별치하여 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일반문헌에 두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책의 제작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또한 발행시기도 고문헌의 기준으로 삼은 1910년(한국본), 1911년(중국본), 1867년(일본본)의 이후에 출간된 것 중에서 전통적 인쇄방식인 목활자본, 목판본 등이 얼마든지 있고, 대체로 이러한 서책은 1945년 이전까지 간행된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기준년도는 1945년 이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기관에서 정리되고 있는 고문헌의 기준은 이와 같은 고문헌의 조건 중에 간행년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장정의 형태, 전통 한지의 사용 유무 등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도 있다.

종합하여 보면 고문헌의 기준을 1945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筆寫)된 것으로 전통 학문 분야의 내용을 지니며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으로서 한문, 한글(古語),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 기타 동양제국어(東洋諸國語)의 문자로 저작된 것으로 그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료의 형태를 달리하는 고지도류, 탁본, 족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며 1945년

이후에 발행된 자료 중에서도 고문헌에 포함시킬만한 가치<sup>(3)</sup>를 지니는 것은 세밀히 검토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고문헌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파악하는 주요 요소를 정해보면 편간의 주제, 주제, 형태(판본 및 기타), 발행시기, 발행지역, 소장처 등이다.

편간의 주체는 왕실, 중앙 및 지방기관, 사찰, 서원, 향교, 개인, 문중, 상업출판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왕실과 중앙기관은 문헌편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주체로서 한국의 인쇄출판문화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은 이러한 편간의 주제에 따른 유형이 거의 대부분 망라될 정도로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각 주제별 유형이 왕실의 편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장서각이나 규장각과의 연계 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료 중에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기관 간행 서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료 보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소장정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문헌의 주제는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전통적 사부분류법으로 구분하였을 때 그 하위 개념인 각 유문(類門)별로 특징지를 수 있다. 각 유문은 다시 세분할 수 있으며 특정 주제의 고문헌은 현대의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대부분 적용된다. 또한 각 학문분야의 역사를 다루고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문분야의 고문헌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해당 주제분야의 관련 연구자들의 1차적인 연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제적 접근이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중에 특히 족보류, 문집류, 한글자료, 고지도 등은 다양한 주제적 특성 중에 보다 집중화되어 있어서 관련 연구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경로이기도 하다.

고문헌의 형태는 판본, 표지, 장정, 종이, 먹색, 크기, 판심, 광곽(匡郭) 등 형태적인 특징에 따라 발행시기의 추정이나 발행주체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요소이다. 그 중에 판본은 필사본,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신연활자본, 석인본, 신식인쇄본, 탁본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간행이 이루어진 자료와 필사본으로만 남은 자료, 간본과 필사본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대마다 판본별 특징이 있어서 그 고문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른 형태적 특징 중에서 최근에는 표지의 문양, 종이의 지질 등이 시대판정의 중요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3) 자료의 희귀성을 포함하되, 인쇄의 방법이 전통 수작업에 의한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문헌의 편간시기는 삼국 및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각 시기별로 왕조나 세기별로 다시 세분하거나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다. 이 때에 시기 추정 방법, 서지기술의 요소에 따른 시대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 등이 주요 연구과제가 되며, 고문헌 자체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고문헌 편간의 지역은 자료의 형태나 언어의 사용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고문헌은 각 도, 군, 현 등 지역별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사건이나 시기에 따라 지역의 간행자료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지역의 역사, 민속, 사회상을 이해하고 보존 장려하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지역의 고문헌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해당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내용에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항목이지만 서지학적인 연구 토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지역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고문헌은 그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고 국내외에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아서 소장처의 파악이 힘들다. 원자료의 디지털화나 사진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장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해당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그 역할을 깊이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소장 고문헌은 지역의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역거점 도서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고문헌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문헌의 소장처는 고문헌의 성격을 파악하는 요소 중에 아직까지 그 전모를 제대로 가늠해내지 못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초기수집 단계에서 확인해 두지 않으면 후에 연구진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중에 총독부도서관 시기 이전부터 보존되어 오던 자료 외에도 후에 별치된 8개 문고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활용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일산 김두중 등 주요 소장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사례는 관련 학술연구 단체와 협업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고 의미있게 진행된 좋은 사례가 된다.

소장처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는 각 서책에 날인된 장서인이나 장서기에 드러나는 전통시대 가문, 개인의 장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일 것이다. 이는 개인 장서거나 소장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라진 기관이나 기구, 개인의 장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각급 기관, 개인의 자료를 복원시켜 당시 지식의 양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연구자를 위한 고문헌 관리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9월에 고문헌과를 신설하면서 국가 기록문화유산의 통합 운영, 고문헌 학술 연구, 국내외 고문헌 온·오프라인 수집, 고문헌 홍보 및 교육 기능 선진화, 고문헌 콘텐츠 활용 강화, 글로벌 고문헌 교류 협력 확대라는 핵심 추진 과제를 천명한<sup>(4)</sup> 바 있다.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그 중에 국가기록유산의 통합운영, 국내외 고문헌 온오프라인 수집, 고문헌 학술연구 등은 도서관의 기본 요소인 수집, 정리, 이용, 보존과 연계되어 연구자를 위한 고문헌관리에 중점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핵심 과제에 가장 밀바탕이 되는 것으로 원간본으로 선본(善本)을 수집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에서의 필요에 따라 고문헌에 대한 장서개발을 행할 때에 그 지침으로써 장서정책을 수립해 두어야 하고, 고문헌의 장서정책 또한 수집의 목표, 장서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 1) 고문헌 수집정책의 다원화와 선본(善本)의 확보

장서개발 대상으로서 고문헌은 편찬·간행의 역사성이 있고 학술연구의 원자료성과 함께 수량이 제한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유통과정은 저작자, 생산의뢰자, 인쇄자, 제본자, 출판자, 배포자, 이용자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술연구의 원자료성을 지니는 고문헌을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고문헌의 장서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수집의 대상은 일반고문헌과 귀중고문헌, 그리고 지도, 탁본을 포함하는 자료로 앞서 살펴본 고문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내 현존 고문헌의 주제별 현황과 판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주제에 있어서 족보와 문집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관한 빠

(4) 봉성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기능 및 발전방안」, 『도서관』 391호 2017.



짐없는 수집정책은 필수적이다. 특히 고문헌의 편간지역과 연관지어 지역별 문집류 중 미소장본을 선별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기술, 예술 관련 고문헌 등을 우선으로 수집하여 장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적인 고문헌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적합한 수집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장서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희구서(稀覯書) 및 귀중서(貴重書)의 수집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판본과 관련한 고문헌의 계통에서 원간본인 선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을 수집하는 것은 고문헌을 다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요한 역할로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고문헌의 수집에는 판본의 차이, 보존의 양호상태, 구입시기의 적부, 완본과 결본의 여부, 복제본의 유무, 기 소장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서(選書)하여야 하고, 같은 서명이라도 판본, 사본의 종류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의 깊게 조사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상태가 좋을수록, 결본이 없는 완질일수록, 국내에 없는 유일본일수록, 우선 수집하고 귀중서의 요건에 부합하면 별도로 귀중서로 구분하는 것이다.

선서 기준에 적합한 고문헌이 선정되면 구입, 기증, 기탁,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집의 대상이 되는 고문헌의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등이 필수적인데 문헌조사는 선서의 참고문헌과 기 구축된 목록 등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는 학술적 이용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지털자료로 직접 촬영이나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구비하고 학술목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서비스도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헌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지조사로서 대상이 된 고문헌의 실사를 통하여 실존유무와 수집의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자료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치판정을 하여 일차적으로 자료조사는 마무리하고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료선정후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기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문고의 설치를 통한 기증이나 기탁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는 8종의 문고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학술적 이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고의 설치와 병행하여 기증하는 형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탁의 방법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소장자나 특정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멸실되는 것을 막고 대규모 도서관에 비치하여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학술적 이용이 되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된 것으로 2015년 3월에 설치된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 1781~1845)의 수택본 948종 955책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복본의 수에 따라 타 도서관과의 교환에 의한 수집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 후에는 귀중본 선정위원회에 의한 귀중서 선별작업도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문헌을 수집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절차대로 대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급한 내용 중에 문화재자료에 대한 자료수집과 기증 기탁에 의한 문고의 활성화가 보완된다면 수집에 관한 좀 더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공공도서관 소장 고문헌 관리의 필요성

직접적인 고문헌 수집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에 대한 파악과 정리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진행해볼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수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소재고문헌에 대한 디지털 사진자료 수집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그 절차나 과정이 국외의 그것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조사해본 결과 전국의 공공도서관 중에 고문헌이 소장된 도서관을 확인해 본 결과<sup>(5)</sup>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고문헌이 소장된 국내 공공도서관과 그 수량

| 도서관명      | 책수    | 도서관명       | 책수    |
|-----------|-------|------------|-------|
| 강진군립도서관   | 1,588 | 서울동작도서관    | 26    |
| 거창도서관     | 92    | 서울오류도서관    | 112   |
| 경북도립구미도서관 | 1,121 | 서울종로도서관    | 2,911 |
| 경북도립상주도서관 | 127   | 서울 한국학생도서관 | 2,610 |
| 경북도립성주도서관 | 11    | 성주청사도서관    | 504   |
| 경북도립안동도서관 | 1,477 | 속초도서관      | 102   |

(5)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9.

| 도서관명          | 책수    | 도서관명     | 책수     |
|---------------|-------|----------|--------|
| 경주시립도서관       | 2,086 | 수원선경도서관  | 1093   |
| 광명시립도서관       | 401   | 순천시립도서관  | 50     |
| 광주시립무등도서관     | 222   | 안동시립도서관  | 323    |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도서관 | 919   | 울산문화원도서관 | 1,004  |
| 대전한밭도서관       | 328   | 울산중부도서관  | 9      |
| 대구시립두류도서관     | 21    | 원주시립도서관  | 90     |
| 대구시립북부도서관     | 95    | 의정부시립도서관 | 100    |
| 대구시립서부도서관     | 10    | 인천시립도서관  | 1,148  |
| 대구시립중앙도서관     | 2,318 | 전주시립도서관  | 581    |
| 마산도서관         | 207   | 제주우당도서관  | 23     |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3,397 | 하남시립도서관  | 10     |
| 부산시립부전도서관     | 60    | 화순공공도서관  | 70     |
| 서울남산도서관       | 1,876 | 합계       | 27,122 |

통계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 35개 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고 전체 책수가 27,122책이다.<sup>(6)</sup> 이 중에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서울종로도서관, 한국학생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서울남산도서관, 강진군립도서관, 경북안동도서관 등이 비교적 많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고서목록이나 간략 해제를 작성해서 발행하기도 하였고 특히 서울종로도서관은 원문이미지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연구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소장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7,770책으로 서울지역보다 많으며, 전국 공공도서관 고서수인 27,122책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종합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한 목록은 없으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기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합관리도 이루어진다면 연구자에게 도움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과에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6) 이는 『한국도서관통계』 1999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04년 이후로 『한국도서관통계』는 『한국도서관연감』에 수록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부터는 고서의 장서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고 있다. 통계에 누락되거나 공식적인 장서량에 포함되지 않고 미정리본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 3) 목록의 강화와 재구성

고문헌 연구에서 목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구의 시작이 목록을 확인하는데서 부터 출발하고, 목록의 내용을 바르게 작성함으로써 자료의 공개, 보편성 확보로 연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해당 서적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에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목록작성은 초창기 한국 고문헌목록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73년에 제4집까지 매년 발행되다가 1980년에 제5집, 1994년에 제6집이후로는 별도의 목록이 발행되지 않고 온라인 목록으로 대체되었다. 처음 발간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각종 고문헌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유연한 형태의 종합목록이 작성될 필요도 있다.

고문헌의 기초연구는 분류, 목록, 해제, 원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목록작성과 개정에도 이 4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문헌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나 해제 등의 활용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개별 고문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록의 수준은 그 해당분야의 연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만들어진 고문헌목록은 고문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문헌 목록작성은 자료가 연구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엄밀하고 체계적이며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는 체제·형태의 소개에 머무는 단순한 해제의 차원을 넘어 해당문헌의 의의에 대한 고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목록의 작성에서는 기존의 목록에 오류로 드러나는 것들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문헌 목록의 기술요소는 고서나 고문서의 1차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일정한 체제의 틀에서 기술하는 것이며, 크게 구분하여 볼 때 서명(문서명) 저자사항(발급자, 수취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중에 해제를 갖춘 목록을 제외하고 고문헌이 수록되어 있는 목록들은 연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서지 기술요소의 올바른 기입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상세한 주기사항을 포함하는 각 기술요소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 시기, 역사적 가치까지 1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원문이미지 정보의 제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한 목록작성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원문이미지의 구축 이후에 탈초·정서·표점·번역 등 2차적인 기반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형태의 원문이미지 정보일 것이다.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나 기타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문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 고문헌은 대부분 그 이미지 자료의 해상도, 밝기, 색상 등에 대한 표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본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 소장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일부 소장처에는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제공하는 이미지의 방식이나 해상도 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진행을 위한 “고문헌 원문이미지 작성 가이드라인”과 같은 표준안을 제시해 둔다면 좋을 것이다.

#### 4. 목록 중심 고문헌 시스템의 구축<sup>(7)</sup>

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고문헌의 물리적 측면에서 영속적으로 보존하는 것과 함께, 보관·관리 등 부수적인 위험 때문에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더불어 자료의 공개성과 보편성 확보로 인하여 연구가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식공유를 이루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고문헌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국내의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원문정보를 서비스하는 디지털도서관의 목적과 부합하여 접근이 제한되었던 자료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디지털도서관은 원문의 디지털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도서관서비스의 한 형태이며 인터넷을 통한 고문헌의 열람서비스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대학과 각급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고문헌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부기관이나 도서관은 참조 서지링크나 마크(MARC)정보, 색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7) 이 장의 일부 내용은 고서와 고문서의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쓴 필자의 기존 논문 「古書 檢索시스템의 設計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0, No.4(1999.12) p.255-278, 과 「古文書 分財記의 목록작성 방향설정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20집 (2000.12) p.325-358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내용 중의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원문DB는 컴퓨터 저장용량, 전송속도 등의 발달로 최근 들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국내 소재 고문헌은 일부 대학도서관이나 기관에서 해당 서책의 원문, 텍스트, 해제 등을 링크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용어사전이나 저자색인, 타소장기관, 서명색인, 관련 연구논저까지도 포함하는 종합형 서지목록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디지털화된 고문헌의 목록작성은 이와 같은 목록기술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형 목록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고문헌의 DB 시스템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센터의 한국학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NF목록, 원문서비스시스템 등을 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 종합형 서지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찾은 자료가 전부 망라된 것이 확실한지 혹은 누락된 소장처가 없는지 등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였다는 미완결의 불안함을 지닌 상태로 연구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서명의 고문헌에 대한 해제에서도 해제자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 두거나 판본학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해제집에 동일본이 수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통합된 종합검색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각 소장처의 서지를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서지목록 전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하여 1차적인 종합목록이 완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 고문헌 종합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고서와 고문서의 종합 시스템으로 보다 발전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안해본 것이 서지목록의 통합에 의한 고문헌 종합 DB를 구축하는 방안이었다. 주요 골자는 고서와 고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용어사전, 편저자색인, 소장기관, 서명색인, 관련연구논저, 해제, 원문 등의 DB를 상호간 링크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해보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것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고문헌 종합DB의 고서부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포털시스템은 고문서부문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서지목록의 철저한 갱신과 함께 서명색인, 관련연구논저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용어사전, 편저자색인, 소장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과 그림 2는<sup>(8)</sup> 고서와 고문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용어사전, 편저자색인, 소장기관, 서명색인, 관련연구논저, 해제, 원문 등의 DB를 상호간 링크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해본 것이다. 고서의 경우 예를 들면 서명의 DB는 각 고서목록에 나타난 서명색인과 주제검색용 고서분류표 DB를 활용하고 용어통제를 위해서 이서명사전(異書名事典)을 활용할 수가 있다. 구축된 고서자료의 목록기술 내용 가운데 서명, 저자사항, 형태사항, 판차사항, 주기사항, 소장사항등에서 단어나 구를 선택하면, 책자형태로 발간된 고서해제집 DB, 해당고서의 저자에 관한 사항 DB, 국역된 고서에 대한 DB, 해당고서의 원문 DB, 고서의 서지연표 DB, 고서의 소장기관 DB, 고서용어사전 DB, 고전용어 시소러스 등에서 해당하는 설명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DB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스플레이된 각 설명 DB에서 다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고서를 대상으로 한 논저들의 기사색인 및 그 내용 DB, 비책자형태로 된 고서해제의 기사색인 및 그 내용 DB에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 DB내에 나타난 각 서명 또한 서명색인에 링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문DB와는 별도로 본문의 첫 서명이 있는 제 1면의 원문사진을 목록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고서의 소장기관 DB 또한 기존 고서목록의 목록기술내용의 발행기관과 링크되며, 고서해제집의 저자사항 또한 인명사전 DB와 링크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고문서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8) 처음 구상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으므로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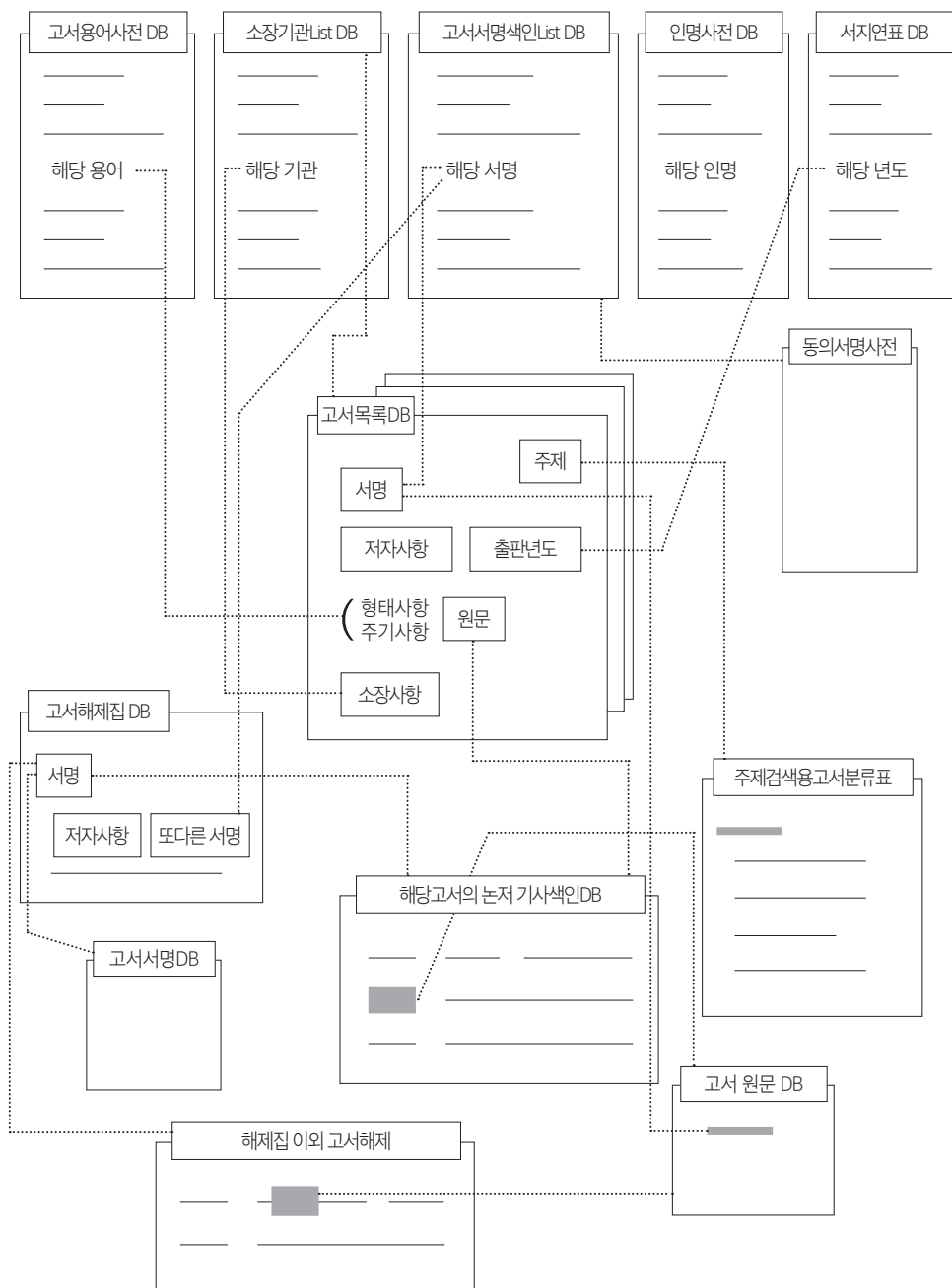


그림 1. 서지목록을 중심으로한 고문헌 종합DB 구축 방안(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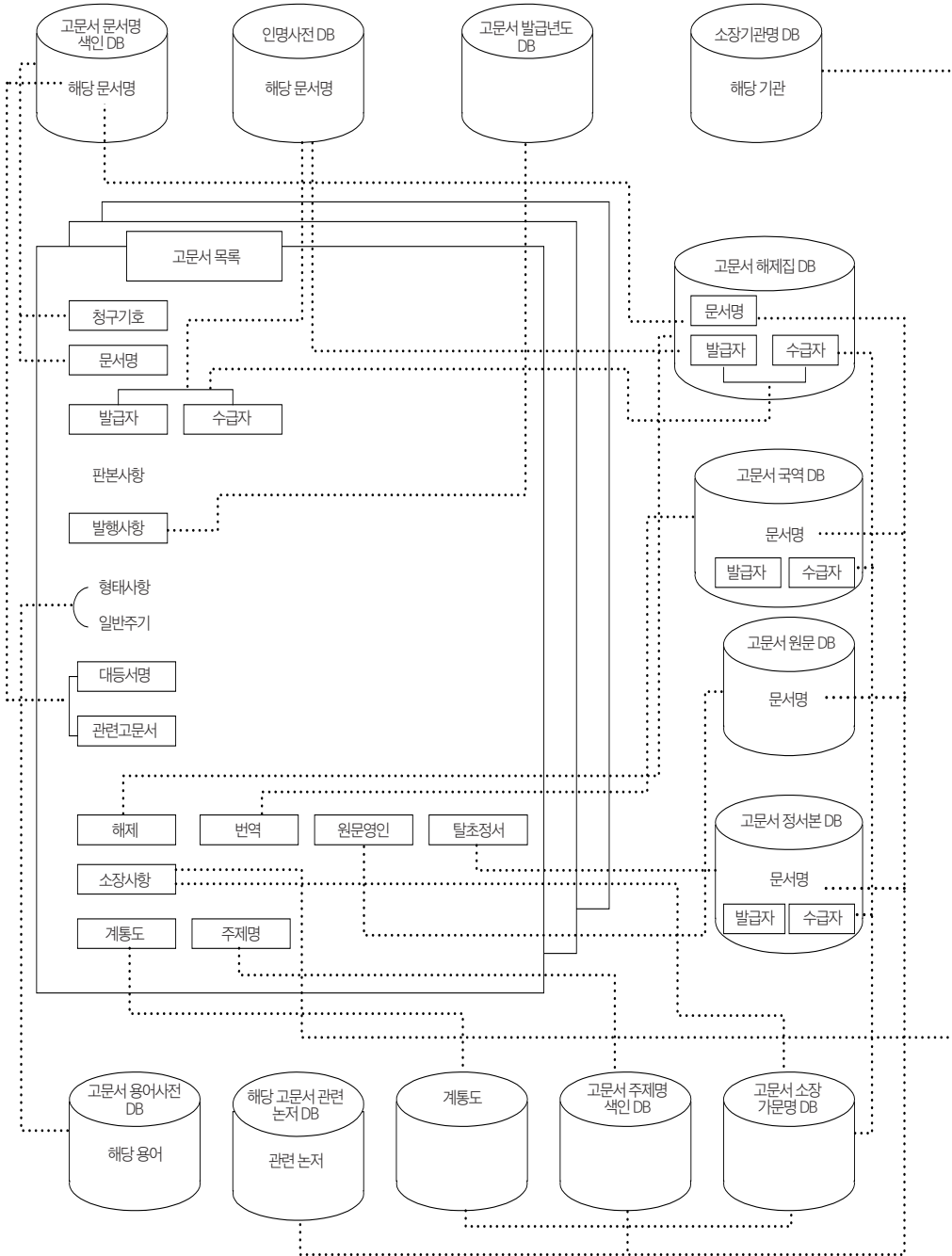


그림 2. 서지목록을 중심으로한 고문헌 종합DB 구축 방안(고문서)

## 5. 맺음말

이 글은 그 동안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해온 고문헌 관리의 업무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준다면 연구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자료의 수집, 목록의 작성, DB 구축을 통한 자료의 제공 등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업무이지만 고문헌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집 업무 중에 공공도서관 소장 고문헌에 대한 사진자료 수집과 정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라도 심도있게 조사해서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지역 거점 고문헌 자료관이나 전국적 규모의 고문헌 센터 설립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자료에 대한 수집과 기증 기탁에 의한 문고의 활성화가 보완된다면 수집에 관한 좀 더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목록은 최근까지 연구된 고문헌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원문이미지에 대한 방안으로 “고문헌 원문이미지 작성 가이드라인”과 같은 표준안을 제시해 둔다면 좋을 것이다.

고문헌의 성격은 편간의 주체, 주제, 형태(판본 및 기타), 편간시기, 지역, 소장처 등을 제대로 알고 이를 정립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연구방안은 이를 하나씩 알아내기 위한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요소의 대상을 정하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한 가지 문헌에 대해서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할 수 있는 통합적 학제간 연구도 필요하다. 고문헌 DB구축은 이와 같은 고문헌의 성격 파악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자료의 DB화는 궁극적으로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입력된 자료는 양적 수준에 못지않게 정확한 질적 수준이 요구된다. 고문헌을 다루는 기관이나 도서관의 DB 수준의 차이, 중복입력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검색시스템의 접근 방법 차이, 주관 부서의 혼란과 전담기구의 부재, 전문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 분야의 체계화를 이루는 방안일 것이다. 아울러 고문헌 종합 DB가 구축되면 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갱신하는 조정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후원과 서지목록의 기반 아래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문헌에 대한 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문헌 관리시스템의 주도적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불후(不朽)의 저술, 문집을 남기다

정진웅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 02

몇 년 전부터 티비를 통해 방영 중인 ‘불후의 명곡’을 즐겨본다.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불후’라는 단어는 곡들을 불후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미 불후한 곡이라는 말인지 프로그램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불후(不朽)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선조들도 오래전부터 즐겨 사용하였는데 특히 개인의 저술인 문집을 남기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제일 높은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요, 그 다음은 공을 세움이며, 그 다음은 말을 세움이다.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으니 이를 불후라고 말한다.”<sup>(1)</sup>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 말을 주로 인용하였다. 덕을 세우는 것과 공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여러 상황이 받쳐 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의 말의 세움은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의 불후는 자신의 불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요체를 얻어서 이치에 통달하면 된다는 말로 개인의 저술과는 무관하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의 조조(曹操). 그를 이어 위나라 문제(文帝)가 된 조비(曹丕)는 황제에 등극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1) 『春秋左氏傳』 “太上有立德，其次有立功，其次有立言，雖久不廢，此之謂不朽”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업이요, 영원토록 켜어 없어지지 않는 훌륭한 일이다. 수명은 시간이 지나면 다하고 부귀와 즐거움도 살아 있는 동안의 일일 뿐, 두 가지(수명, 부귀와 즐거움)는 반드시 예정된 종말이 있으니 문장이 영원토록 끝이 없음만 못하다.<sup>(2)</sup>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후세까지 회자될 수 있는 불후의 저술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불후를 도모하기 위해 시나 문장을 짓는 것은 위에서 조비가 말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시문류(詩文類)를 오늘날의 문집과 같은 집(集)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sup>(3)</sup> 개인 문집은 위진 남북조시기를 거쳐 더욱 성행하였으며, 양나라 때인 6세기에 시문집을 초사(楚辭), 별집(別集, 개인 문집), 총집(總集, 여러 사람의 작품집)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고서 분류방법인 사부분류(四部分類)를 정착시켰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사들 못지않게 불후의 목적으로 시나 문장을 짓고 편집하여 문집을 만드는 것이 성행하였다. 순암 안정복(安鼎福, 1721-1791)은 『모은유고(茅隱遺稿)』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아버지가) 자식이 죽은 것을 비통하게 여겨 시·문을 수습하고 벗들에게 글을 구하여 불후(不朽)를 도모하였다.<sup>(4)</sup>

『모은유고(茅隱遺稿)』의 저자는 26세에 요절한 권자경(權子庚, 생몰년미상)인데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를 불후하게 만들기 위해 문집을 만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은유고(茅隱遺稿)』 외에 여타 문집들의 서문에서도 ‘불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불후와 유사한 ‘후세에 전한다(傳於世)’라는 문장이 다수 들어가 있어 문집은 불후를

(2) 『文選』「典論論文」“蓋文章經國之大業，不朽之盛事，年壽有時而盡，榮樂止乎其身，二者必至之常期，未若文章之無窮”

(3) 집(集)을 처음 사용한 것은 춘추시대 순황(荀況)의 여러 저술들인데, 이는 후세 사람들이 붙여 준 것이고, 스스로 문집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장융(張融, 444-497)의 『옥해집(玉海集)』이다.

(4) 『茅隱遺稿』「序」“…其大人上舍公痛其齋志而歿也 收拾遺稿 求文於士友 以圖不朽”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서의 절반 정도가 문집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통시대 인물 중 1,900여 명의 문집이 인쇄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각별한 불후 의식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론 요즘 자신의 불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 문집의 명칭

문집은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경험하고 체득한 사실을 시와 문장 등으로 기록한 책이다. 오늘날의 책들은 주로 하나의 주제를 다룬 단행본이라면 문집은 저술 전체를 망라한 개인전집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문집은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sup>(5)</sup>

문집의 명칭은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삼봉집(三峰集)』,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문집(星湖文集)』과 같이 저자의 호(號)를 쓰고 다음으로 집(集)이나 문집(文集)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자의 호를 쓰지 않고 관직이나 시호(諡號), 살고 있는 집의 명칭인 서재명(書齋名)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문집은 성격,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

- **합고류(合稿類)**: 개인의 저작이 적을 경우 주로 혈연에 따라 몇 사람들의 저작을 모아 편집한 것을 말한다. 진주 강씨 3대에 걸친 3인의 문집인 『진산세고(晉山世稿)』, 고성 이씨 3대에 걸친 3인의 문집인 『철성연방집(鐵城聯芳集)』, 광산 김씨 김재화(金在華, 생몰년미상), 김재곤(金在昆, 생몰년미상) 형제의 문집인 『변유합고(樊悠合稿)』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문집의 총집(總集)에 해당된다.
- **유고류(遺稿類)**: 저자 사후에 저작들을 모아 편집한 것을 말한다. 보통 분량은 1~2책일 정도로 분량이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선원유고(仙源遺稿)』와 같이 유고(遺稿)를 많이 사용하며, 저자 사후 저작이 흩어져 수습하여 엮었을 경우에는 일고(逸稿)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용이 시나 문으로만 구성되었을 때는 김영작(金永爵,

(5) 문집은 크게 개별 문집인 별집(別集)과 연방집(聯芳集), 세고(世稿)와 같이 여러 사람의 작품을 묶은 총집(總集)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쓰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문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문헌이 없다. 다만, 별집과 총집을 통틀어 문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총집보다는 별집을 주로 문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1802-1868)의 『소정시고(邵亭詩稿)』,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의 『한음문고(漢陰文稿)』와 같이 시고(詩稿), 문고(文稿)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전집류(全集類)**: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전체 저작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한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사계전서(沙溪全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집들은 처음 만들 당시에는 분량이 많지 않아 『사계유고(沙溪遺稿)』, 『우암선생문집(尤菴先生文集)』으로 불렸지만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만들었을 때 ‘전서(全書)’, ‘대전(大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송자대전』은 전체 102책으로 개인 저술로는 가장 분량이 많은 문집이다.
- **실기류(實記類)**: 위인전기(偉人傳記)와 같이 개인의 행적을 기술한 책을 말한다. 저자들은 대부분 전란에 공을 세웠거나 후세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저작이 없거나 흩어져서 후대 사람들이 저자의 저작 일부와 행적들을 기술하여 편집한 책을 말한다. 임경업(林慶業, 1594-1646) 장군의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紀)』가 이와 같다.

이 밖에도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무릉잡고(武陵雜稿)』,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익재난고(益齋亂藁)』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명칭으로 집(集)이나 고(稿)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간혹 보인다. 대표적으로 허목(許穆, 1595-1682)의 『기언(記言)』으로 허목은 자신의 문집 서문을 지으면서 서명으로 지은 이유를 밝혔다.

주역에 이르길 “(중략) 말과 행동은 군자의 핵심이니, 이것에 따라 영예와 오욕이 달려 있다. 말과 행동은 천지를 움직일 수 있으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평소에도 말을 하면 반드시 글로 남겨서, 날마다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나의 글을 기언이라 하였다.<sup>(6)</sup>

(6) 『記言』「序」“易翼曰…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慎乎穆 唯是之懼焉 言則必書 日省而勉焉 名吾書曰記言”



그림 1. 전집류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의 문집, 송자대전(위창古3648-39-3)

## 문집의 편성

문집은 일반적으로 서문-목록-본문-부록-발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기도 한다.

서문은 표지 뒤에 수록하고 후서(後序)가 연이어 수록되거나 문집 끝에 수록되는 경우가 있다. 서문은 문집이 인쇄되고 나서 붙여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고가 편집된 이후에 썼다. 서문을 구분하자면 스스로 쓴 서문과 타인에게 글을 받은 서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에 의한 서문이 대다수이다. 문집 인쇄 당시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물에게서 글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서문을 쓴 인물의 명망과 더불어 저자를 찬양하게 하여 불후하게 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 서문은 반듯한 한자인 행서(行書) 또는 약간 흘려 쓴 반초서체(半草書體)로 쓴 것이 많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 문집이 간행되는 경우 왕의 서문을 수록하여 문집의 품격을 높였다.

목록은 오늘날의 목차로 내용을 알리고 열람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수록하였다. 각 권의 목록을 한 데 모아서 전체 목록을 붙이는 것과 각 권에 목록을 수록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목록이 없는 문집은 소장자가 겉표지에 직접 쓰기도 하였다.

본문은 편집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순서가 많이 달라졌다. 문집의 체제를 갖춘 것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다. 시와 문장으로 구분하고 시는 저작연대순으로, 문장은 문체별로 편집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후 조선전기에는 『동문선(東文選)』에 이어 신용개(申用溉, 1464-1519)가 중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속동문선(續東文選)』의 문체 분류를 따르고 있다.

조선후기 문집들도 대부분 『속동문선(續東文選)』의 문체순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큰 학자의 문집을 모방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황(李滉, 1501-1570)의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이나 송시열(宋時烈)의 『송자대전(宋子大全)』의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의 본문은 사(辭) · 부(賦) · 시(詩) · 서(書) · 기(記) · 서(序) · 논(論) · 발(跋) · 잡저(雜著) · 제문(祭文) · 애사(哀辭) · 지장(誌狀)순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辭) · 부(賦) · 시(詩)는 시에 해당하는데, 오언 · 칠언 절구(絕句), 율시(律詩) 등으로 구분하는 시체별(詩體別)로 수록하기도 하고 저자가 시를 지은 저작연대순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서(書)부터는 문에 해당된다. 이중 서(書)는 요즘의 편지에 해당하는데, 큰 학자의 경우 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는 등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저술이 별로 없는 저자의 문집에 분량을 충당하기 위해 수록하는 경향이 있다.

부록은 문집의 끝부분에 수록하는데, 저자의 평생 업적을 기록해 놓은 행장(行狀) · 유사(有事), 연보(年譜) 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輓辭) · 뇌사(誄辭) · 제문(祭文) 및 기타의 글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저자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부록으로 수록하는 것이다. 이 중 연보는 문집과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발문은 문집의 편찬과 인쇄 과정을 밝히는 글들로 이것을 주도하였던 인물이 주로 썼다. 따라서 발문을 통하여 문집의 편찬 취지 및 인쇄 경위 등을 알 수 있다.

## 고려시대 문집

우리나라 최고(最古) 문집은 최치원(崔致遠, 857-?)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신라에 돌아와 886년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을 비롯한 시문집 28권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은 고려시대 인쇄본도 있고 조선전기 인쇄본도 있었지만 지금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후기 1834년에 인쇄된 20권이다.

고려시대 문집은 조선전기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나 조선후기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등을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sup>(7)</sup> 이것에 의하면 문집이 원고 형태였는지 아니면 인쇄된 형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20종 이상이 고려시대 인쇄,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문집을 볼 수 있는 것은 최해(崔澐, 1287-1340)의 『줄고천백(拙藁千百)』,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 민사평(閔思平, 1295-1359)의 『급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 정포(鄭誦, 1309-1347)의 『설곡시고(雪谷詩藁)』 등 손꼽을 정도이다.

고려시대 문집이 적었던 원인은 최해(崔澐, 1287-1340)가 『동인지문(東人之文)』을 편찬하고 지은 서문에서 알 수 있다.

---

문인들이 날로 많아지고 문장이 찬란하여 모두 불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풍속이 두터운 것(불교)만 숭상하여 문집이 있더라도 직접 필사한 것들만 많고 인쇄된 것은 적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유실되어 널리 전하는 것이 적다.<sup>(8)</sup>

---

고려시대 인쇄문화의 중심은 불경이었고, 문집들은 인쇄보다는 저자의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문집들 중 주목할 점은 무인정권, 특히 최씨정권 시기에 간행된 문집들이다. 상식적으로 무인정권은 문인들의 전유물인 문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최씨정권에서는 주도적으로 문인들의 문집을 만들어 주었다.

최충헌(崔忠獻, 1149-1219)은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쌍명재집(雙明齋集)』을 만들어 주었다. 이인로가 그의 최측근이었던 점도 있었지만 이전 무인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고 다음 정권인 최이(崔怡, ?-1249)에게 영향을 끼쳤다.

---

(7) 옥영정, 「여말선초 문인들의 개인 문집 간행」 『포은학연구』 vol.19, (2017) p.10-11 참조

(8) 『拙藁千百』, 「東人之文序」 “人才日盛, 粲然文章, 咸有可觀者焉。然而俗尚惇龐。凡有家集, 多自手寫, 少以板行。愈久愈失, 難於傳廣。”

최이는 적극적으로 문인들의 문집들을 간행해 주었다. 최이는 김극기(金克己, ?-?)의 『김거사집(金居士集)』, 임춘(林椿, ?-?)의 『서하집(西河集)』, 임유정(林惟正, ?-?)의 『백가의집(百家衣集)』,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을 만들어 주면서 문집의 편찬 및 인쇄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특히 자신을 옹호하고 있던 이규보의 문집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문인들의 호응을 기대하면서 고려 문단을 자신의 통제하에 정리하려고 하였다.

최이에 이은 최항(崔沆, 1209-1257)도 최이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당시 몽고의 침입 등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규보 문집을 다시 만들었으며 최자(崔滋, 1188-1260)의 『보한집(補閑集)』도 만들어 주었다.

결국 최씨정권은 문인들의 문집을 통해 자신 정권의 정당화와 문인들의 호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다른 무인 정권들보다 오래 집권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sup>(9)</sup>



그림 2. 1251년 분사도감에서 인쇄된 동국이상국집(古朝46-가1850)

(9) 權寧奎(2008), 『高麗 崔氏政權의 文集刊行과 지원』,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 조선전기, 국가에서 주도한 개인의 문집

문집이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로 문집에 관한 한 ‘조선의 문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조선 후기 문집이 대부분이고 조선전기는 고려보다는 조금 증가하였을 뿐이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전쟁으로 문집이 실전(失傳)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문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문집은 당대에 학식 있는 인물들이 저술을 남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자신의 작품이 후세에 남아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했다. 따라서 저술을 하였더라도 원고를 불태워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선전기 문집들은 권근(權近, 1352-1409), 성삼문(成三問, 1418-1456), 김시습(金時習, 1435-1493) 등 들어봤을 유명 인물들의 문집들로 누구나 문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인이나 주변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라야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전기 문집들에게서 주목할 점은 국가에서 문집을 간행해 준다는 것이다. 문집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다는 것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후손들에게는 대단한 영광일 것이다.

세종이 집현전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하였던 것이 성종에게 이어지면서 문인들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문인들의 저작물 양산으로 나타났다. 성종은 자신이 직접 문인들의 저작물을 열람하고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만들어 주었다. 성종 이전에는 태조가 이승인(李崇仁, 1349-1392)의 『도은집(陶隱集)』, 세종이 변계량(卞季良, 1360-1430)의 『춘정집(春亭集)』, 성석린(成石璘, 1338-1423)의 『독곡집(獨谷集)』 등 소수의 문집을 만들어 주었지만 성종은 원고를 직접 열람하고 금속활자를 사용한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서거정(徐居正, 1420-1488), 김종직(金宗直, 1431-1492) 등 문인들의 문집을 다수 만들어 준 것이다. 조선 후기 문집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왕명에 의한 문집은 숙종, 정조를 비롯한 몇몇 왕들과 소수의 문집들뿐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조선전기 왕명에 의한 문집 인쇄는 개인의 사사로운 저작물인 문집을 국가적 차원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사건과 동시에 문집 인쇄에 끼친 영향은 크다. 국가의 활자로 만든 문집은 활자 특성상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없어 배포에 한계가 있었다. 활자와 다르게 목판은 필요할 때마다 판목을 꺼내와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판 인쇄를 선호하게 되었다. 문집의 목판 인쇄는 문집의 저자 또는 후손과 혈연, 학연 등의 관련 있는 인물들이 관찰사나 주부군현(州府郡縣) 등 지방관으로 나가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얻어 지방관아에서 목판으로

문집을 인쇄하였다.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관들이 사적인 개인 문집을 만들어 준 것으로, 이전 왕명에 의한 문집 인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성종시기 왕명에 의해 금속활자로 만든 문집들 역시 지방관아에서 다시 인쇄되어 유포되었다.

지방관에서 만든 책은 경서(經書) 등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교화서(敎化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지방관이 만든 책은 문집이 25% 이상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0)</sup> 혈연, 학연 등의 인맥을 통한 지방관아에서의 문집 인쇄는 18세기 중반 서원, 문중에서 문집을 인쇄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인쇄 방법으로 정착하였다.



그림 3. 성종시기 교서관본에 이어 1587년 지방관아에서 두 번째로 인쇄된 저헌집(古3648-62-1186)

## 문집의 증가, 자편문집(自編文集)의 등장

조선전기 문집은 조선후기 문집과 양으로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쇄된 문집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을 거치면서 저술이 불에 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몸소 겪은 조선후기 문인들은 자신의 저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저술을 편집하여 불후의 저술이 되게 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는 문집에 있어서 저자가 스스로 문집을 인쇄하기 위해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한

(10)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15권 15호(2009) 참조



자편문집(自編文集)의 출현이며, 결과적으로 문집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전까지 문집은 저자 사후에 자손이나 제자들이 편집,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 자편문집이 최초 등장하는 것은 문헌상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이지만, 초기 인쇄본은 현재는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은 두 번째 인쇄본으로 자편문집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전하는 자편문집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73년 인쇄된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호음잡고(湖陰雜稿)』이다. 정사룡은 스스로 서문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자편(自編)한 이유를 밝혔다.

간간이 동료들이 나에게 원고 수집을 권하고 후세에 전하는데 일삼으라 했으나 감당할 수 없다. (중략) 낮에 앉아 있을 때나 밤에 누워있을 때에 옛날에 지은 것들을 읽어보니 번민이 없어지고 편안해졌다. 그러므로 상자 속에 보관한 것들을 검수하고 또 벗들에게 준 나의 저술을 가져와서 약간의 편을 모으고 몇 권으로 정리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갖추었다.<sup>(11)</sup>

처음에는 겸손의 의미로 거절했지만 결국 저자 스스로 자신이 지은 작품들이 만족스럽고,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문집을 스스로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호음잡고(湖陰雜稿)』는 17세기 초에 자편한 양경우(梁慶遇, 1568-?)의 『제호집(霽湖集)』<sup>(12)</sup> 등을 비롯한 많은 문집에 영향을 미쳐 17세기에는 자편문집이 대폭 증가하였다. 선조-인조 시기 문장이 뛰어나 한문사대가로 일컫는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신흠(申欽, 1566-1628), 장유(張維, 1587-1638), 이식(李植, 1584-1647)을 비롯해 이인상(李麟祥, 1710-1760),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등 조선후기까지 우수 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저술을 편집하고 있다.

(11) 『湖陰雜稿』自序 “間有同好之輩 勸余裒輯 以爲事涉傳後 益不敢當 (중략) 唯晝坐夜臥之時 念誦舊作 足以排悶遺寂 故檢諸篋笥之藏 又取交遊之間 摠若干編 釐爲幾卷 以備耄年負喧之覽云”

(12) 양경우는 자신의 문집 서문에서 호음 정사룡의 문집의 예를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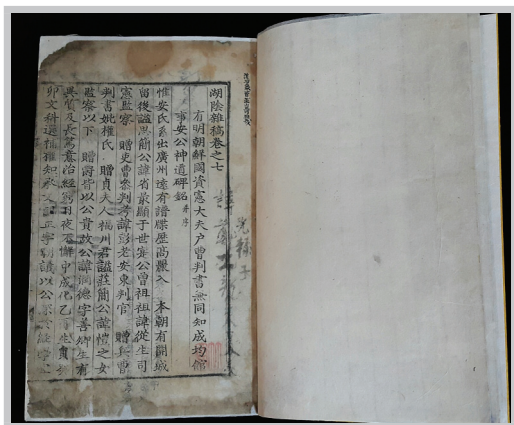


그림 4. 현전하는 최고의 자편문집(自編文集)인  
호음잡고(일산古3648-70-30)

자편문집은 일반문집과 달리 다양한 편차(編次)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시나 문장에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별로 묶어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일정한 편차 없이 자유롭게 편차하기도 하였다. 각 편에 제목을 붙였으면 저자 스스로 주석을 붙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의 편집 작업은 저자에게 그동안의 저술을 정리하면서 지난 날의 과오와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유년시절에 지은 작품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고 하여 불태워 버리고 주로 말년에 저술한 작품만을 선택하여 후세에 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자편문집의 등장으로 자신을 불후하게 만들려는 저작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고 이는 조선이 문집의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였다.

## 조선후기 국가 활자로 개인 문집 인출(印出)

금속활자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단어이다. 1377년 흥덕사에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조선은 계미자(癸未字), 갑인자(甲寅字), 갑진자(甲辰字), 을해자(乙亥字) 등 다양한 금속활자를 만들어 서적 인쇄에 활용하였다. 이런 금속활자는 동(銅)이나 철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재료의 구입과 주조하는 기술 문제로 국가에서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금속활자가 불타고 없어지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금속활자를 모방한 목활자로 서적을 인쇄하였다. 조선후기 금속활자는 숙종연간에 와서야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 무신자(戊申字), 한구자(韓構字),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 등이 주조(鑄造)되어 서적을 인쇄할 수 있었는데, 이 중 한구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조선전기 금속활자를 이용한 문집 간행이 있었지만 이것은 왕명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公的)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왕명 보다는 개인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私的)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구자의 경우 1677년경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사사로이 주조한 활자로 1695년경에 국가에서 사들여 국가 활자가 되었지만 국가로 들어가기 전 주로 김석주 외가 인물들의 문집이 한구자로 인쇄되었다. 비록 개인이 주조한 금속활자지만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금속활자로 문집을 인쇄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김석주는 한구자를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 문집은 한구자로 인쇄하지 않았다. 그의 할아버지 김육(金堉, 1580-1658)의 『잠곡유고(潛谷遺稿)』나 아버지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의 『귀계유고(歸溪遺稿)』는 국가 소유 활자인 무신자로 인쇄하였고, 자신의 문집인 『식암유고(息庵遺稿)』 역시 교서관인서체자로 인쇄하였다.

교서관인서체자는 일명 ‘문집자(文集字)’로 불릴 만큼 수많은 문집들 인쇄에 사용되면서 인쇄 문화에 끼친 영향이 크다. 국가 활자이면서 개인 문집에 주로 사용되었고, 인서체(印書體)라는 네모반듯한 활자체가 도입되어 활자를 만드는 기술의 진보와 조선 후기 많은 활자(목활자 포함)들이 모방하는 등 활자의 발전과 확산을 가져왔다.

교서관인서체자로 인쇄된 문집들은 90종 이상이다. 이들 문집들은 국가 활자로 인쇄되었기에 문집의 저자나 후손들은 정치 변화, 즉 당쟁(黨爭)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소론계가 정국을 장악한 경종-영조 초기에는 소론계 인물들의 문집들이 주로 인쇄되었고, 그 이후에는 노론계가 정국을 장악하였기에 노론계 인물들의 문집들이 인쇄되었다. 이것을 보면 국가 권력과 금속활자, 그리고 문집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 활자이지만 보관하고 있던 교서관에서만 인쇄된 것은 아니다. 문집 인쇄를 주도한 인물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들로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편한 장소에 가져가 인쇄를 시도하였다. 1699년 인쇄된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문곡집(文谷集)』 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편차는 이미 정해졌으나 인쇄할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 김창집이 강화에 부임하라는 명을 받게 되어 약간 힘을 써 교서관인서체자를 얻고 몇 부를 간행하였다.<sup>(13)</sup>

(13) 「文谷集」, 「跋」 “編次既定, 患無力剞劂, 會不肖昌集受命居留江都, 粗得拮据, 取芸館活字, 印出若干本。”

이와 관련되어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삼연집(三淵集)』에도 강화에서 문집을 인출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뒷받침한다.<sup>(14)</sup> 또한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남당집(南塘集)』은 원래 평안도 관찰사 황인검(黃仁儉, 1711-1765)이 감영에서 교서관 활자로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교서관에서 활자를 지방으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령이 생겨 인출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어<sup>(15)</sup> 권력을 가진 자가 교서관 활자를 지방관아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서관인서체자로 인출한 문집들 중에는 중인(中人)들 문집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중인들은 정치적 위상이나 경제력 부족으로 문집 인쇄가 힘들어 사대부 권력자들에게 위탁하여 문집을 만들 수 있었다. 홍세태(洪世泰, 1653-1725)의 『유하집(柳下集)』, 황택후(黃宅厚, 1687-1737)의 『화곡집(華谷集)』 등이 대표적이고, 여러 중인들의 시를 모아 편찬한 『소대풍요(昭代風謠)』, 『풍요삼선(風謠三選)』 등도 교서관인서체자로 인출하였다.

교서관인서체자 외에 임진자(壬辰字), 정유자(丁酉字), 재주한구자(再鑄韓構字)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개인 문집을 인출한 사례는 더러 보이고 있다. 또한 19세기 초에는 개인이 전사자(全史字)라는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개인 문집이나 족보 등 개인의 사적 출판에 많이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국가 활자를 사대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문집을 많이 인출한 것은 인쇄문화사에 있어서 국가 활자의 공적·사적인 영역이 모호해졌고, 개인의 권력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

## 지방유림이 모여 만든 문집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지방에서의 문집 인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국가나 지방관 중심의 문집 인쇄가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 이후에는 서원, 문중 중심의 문집 인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대동법, 균역법 등 세금 징수 방법의 변화로 지방관아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인 문집 인쇄에 지방관과 청탁자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 서원의 급격한 증가는 배향 인물의 증가와 배향

(14) 『三淵集』, 卷14 “先集印役匠人宴飲時小記”

(15) 『庸齋先生文集』 卷6 「書」 “大抵此役與黃台相約。本以活字經紀。芸館新令。不許外邑。”

인물들의 선양사업과 맞물려 있어 자연스레 문집 인쇄 촉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sup>(16)</sup> 서원에서의 문집 인쇄는 대원군에 의한 서원의 철폐로 위기에 몰렸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문중을 중심으로 문집 인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원이나 문중 같은 지방에서의 문집 인쇄는 이전 국가 활자를 이용한 문집 인쇄나 지방관 중심의 문집 인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교서관인서체자와 같이 당시의 권력과 관계된 인물이면 문집을 인쇄할 수 있었는데 반해 지방은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되더라도 지방 향촌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인쇄될 수 없었고, 설령 인쇄된다 하더라도 배포 할 수 없었다. 또한 국가나 지방관이 인쇄한 문집은 소수의 인력만으로 편집, 교정, 인쇄할 수 있었지만 지방에서의 문집 인쇄는 향촌사회의 유림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명망이 높은 학자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문집은 지역 유림들이 주도하였고, 인근 지역 유림들 공의(公議)를 모은 후에 인쇄될 수 있었다. 지방에서의 문집 인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림들은 먼저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문집을 인쇄하고자 한다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참여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론이 형성되면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도감(都監, 전체 대표자), 도청(都廳, 실무 총괄자), 교정(校正, 편집된 원고 교정자), 감정(監正, 교정된 원고 검수자), 편차(編次, 원고 체제 작성자), 사본(寫本, 교정된 원고 필사자), 장재(掌財, 인쇄 비용 담당자), 반질(頒帙, 완성된 문집 배포자) 등 각각의 업무를 적은 파임록(爬任錄)을 작성하였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변암집(樊巖集)』 같은 경우 도산서원에서 유림 126명이 참여하는 파임록(爬任錄)이 작성된 것을 보면 지역 유림이 하나의 문집 인쇄를 위해 다같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되는 저자의 저술은 여러 차례 교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작품 전체가 빠지거나 내용의 일부가 빠지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인쇄비용 절감을 위해 양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에서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경우이다.

이렇게 편차와 교정을 통해 원고가 완성되는데 이것을 초고본(草稿本)이라 불렀다. 초고본은 이후 여러 차례 교정을 거쳐 최종본인 정고본(定稿本)이 만들어진다. 정고본이 만들어지기까지 편차와 내용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듯 문집을 인쇄하는데 교정자들은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다른 업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학식과 명망이 뛰어난 인물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16)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2013. 9) pp.447-470 참조

목판본으로 인쇄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정고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시 깨끗하게 필사하여 목판에 새길 원고인 등재본(登梓本)으로 만들고, 등재본은 판목에 거꾸로 붙여 각수(刻手)들에 의해 글자를 새기게 하였다.

완성된 판목으로는 보통 100부 이하로 인출하였는데, 종이가 귀해 각수가 글자를 새기는 비용보다 종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많은 부수를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출이 끝나면 배포를 하게 되는데 향교나 서원 등 향촌사회의 공공단체를 우선 배포하고 학연·혈연이 있는 문중이나 문집 인쇄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게 된다. 이때 문집을 배포 받은 사람은 문집에 대한 성의로 돈이나 물품 등을 답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완성된 판목은 보관하여 다시 인출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하게 된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관을 중심으로 인출하였기에 관청이나 사찰 등에 보관을 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서원, 문중이 많아지면서 서원이나 문중에서 ‘장판각(藏板閣)’ 등을 별도로 만들어 보관하였다.

이처럼 지방에서의 문집 인쇄는 문집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문집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한편 그에 따른 폐해의 지적도 뒤따랐다.

근세의 영남 인사들은 걸핏하면 사당을 세우고 문집을 만드는데, 대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름난 인사가 아니고 자기 고을의 선배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사대부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집안이 한미해지고 조정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면 문중을 지키기도 어렵고 지방 아전들과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상 중에서 글을 알고 점잖다는 소리를 듣던 이가 평소 지었던 시와 편지들을 모아 판각하고 ‘모선생유고’라고 말한다. (중략)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을 모르고 주변 선비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sup>(17)</sup>

문집이 향촌사회에서 많이 인쇄되고 있는 원인으로 문집을 만드는 이들이 사대부를 유지하고 문중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 모두 알만한 인물들의 문집만 인쇄되어 배포되었는데 향촌에서는 모르는 인물의 문집이 인쇄되어 나온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집의 인쇄가 많다 보니 문집에 사용된 종이를 약을 포장하는 용지로 사용하거나 휴지로

(17) 洪翰周, 『智水拈筆』



사용하는 등 문집의 가치 하락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sup>(18)</sup>

당시에 이러한 폐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집이 많이 남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문집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자가 정치, 사회,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용을 기록했기에 모르는 인물이라도 현재 그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의 사회,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고, 인물들 간의 네트워크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 어린 아이의 문집, 행당원고(杏堂冤稿)

조선시대 인물 중 1,900명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sup>(19)</sup> 이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작성한 문집은 『행당원고(杏堂冤稿)』이다. 저자 김경림(金景霖, 1760-1768)이 고작 9년 만에 요절하자 아버지 김필형(金弼衡, 1725-1780)이 아들의 저술을 수습하여 1777년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서문을 받고 인쇄하였다. 문집 제목도 꽃피우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애통해하며 원통할 원(冤)자를 넣었으니 아버지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집의 내용은 다른 문집들과는 다르다. 9살 아이의 저술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지은 시 몇 편과 잡저 3편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부록으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행록(行錄)과 그의 문집을 읽고 아버지 친구들이 지어준 글들만 수록되어 있다. 끝부분에는 저자 누이의 문집인 『행당상자원고(杏堂殤姉冤稿)』를 붙여놓았다.

그의 재주를 엿볼 수 있는 시 한편을 소개한다.

|         |                        |
|---------|------------------------|
| 千古英雄雪上鴻 | 예로부터 영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
| 百年富貴雨中紅 | 백년의 부귀는 금방 사그라지네.      |
| 世間萬事皆如此 | 세상만사 모두 이와 같은데         |
| 惟有文章久不空 | 오직 문장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구나. |

(18) 俞晚柱, 『欽英』

(19) 1,900명은 문집이 인쇄되어 현재 전하고 있는 수치이다. 인쇄되지 않고 원고 형태로 전하고 있는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2,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의 제목은 「세간불후지물유시문장시이식지(世間不朽之物惟是文章詩以識之)」로 ‘세상에 불후한 것은 오직 문장과 시 뿐이다.’라는 뜻이다.

이 시를 몇 살에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린 아이가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자신이 불후하기 위해 문장에 뜻 삼겠다는 것을 보면 그 재주를 가늠해 볼 수 있고, 한편으론 불후를 위한 저술이 당시에 만연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재주를 가진 아들이었으니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원통함을 이 문집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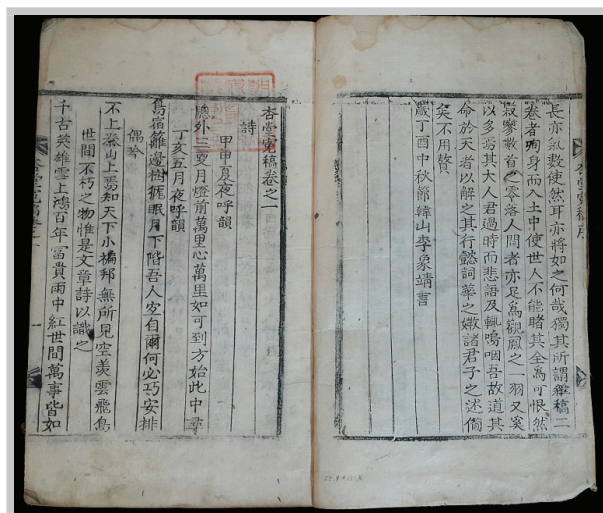


그림 5. 행당원고(古朝46-가1552)

## 집에서 만든 문집, 완구유집(宛丘遺集)

조선후기 가장 특이한 문집을 꼽으라면 단연 『완구유집(宛丘遺集)』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조선후기 문인이었던 신대우(申大羽, 1735-1809)로 문집은 저자 사후 아들인 신진(申縉, 1756-?), 신작(申綽, 1760-1828), 신현(申絢, 1764-1827)에 의해 편찬, 인쇄되었다. 이충익(李忠翊, 1744-1816)의 『초원유고(椒園遺稿)』에는 완구유집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충익은 1816년 신작 등 형제들이 문집을 보여주면서 서문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충익의 서문은 완구유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완구유집의 인쇄 과정은 둘째 아들 신작의 일기인 『석천일승(石泉日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신대우의 원고는 살아생전에 스스로 편집하였는데, 사후에 아들들이 꾸준히 수집하여



1818년 초에 10권 2책으로 편집이 완료되었다. 이를 1818년 10월 초부터 둘째 아들 신작이 목판에 새길 글자를 쓰기 시작하여 1819년 1월 초에 쓰기를 마쳤다. 그리고 1819년 9월부터 1920년 9월까지 서울과 평양의 장인 2명을 집으로 불러 새기게 하고, 26부를 인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집이 왜 특이할까? 그것은 필체에 있다. 물론 지방관이나 서원에서 인쇄한 것이 아닌 집에서 직접 인쇄한 것도 특이하지만 문집에 사용된 필체는 정말 특이하다. 대부분의 문집은 반듯한 해서(楷書)로 쓰여 졌는데 여기에는 해서 같기도 하고 예서(隸書) 같기도 한 팔분체(八分體)로 쓰였다.

글씨체가 익숙하지 않아 문집이 만들어진 당시에도 글자가 읽기 어렵고, 이런 문집은 처음 본다는 평을 받았지만 예서(隸書), 전서(篆書) 등 서예에 능한 신작은 아버지의 문집이라 여타 글씨들보다 더 공들여 썼을 것이고, 각수 또한 특별히 초빙하여 판각을 시켰으므로 다른 문집들보다 더욱 세심하고 정밀하게 새겼음을 이 문집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6. 완구유집(古3648-40-8)

## 가장 많이 인쇄된 문집, 포은집(圃隱集)

문집의 인쇄는 정치적, 사회적, 문학적 이해관계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국가 소유 활자로 문집이 인쇄될 때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전쟁으로 인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문학 업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복합되어야지만 문집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에 개인 문집은 3-4차례만 인쇄되어도 많이 만들어진 문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무려 14차례나 만들어진 문집이 있다.

고려를 위해 충절을 지키다가 죽은 포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그는 조선이 건국할 때 역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충신의 대명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학(道學)의 시조로 추앙받아 수많은 서원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그의 문집 『포은집(圃隱集)』은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14번이나 인쇄되고 유포되면서 가장 많이 인쇄된 문집으로 남아 있다.<sup>(20)</sup>

정몽주에 대한 포상은 태종이 즉위하고 바로 시행되었다. 1401년 ‘문충(文忠)’이란 시호가 내려지고 자손들이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아들들이 정몽주의 저술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집의 간행은 세종대에 이뤄졌다. 1439년 세종은 정몽주의 문집을 열람하고 인쇄하도록 하였는데 아쉽게도 이 문집은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정몽주의 5대손 정세신(鄭世臣)이 신계(新溪)현령으로 부임하면서 인쇄되었는데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575년 개성의 옛 정몽주 집이 송양서원(崧陽書院)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배향 사업으로 문집을 인쇄하였다. 이 문집은 명필로 이름난 석봉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썼다.

네 번째는 1575년부터 1584년경에 교서관에서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판본은 이전 문집에서 정몽주의 시들만 수록되어 있었는데 문장도 추가하여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이라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는 교서관본이 인출되고 나서 1585년 만들어졌다. 교서관본이 인출이 많지 않아 배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바로 만들어진 듯하다. 이 판본은 선조의 명령에 의해 서애 유성룡(柳成龍)이 교정을 하고 정몽주를 배향한 영천 임고서원(臨臯書院)에서 인쇄되었다. 이 판본 역시 임진왜란 때 판목이 불타 없어졌고, 인출 부수도 많지 않아 현재 볼 수 없다.

이후 1607년 임고서원(臨臯書院), 1608년 후손에 의해 황주병영(黃州兵營), 1662년 후손에 의해 봉화현(奉化縣), 1677년 영천군(永川郡), 1769년 송양서원, 1769년 임고서원, 1866년 영천군(永川郡), 1900년 후손에 의해 목화자로 인쇄되었다.

(20) 최재기(2006), 『圃隱集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마지막 문집은 1903년 진주 옥산재에서 진주의 유림들이 모여 문집을 인쇄하였다.

이처럼 포은집은 가장 많이 문집이 만들어지면서 문집 인쇄에 일반적 형태를 모두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해 도서관에서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문집, 지방관에 의해 만들어진 문집, 후손에 의해 만들어진 문집, 서원에서 지방 유림들이 모여 만들어진 문집 등 다양한 문집 인쇄 양상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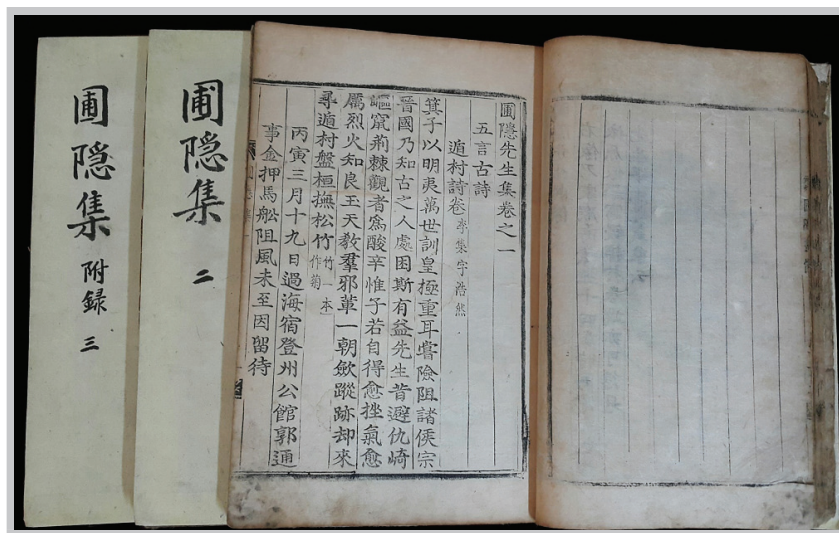


그림 7. 포은집의 네 번째 판본인 도서관본(포은선생집, 古3648-70-7)



그림 8. 포은집의 두 번째 판본인 신계본(포은시고, 古朝45-가379)

## 또 다른 옛 책, 일본 고서

03

### 들어가며

우리는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옛 선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이 향유하고 전승한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책에서 나오는 기운인 ‘서권기(書卷氣)’를 오늘날의 책과는 다른 옛 책을 통해, 특히 우리와는 또 다른 이웃 나라의 옛 책에서 느껴 보고자 한다.

천 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고서, 고지도, 고문서 등의 옛 문헌들이 상당 수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 또는 필사하여 제작된 고서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나타낼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본 고서 약 5만 3천 책, 중국 고서 약 3만 5천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고문헌 27만여 책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이며, 외국 고서의 총 보유 수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 논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한국의 고서가 아닌, 또 다른 옛 책으로서 일본에서 제작한 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어떻게 많은 수의 외국 고서들이 도서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이웃 나라 고서인 일본 고서를 중심으로 서지학적 특징과 판본 및 주제별 선본(善本)에 대해 분석하겠다.



## 1. 고서의 수집과 정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11월 30일 개관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이다. 광복이 되자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수집한 장서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승계되었다.

1924년에 발표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명과 1933년 명시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운영 지침을 보면 “조선민족의 내외 고급의 문헌을 수집하여 이를 영구 보존할 것, 동아시아 특히 조선 연구에 필요한 화한양서(和漢洋書)를 수집할 것, 조선 통치의 이념에 기초한 사상 선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도서를 수집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사명과 운영 지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개관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1923년 12월부터 약 20년간 고서를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해방되는 1945년까지 28만 4천 책의 장서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 고서는 13만 책에 달하여 전체 장서의 46%를 차지하였다. 이 중 한국 고서는 약 5만 책이며 나머지 8만 책이 일본과 중국의 고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본과 중국 고서가 약 8만 8천 책 소장되어 있으므로, 그 대부분이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수집하였던 장서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기록하였던 ‘도서관자료원부’ 및 ‘고서부공용명령서(古書部供用命令書)’를 확인해보면 도서관장을 비롯하여 물품회계 관리, 물품취급 주임, 매도신청 담당 등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원부 집계표에도 일본인 5명, 한국인 1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다가 요우지(大高洋司)는 총독부의 예산이 풍족하고 일본인 사서들이 재직하고 있어 일본 고서에 대한 수준 높은 장서의 형성이 가능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자의 기증 등으로 구성된 해외의 문고나 도서관의 장서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본 내의 대규모 도서관에 준하는 장서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 일본 내에는 없는 귀중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sup>(2)</sup>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고서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구입, 기증, 보관전환(保管轉換)에 의해 이루어졌다.<sup>(3)</sup> 구입은 고서적상 등 서적중개상들을 통해 도서를 선정하여 구입하였고, 기증은 주로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 조선총독부, 동양문고(東洋文庫),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등의 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이루어졌다. 보관전환은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던 것을 조선총독부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2006

(2) 오다가 요우지(大高洋司),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일본고문헌조사사업 보고』, 『제1회 한일고문헌연구교류회 자료집』, 2010

(3) 이해은·김효경, 『순암 안정복 장서의 수집과 그 특징』,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백재 장서』, 2013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것으로 도서등록원부의 입수 구분에 ‘보전(保轉)’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로 개관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등 총독부 내에 있던 도서실로부터 보관전환 받은 도서이다.

다음은 고서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수집한 고서는 고서부분류표(古書部分類表)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화한도서목록편찬규칙(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과 화한서목록법(和漢書目錄法) 등을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고서 분류는 10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 문(門)은 00에서 99까지 100구분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표적인 고소설인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sup>(4)</sup>』의 경우 어학·문학인 제5문의 37인 ‘모노가타리·군기물(物語軍記物)’로 세별되어 분류번호 ‘古5-37’에 수입순번호를 붙여 청구기호 ‘古5-37-3’이 부여된다.

한국 고서의 경우는 제10문 다음에 ‘조선문(朝鮮門)’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조(古朝)’의 별치기호를 사용하고 100구분하여 분류하였다.

해방 이후 1946년부터 새로 입수하는 동양서 및 고서는 당시 박봉석 부관장의 주도로 만든 한국십진분류표(KDCP)에 의해 분류하였고, 고서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이 분류표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새롭게 입수된다면, 한국십진분류표(KDCP)에 의거하여 ‘3류(類) 어학·문학’ 내 ‘380 일본문학’의 ‘3836 모노가타리·시대소설(物語·時代小說)’ 세목으로 분류하여 청구기호는 ‘古3836-8’이 부여될 것이다.

즉, 일본 및 중국 고서와 한국 고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기준으로는 별도 구분되어 분류번호가 달라지는 반면, 해방 이후 적용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표(KDCP)의 분류로는 동일 주제에 있어서 동일한 분류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류표의 변천(그림 1)과 조선총독부도서관 고서부분류표 및 한국십진분류표의 유목별(類目別) 분류(표 1)를 아래의 그림과 표로 확인할 수 있다.

(4) 일본어표기에 있어 인명, 지명 및 시대표기, 일본 고유의 문학양식과 서명은 일본어 가나발음에 준하여 표기하겠다. 단, 중국에서 유래된 한문 서명, 용어와 연호 등 한자어는 음독(音讀)하여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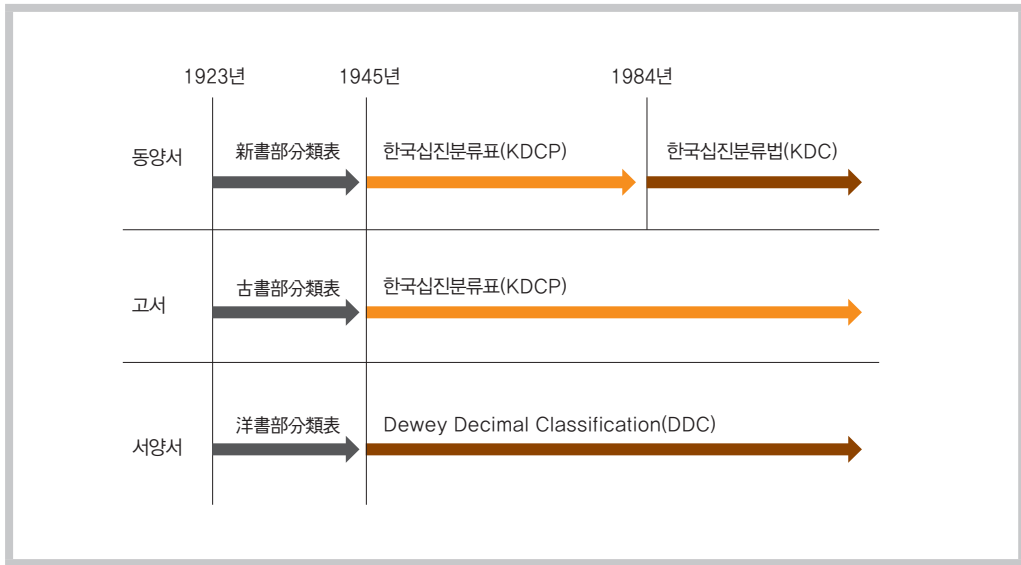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표 변천

표-1 조선총독부도서관 고서부분류표 및 한국십진분류표(KDCP)

| 고서부분류표 |       | 고서부 중 조선문 분류표 |       | 한국십진분류표(KDCP) |       |
|--------|-------|---------------|-------|---------------|-------|
| 第 1 門  | 철학·종교 | 古朝-00         | 철학·경학 | 0             | 총류    |
| 第 2 門  | 교육·사회 | 古朝-10         | 제자    | 1             | 철학·종교 |
| 第 3 門  | 법률·정치 | 古朝-20         | 종교    | 2             | 역사·지리 |
| 第 4 門  | 경제·통계 | 古朝-30         | 정치·법률 | 3             | 어학·문학 |
| 第 5 門  | 어학·문학 | 古朝-40         | 어학    | 4             | 미술·연예 |
| 第 6 門  | 역사·지리 | 古朝-50         | 역사    | 5             | 사회·교육 |
| 第 7 門  | 이학·의학 | 古朝-60         | 지리·풍속 | 6             | 정법·경제 |
| 第 8 門  | 공학·군사 | 古朝-70         | 토목·수리 | 7             | 이학·의학 |
| 第 9 門  | 산업·예술 | 古朝-80         | 농가    | 8             | 공학·공업 |
| 第 10 門 | 전서·잡찬 | 古朝-90         | 전서·총서 | 9             | 산업·교통 |
| 朝鮮門    | 조선문   |               |       |               |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중국, 일본 고서에 대한 자세한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책자형 목록집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외국고서목록-중국·일본편 1 ~ 4』 총 4권을 간행한 바 있어 일본과 중국 고서에 대한 주제별 서지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외국고서목록 주제별 수록현황

| 구분       | 주제구분                      | 수록 책수   |
|----------|---------------------------|---|
| 외국고서목록 1 | 1문(철학·종교) ~<br>4문(경제·통계)  | • 중국본 686종 5,318책<br>• 일본본 3,684종 14,077책     |
| 외국고서목록 2 | 5문(어학·문학)                 | • 중국본 328종 3,647책<br>• 일본본 2,789종 10,104책     |
| 외국고서목록 3 | 6문(역사·지리) ~<br>8문(공학·군사)  | • 중국본 585종 8,555책<br>• 일본본 3,235종 9,877책      |
| 외국고서목록 4 | 9문(산업·예술) ~<br>10문(전서·잡찬) | • 중국본 398종 13,058책<br>• 일본본 3,550종 25,656책    |
| 합 계      | 15,255종 77,234책           | • 중국본 1,997종 30,578책<br>• 일본본 13,258종 46,656책 |

표 2는 외국고서목록의 주제별 수록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970년대 작성된 목록집이라 그 이후 수집된 고서와 중복 소장 및 복본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귀중본을 포함하여 수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어 실제 소장하고 있는 책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상으로 외국 고서의 수집 경위와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고서 다음으로 많이 소장되어 있는 일본 고서에 대해 형태와 판본, 주제별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 일본 고서의 특징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일본 고서의 기준을 에도(江戸, 1603-1868) 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메이지(明治, 1868-1896) 시대 및 근대 즉, 우리나라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일부 도서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훨씬 넓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명시된 귀중본은 일본 고서의 경우, 경장(慶長, 1596-1614) 연간 이전의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 고서는 청나라(淸, 1616-1912)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말하며, 특히 명나라(明, 1368-1644) 연간 이전의 고서는 귀중본 지정의 대상이 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본 고서는 약 14,000종 53,000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앞서 소개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고서부분류표’에 의하여 십진분류로 정리해 본 주제별 소장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sup>(5)</sup>

표-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 고서의 주제별 현황

| 고서부분 | 분 류   | 종      | 책      |
|------|-------|--------|--------|
| -    | 귀중본   | 37     | 108    |
| 제1문  | 철학·종교 | 2,684  | 11,996 |
| 제2문  | 교육·사회 | 247    | 478    |
| 제3문  | 법률·정치 | 231    | 684    |
| 제4문  | 경제·통계 | 128    | 274    |
| 제5문  | 어학·문학 | 3,280  | 13,840 |
| 제6문  | 역사·지리 | 2,888  | 10,597 |
| 제7문  | 의학·의학 | 642    | 2,263  |
| 제8문  | 공학·군사 | 316    | 1,151  |
| 제9문  | 산업·예술 | 3,334  | 8,774  |
| 제10문 | 전서·잡찬 | 238    | 2,926  |
|      | 합 계   | 14,025 | 53,091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 고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종별 기준으로 예술류, 일본문학류이다. 예술류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제작한 화보(畫譜), 화집(畫集), 판화집, 화첩, 전람회 도록 및 사진집, 유묵, 도감 등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일본문학류에서는 가집(歌集), 시문집 이외에도 일본 고유의 문학작품인 모노가타리(物語), 가락에 맞추어 이야기를 낭송하는 조루리(浄瑠璃)와 요미혼(讀本), 곳케이본(滑稽本), 샤레본(洒落本), 닌조본(人情本) 등의 산문문학을 포함하여,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장르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중국 고서의 경우, 종수 기준으로 보면 일본 고서의 약 1/7에 불과하지만 책수는 상당하다. 전체 책수의 1/3 이상인 13,000여 책이 제10문의 전서류(全書類)에 속하는데 이는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 중국 연화자본 1,628책, 『사고전서진본초집(四庫全書珍本初集)』의 영

(5) 안혜경, 『韓國國立中央圖書館所藏의日本關係資料』, 『日韓의書誌學と古典籍』, 勉誠出版, 2015, 112p.

인본 1,960책, 『사부총간서록(四部叢刊書錄)』 석판본 2,780책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작한 거질의 총서들이 다량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고서의 특징으로는 우선 제일 먼저 다양한 문자표기를 들 수 있다. 한문, 히라가나(ひらがな), 가타카나(カタカナ)를 혼용하여 다양한 문체를 만들고, 한문에는 훈점을 찍고 있다. 또한 히라가나의 행서, 초서에는 글자를 끊지 않고 이어 쓰는 연면체(連綿體)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일본 고서의 판본으로는 사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목판본이다. 일정 시기에 활자본을 간행하기는 하였으나 히라가나 2-3자를 이은 연면체를 활자로 제작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장정법을 들 수 있다. 중국과 한국 고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장정을 주로 문학류에 사용하여 고서의 형태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문학작품의 경우 삽화를 넣거나 주로 그림으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책이 눈에 띈다. 그림 표현 방식 중 일본 건물의 지붕이나 천장을 제거하고 비스듬하게 내려 보는 관점에서 그린 후 키누키야타이(吹抜屋台) 방식은 중국과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이다. (그림 2)



그림 2. 지붕과 천장을 빼고 그린 삽화 기법

## 2.1. 일본 고서의 형태와 구성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 고서, 즉 조선시대까지 간행 또는 필사된 고서와 일본 및 중국 고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책의 제본 방식인 장정(裝訂)과 책의 모양과 크기, 종이 및 표지 등을 들 수 있다. 책의 내용과 제본의 목적, 종이의 성질, 당대의 문화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

한 장정이 이루어진다.

실을 사용하여 장정하는 경우, 한국 고서의 경우 다섯 개의 구멍을 내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 고서는 대부분 네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묶는 제본 방식인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침안이라고도 일본은 4개의 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반면, 중국책은 가운데 두 구멍이 좁게 몰리는 특징이 있으며, 때로 첫 번째와 네 번째 구멍의 위와 아래를 다시 꿰매 육침안(六針眼)이 되기도 한다. 이는 청나라 강희연간에 유행한 장정으로 사침안정법을 발전시킨 형태이다.

조선시대 관(官)에서 만든 서책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일본, 중국 고서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며, 종이의 질도 튼튼하고 두꺼운 차이가 있다. 또한 표지의 문양, 색깔, 제침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 고서의 경우 장정 및 제책의 방법(표 4)과 책의 크기를 일컫는 서지 용어(표 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 고서의 장정과 제책법

|                   |   |
|-------------------|---|
| 권자본(卷子本, 간스본)     | 두루마리 형태. 단위는 축(軸). 권물(卷物, 마키모노)라고도 함  |
| 절본(折本, 오리흔)       | 두루마리 형태를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 앞뒤에 표지를 붙인 것. 첩장본(帖裝本)이라고도 함   |
| 선풍엽(旋風葉, 선풍요)     | 절본(折本)의 앞뒤 표지를 연결한 장정   |
| 점엽장(粘葉裝, 뒛조소)     | 글자가 안으로 가도록 종이를 반절하고 접힌 부분 바깥쪽에 풀칠하여 책장을 서로 붙인 다음 한 장의 표지로 책을 감싸 풀로 붙여 만든 장정. 우리나라에서는 호접장(蝴蝶裝)이라 함(그림 3)  |
| 열첩장(列帖裝, 레쓰조소)    | 10장 이내의 종이를 겹쳐 반으로 접은 것을 여러 묶음 겹쳐놓고, 접힌 안쪽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로 제본한 후 표지를 덧댄 방식. 일본 독자적인 장정법. 첩엽장(綴葉裝)이라고도 함. 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접힌 부분을 하단에 두고 한번 더 접어 위와 같이 장정할 경우는 절지열첩장(折紙列帖裝) 또는 쌍엽열첩장(雙葉列帖裝)이라 함(그림 4) |
| 대철(袋綴, 후쿠로토지)     | 반으로 접은 종이를 겹친 후 접히지 않은 쪽으로 가제본하고 표지를 대어 실로 제책한 것. 일본 고서의 대표적인 장정법   |
| 사침안정(四つ目綴, 우쓰메토지) | 실을 사용하여 장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책법으로, 무로마치시대(室町, 1336-1573) 이후 주류가 됨. 명조철(明朝綴)이라고도 함  |
| 강희철(康熙綴, 고우키토지)   | 중국 청나라 강희연간에 유행한 장정으로 사침안정법을 발전시킨 형태임. 네 개의 구멍 외에 위아래쪽에 약간 들어서 하나씩 더 뚫은 육침안정법(六針眼訂法)  |
| 조선철(朝鮮綴, 조선토지)    | 조선간본(朝鮮刊本) 등 대형 책에 사용한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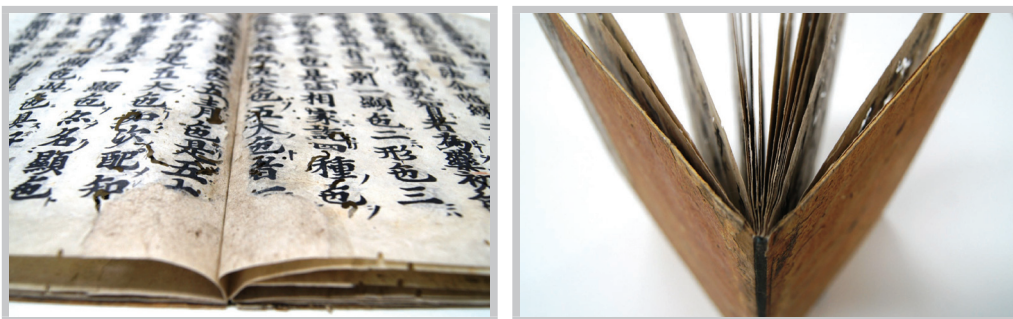


그림 3. 점엽장(粘葉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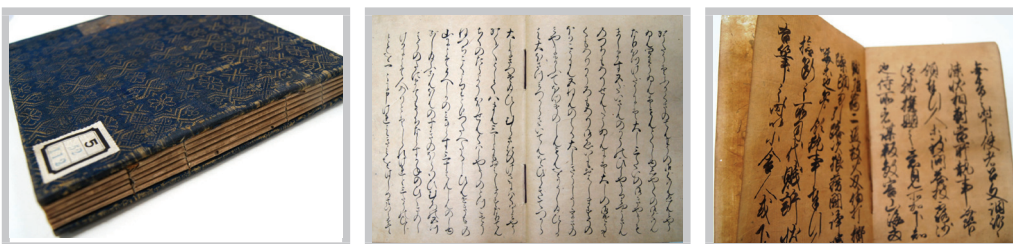


그림 4. 열첩장(列帖裝) 및 절지열첩장(折紙列帖裝)



그림 5. 특소본(特小本), 승형본(枰形本), 중본(中本), 횡중본(橫中本), 반지본(半紙本), 대본(大本) (왼쪽부터)



표-5 일본 고서의 크기

|                 |   |
|-----------------|---|
| 대본(大本, 오오혼)     | 통상 세로 27cm 이상의 크기의 책을 지칭하며, 미농본(美濃本)이라고도 함.<br>(불서, 와카(和歌), 모노가타리 등에서 보임)                                       |
| 중본(中本, 츠혼)      | 大本의 절반 크기의 책. 세로 18cm 크기의 책. (쿠사조시(草双紙)나 후기 골계본, 실용서). 중본(中本)과 같은 크기로 가로가 긴 경우는 횡중본(横中本)이라 함 (지리안내서, 인명록 등 실용서) |
| 반지본(半紙本, 한시본)   | 세로 23cm 전후의 책. 일본 고서 중 가장 많은 장르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의 형태임(요미혼, 하이카이(俳諧), 에혼(絵本))   |
| 소본(小本, 고훈)      | 반지본(半紙本)의 절반 크기의 책. 세로 16cm 크기의 책(골계본, 사례본). 소본과 같은 크기로 가로가 긴 경우는 횡소본(横小本)이라 함                                  |
| 승형본(桁形本, 마스가타본) | 정방형의 책. (열첩장의 가집(歌集), 모노가타리에 많이 나타남)  |
| 기타              | 가로폭이 짧은 종장본(縦張本), 대본보다 더 큰 특대본, 소본보다 더 작은 특소본(豆本, 袖珍本) 등이 있음  |

책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일컫는 용어를 살펴보면 한중일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각 나라별 독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책의 내외부 구성에 대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서지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일본 고서의 각 부분

|               |   |
|---------------|---|
| 표지(表紙, 호오시)   | 비단, 자수, 견 등 천으로 만든 키레보오시(裂表紙), 종이로 만든 가미보오시(紙表紙)가 있음. 책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장식적인 의미도 지님. 표지 안쪽면을 미카에시(見返し)라고 하며 사본의 경우 금박가루를 뿌리는 등 장식을 하기도 함. 에도후기에는 풍속화를 인쇄한 표지도 나옴 |
| 외제(外題, 가이다이)  | 책의 표지에 적혀있는 서명. 표지에 직접 적거나 제첩을 붙인 후 적음  |
| 내제(内題, 나이다이)  | 책의 내부에 적혀있는 서명. 표지 이면에 기재하는 미카에시다이(見返題), 제일 첫 페이지에 기재하는 토비라다이(扉題), 본문의 모두에 기재하는 권수제(巻首題, 간슈다이), 판심에 기재하는 판심제(株題, 하시라다이), 권말에 기재하는 비다이(尾題) 등이 있음               |
| 오서(奥書, 오후가키)  | 본문의 말미에 적는 문장. 서사자 등이 서사, 교정, 전래 등에 대해 적은 것(그림 6)   |
| 간기(刊記, 칸키)    | 판본에 간행 연월, 간행자명, 간행지 등을 적은 것으로 통상 권말에 인쇄함   |
| 장서인(藏書印, 조소인) | 소장을 표시하기 위해 날인한 도장. 책의 전래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움이 됨   |
| 주서(朱書, 슈쇼)    | 훈점, 출전, 주석, 교정 등을 위해 빨간 색으로 적은 것  |
| 서대(書袋, 쇼타이)   | 책을 넣는 종이 봉투. 책을 진열하여 판매하기 위해 사용. 향보(享保, 1716~1736) 연간부터 시작되어 에도 후기에는 사례본(洒洛本), 기보오시(黄表紙) 등에서 사용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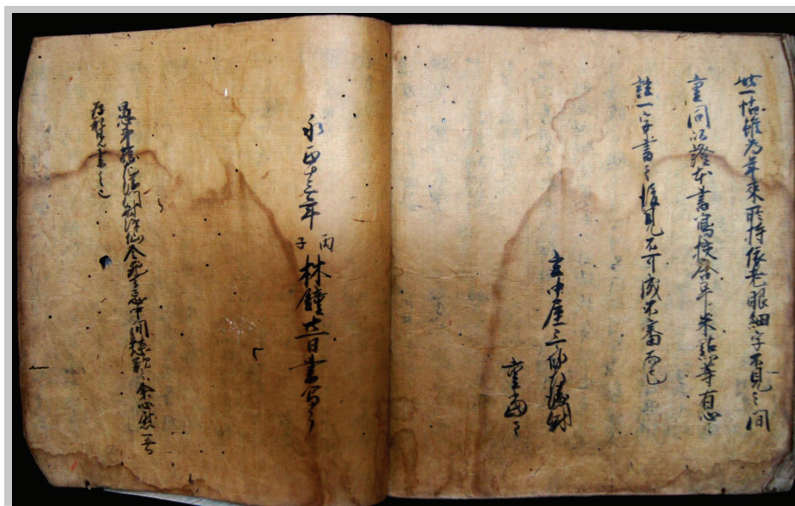


그림 6. 서사의 전래 기록을 적은 오서(奥書, 오쿠가키)

## 2.2. 일본 고서의 판본

고서는 손으로 쓴 사본과 인쇄한 판본 또는 간본(刊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고서의 판본은 판에 새긴 목판(정판(整版)이라고도 함)과 활자를 사용한 활자판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금속활자, 목활자를 사용하여 많은 활자본을 간행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일정 시기에 활자본 간행이 유행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목판본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 ◆ 사본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사본은 성덕태자(聖德太子, 573-621)의 자필로 알려진 『법화의소(法華義疏)』이며, 성립연대가 명확한 것으로는 686년 서사의 『금강장다라니경(金剛場陀羅尼經)』이다. 나라(奈良, 710-794) 시대에는 중국의 당나라나 신라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寫經) 사업이 활발하였고, 이후에도 불경의 서사와 더불어 승려의 저작, 귀족들의 한문일기, 한시문, 가집(歌集)의 제작 등 일본인 저작도 다양해지고, 한문과 일본 특유의 가나(仮名)가 섞인 다양한 문체로 발달하게 된다. 에도시대 초기(1603-1643)까지 만들어진 이러한 사본은 특히 고사본(古寫本)으로 일컫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3세기 필사한 사본 및 사경이 소장되어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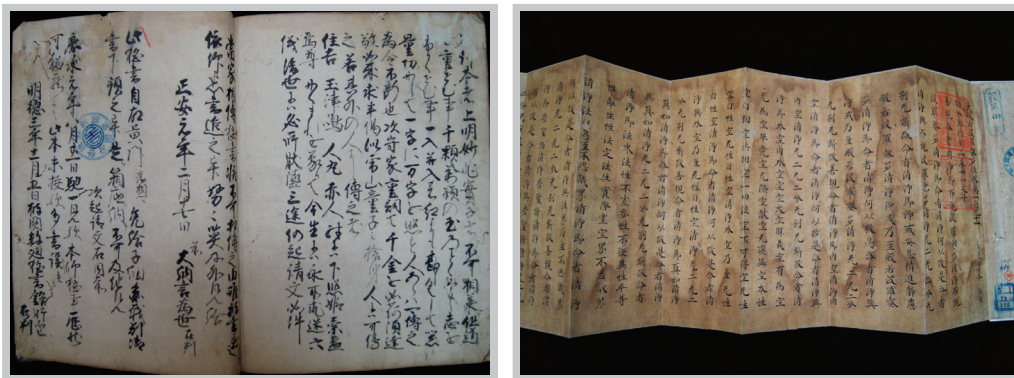


그림 7. 13세기 고사본(古5-51-9, 古1-77-122)

### ◆ 고판본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인쇄물로는 나라(奈良, 710-794) 시대 770년 완성한 『백만탑다라니(百万塔陀羅尼)』이다.

헤이안(平安) 중기(986-1085)부터 무로마치(室町) 말기(1574-1595)까지 사찰, 사원을 중심으로 불서, 한적(漢籍) 등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에도 초기 이후 유행한 판본과 구별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고판본(古版本)이라 부른다.

고판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춘일판(春日版, 카스가), 고야판(高野版)이 있다. 춘일판(春日板)은 나라(奈良)의 흥덕사(興福寺)에서 찍은 춘일(春日) 신사에 봉납한 것으로 『성유식론(成唯識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법화경보문품(法華經普門品)』 등이 전해진다. 고야판(高野版)은 고야산(高野山)의 금강봉사(金剛峯寺)에서 찍은 것으로 밀교 및 중국 관련 많은 책을 간행하였다. 또한, 교토(京都)와 가마쿠라(鎌倉)의 오산(五山)을 중심으로 선종 사원에서 찍은 오산판(五山版)은 불서 이외의 한적까지 간행하여 근세 출판문화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그 밖에 고야판의 영향을 받아 기주(紀州) 나하(那賀)의 네고로산(根來山)에서 각판한 네고로판(根來版) 및 동대사판(東大寺版), 법릉사판(法隆寺版), 정토교판(浄土教版) 등의 고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 8. 고야판(高野版, 古1-77-89, 古1-75-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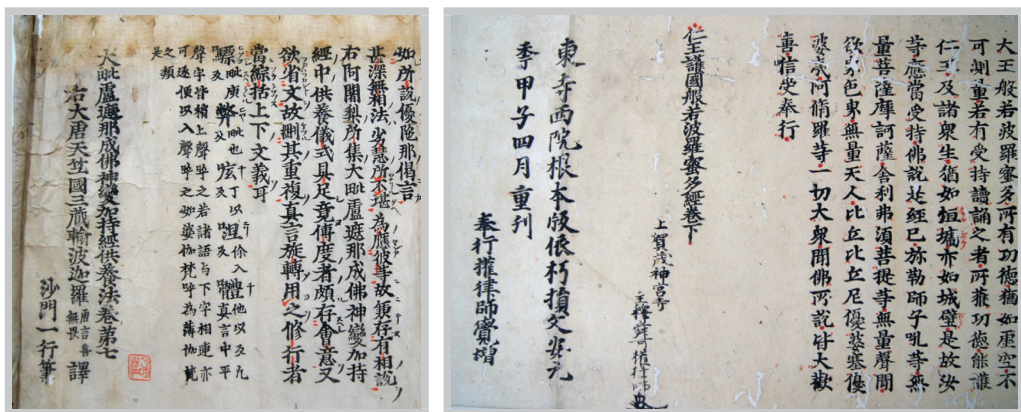


그림 9. 네고로판(根來版, 古1-77-125, 古1-77-170)

### ◆ 활자본

근세 초기(1596-1643) 약 50년간의 극히 짧은 기간 동안 활자 인쇄가 발달하였다. 조선의 활자 인쇄술을 활용하여 만든 동활자, 목활자본과 초기 카톨릭 전래와 함께 도입, 서양의 활자인쇄술을 활용한 크리스천판이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고활자본(古活字本)이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금속활자보다는 주로 목활자로 인쇄하였다. 이 시기에 사본으로만 유포되었던 일본인 저작, 특히 한문·가나가 섞인 문체의 저작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근세의 출판문화로 이어지게 된다. 제작 주체 및 지역명을 붙인 칙판(勅版), 후시미판(伏見版), 스르가판(駿河版), 사가판(嵯峨版) 등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에도시대 후기(1764-1829)에 목활자로 간행한 인쇄본은 근세목활자본이라 칭하며, 특정 가문이나 개인이 적은 부수의 출판을 위해 찍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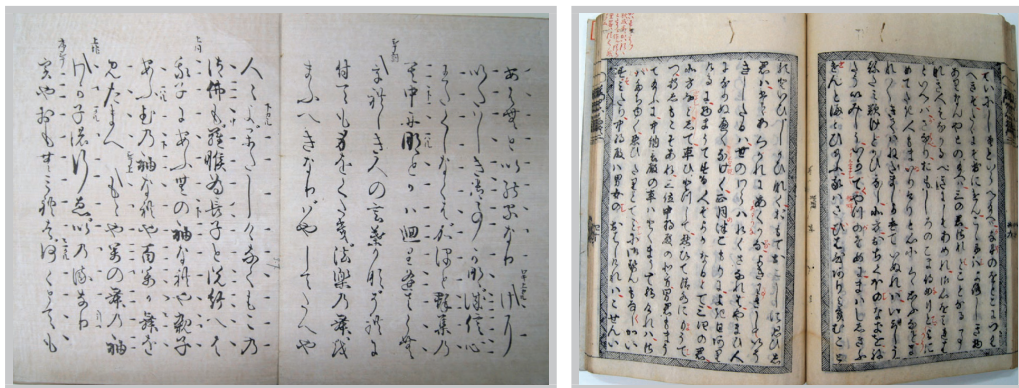


그림 10. 목활자본(古5-56-26, 古5-37-75)

#### ◆ 목판본

에도시대 초기인 관영(寬永, 1624-44) 연간 이후 고활자본에서 다시 목판 제작이 성행하여 에도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었고, 삼화가 들어간 목판 제작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교토에 인쇄출판의 전문업자가 출현하여 기존의 서책 외에도 가나조시(仮名草子), 하이카이(俳諧), 유학 및 한시문 등 동시대 저작의 출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막부에 의해 출판이 제한된 내용의 소설 등은 책대여점을 통해 사본으로 유포되었다.<sup>(6)</sup> 에도 후기에는 판본의 삼화나 에혼(絵本), 에마키(絵巻)에 여러 색을 겹쳐서 찍어내는 기술이 시행된다.

메이지(1868-1896)시대 이후는 서양식 활판인쇄의 보급으로 이전까지의 판본은 더 이상 제작되지 않으며 해서(楷書)에 의한 문자표기의 통일 등으로 다양한 사본의 세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 3. 주제별 일본 고서 소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본 고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제는 종별 기준으로 예술류, 일본문학류이며, 책수 기준으로는 일본문학류, 철학·종교류, 역사·지리류이다.

(6) 호리카와 다카시(堀川貴司), 「日本古典籍の特徴と日本書誌学」, 『제2회 한일고문헌연구교류회 자료집』, 2011

여기서는 귀중본, 별치자료로 지정된 일본 고서를 중심으로 주제별 대표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학류의 경우는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간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에서 발표하였던 선본(善本)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sup>(7)</sup>

### 3.1. 철학 · 종교류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주석한 것을 임진왜란 직후인 경장(慶長, 1596-1611) 연간에 목활자로 찍은 『예기(禮記)』이다. 일어 현토(懸吐)와 주묵(朱墨) 방점(傍點), 난외(欄外) 가주(加註) 등이 붓으로 정결하게 적혀있는 희귀한 활자본으로 일본본으로는 드물게 오침안정법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림 11. 목활자본 예기(禮記, 古1-25-4)

또한 불경 관련으로 대승경전을 집대성한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이 13세기 고사본(古1-77-17, 古1-77-122)과 고판본(古1-77-47, 古1-77-137)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모두 귀중본이다.

(7) 연구교류회의 결과는 자료집 외에 단행본 『日韓の書誌學と古典籍』(勉誠出版, 2015)으로도 간행됨

### 3.2. 역사 · 지리류

인조 2년(1624)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사절단을 일본인 화가가 그린 행렬도인 『관영조선인 내조권(寬永朝鮮人來朝卷)』은 현존하는 조선통신사 행렬도(行列圖) 가운데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권자본(卷子本) 형식으로 장황(粧潢)되어 있다.



그림 12. 조선통신사 행렬도(古朝51-나107)의 일부

또한 일본 나라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최고(最古)의 관찬 정사(正史)인 『일본서기(日本書紀)』는 신대(神代)로부터 지통(持統) 천황 11년(697)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30권 15책의 역사서로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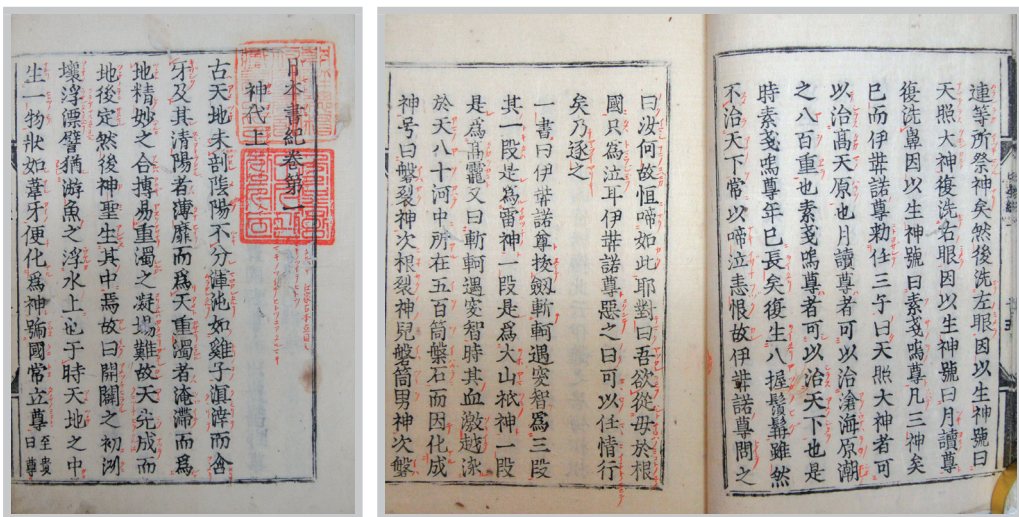


그림 13. 목활자본 일본서기(古6-11-23)



### 3.3. 산업 · 예술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종별 기준으로는 산업 · 예술류가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은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제작한 화집(畵集), 판화집, 도록 및 사진집 등이다. 에도시대 성립한 미술장르로 우키요에(浮世繪)는 목판에 채색인쇄한 판화로 초기에는 육필화와 단색인쇄가 주류였다가 점차 다채로운 색으로 발전해나갔다. 미인화, 배우 · 무사를 그린 배우화, 풍경화 등 다양하며 대표적인 화가 기쿠가와 히데야마(菊川英山),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 등이 그린 우키요에를 확인할 수 있는 『에도 우키요에 판화(江戸浮世繪本版畵)』가 소장되어 있다.



그림 14. 에도 우키요에 판화(古9-62-가76)

### 3.4. 이학 · 의학류

현재 오키나와(沖縄)인 류큐(琉球)국에서 제작한 『유구력(琉球曆)』은 총 8책으로 목판본 1책과 필사본 7책으로 구성된 관찬 달력이다. 청나라 시헌서(時憲書)를 기반으로 류큐의 독자적인 풍습, 민속을 도입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서(曆書)로 ‘선일통서(選日通書)’라는 권수제를 붙였으나 형식과 내용이 시헌서와 동일하여 도서관 고서목록에는 중국본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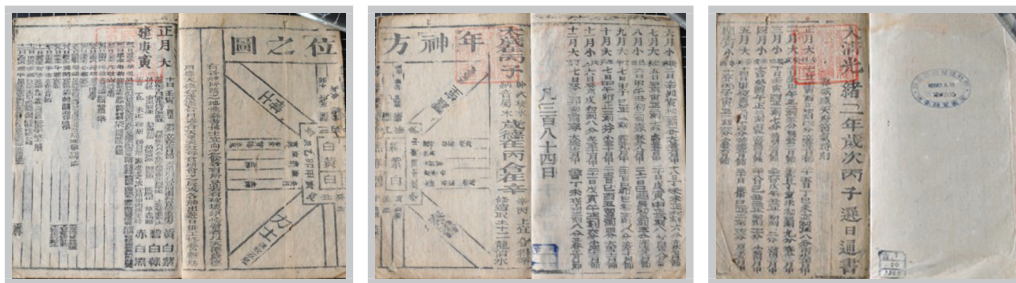


그림 15. 유구력(琉球曆, 古7-20-118)

### 3.5. 어학 · 문학류

#### ◆ 와카(和歌)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본 고유의 정형시인 와카(和歌) 관련 고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에도시대 이전의 것이 약 230종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판본으로 사본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고사본이나 고활자본 등의 희귀서보다 일 반적인 판본을 폭넓게 수집하려고 하였고, 가장 오래 된 시가집인 『만엽집(萬葉集)』과 100명의 가인(歌人)의 노래를 모은 『백인일수(百人一首)』는 많은 판본과 함께 관련 서적도 소장하고 있어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의식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905년부터 1205년까지 천황의 명으로 편찬된 8개의 칙찬화가집(勅撰和歌集)에 속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3종이 있다.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 古5-52-192)』과 『습유화가집(拾遺和歌集, 古5-52-217)』은 16세기 동일 필사자에 의해 필사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천재화가집(千載和歌集)』은 에도시대 초기 사본으로 일본 전통 장식지에 잘게 자른 금은박과 가루들로 호화롭게 장황한 것이 특징인 귀중자료이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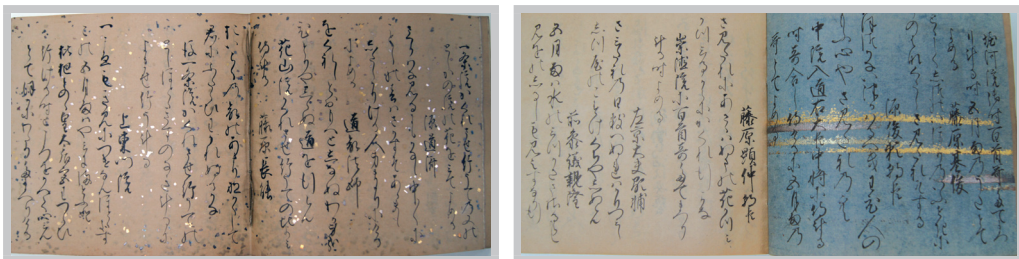


그림 16. 천재화가집(千載和歌集, 古5-52-112)

또한, 『히노스케키 향가고(日野資枝郷歌稿, 古5-52-149)』는 에도 중기 귀족인 히노 스케키(日野資枝, 1737-1801) 가문에서 대대로 작성한 560점의 와카 회지(懷紙, 접어서 품속에 넣는 종이) 다발을 합철한 것으로 한 집안에서 필사한 다량의 와카가 수집된 사례로 꼽힌다.

1703년 간행된 목판본 『무가백인일수(武家百人一首, 古5-52-267)』는 후대에 만들어진 『백인일수(百人一首)』 중 하나로 10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100명의 무인들의 노래를 선정하여 집성한 것이다. 사본으로 많이 전래되었으나 삽화와 함께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판본으로도 간행된 인기가 많은 자료이다.

### ◆ 하이카이(俳諧)

하이카이(俳諧)는 에도시대 유행한 시가 형식으로 3행 5·7·5의 17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하이카이(俳諧) 서적 및 관련서가 70여종 있으며 그 중에는 다치바 후카쿠(立羽不角)가 편찬한 『히요쿠집(ひよく集, 古5-54-69)』, 고하쿠엔 조스이(五柏園丈水, 1718-1808)의 『하이카이 미수집(俳諧米寿集, 古5-54-106)』, 마스다 가코(増田可交)의 추모집 『쓰유소시(徒遊そうし, 古5-50-2)』 등 일본에는 없는 유일본들도 소장되어 있다.

다케베 아야타리(建部綾足)가 하이카이를 비판한 논서 『토와시구사(とはしくさ, 古5-54-80)』의 본문 상단에는 막부말기 교토의 하이카이시(俳諧師)인 이토 세지(伊東成祇)가 저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의 친필 글씨가 적혀있다.

유희적이고 해학적인 하이카이를 자연주의적이고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가 지은 『오쿠노호소미치(おくのほそ道, 古5-39-31)』는 기행문으로 그 주석서인 『오쿠노호소미치 스가고모쇼(奥細道菅菰抄, 古5-39-25)』, 『고토 오쿠노호소미치(龍頭奥の細道, 古5-39-52)』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 모노가타리(物語)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仮名)가 만들어지고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와카와 같은 운문문학 외에도 일본어 산문체로 된 산문문학이 발달하게 된다. 모노가타리(物語)는 일본 고유의 산문문학의 한 형태로 인물,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장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본 고전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뽑히는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비롯하여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아마토 모노가타리(大和物語)』, 『에이가 모노가타리(榮花物語)』, 『우지슈이 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등의 많은 자료와 관련 주석서가 판본을 중심으로 소장되어 있다.

헤이안 시대 산문작품으로 16세기 필사한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는 125개의 연애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야기마다 도중에 와카를 읊고 있어 와카를 배우기 위한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방형으로 된 승형본(形本)으로 종이는 불교경문의 뒷장을 활용하여 서사하였으며, 권말에 문자와 도상을 새긴 부적이 붙여져 있는 것이 특징인 귀중자료이다.(그림 17)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의 주석서로 호소카와 유사이(細川幽齋)가 편찬한 『이세 모노가타리 권의초(伊勢物語闕疑抄, 古5-37-46)』도 1642년 간행한 판본으로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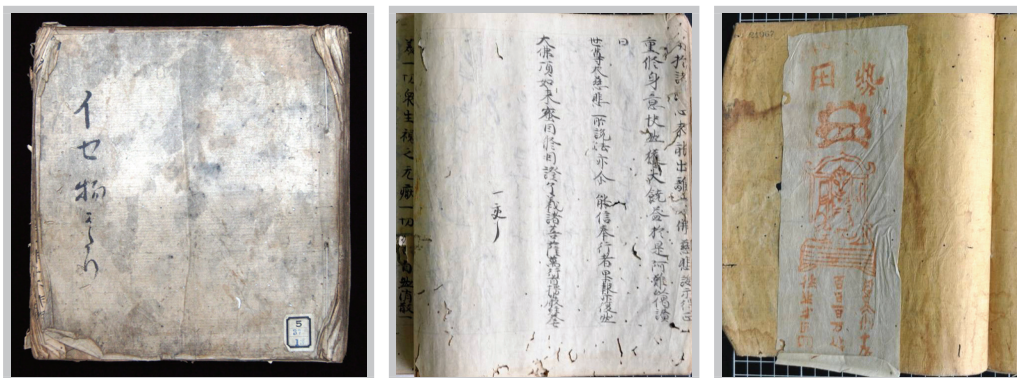


그림 17. 이세모노가타리(古5-37-13)의 표지, 뒷면의 경문, 부적

또한, 앞서 그림 10의 목활자본 사진에서 본 『오치쿠보 모노가타리(落具本物語, 古5-37-75)』는 1794년 목활자로 찍어낸 모노가타리로 0.5cm 폭의 장식적인 광곽(匡郭)과 단활자 및 연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 특징이다. 먹의 농담(濃淡)과 번짐이 두드러진 부분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간행 당시 인쇄한 제침이 남아 있다.

#### ◆ 군기 모노가타리(軍記物語)

모노가타리의 다른 한 종류로 전쟁담이 중심 내용을 이루는 군기 모노가타리(軍記物語)는 중세의 산문문학이다. 전쟁을 중심으로 어느 한 시대의 역사를 그린 것으로 1156년에 일어난 호겐(保元)의 난을 소재로 한 『호겐 모노가타리(保元物語)』가 최초의 작품이다. 표지 등의 호화로운 장정과 더불어 달필의 히라가나로 정성스럽게 서사되어 있고, 필사자를 감정한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고, 감정결과를 증명한 극찰(極札)이 붙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8)



그림 18. 호겐모노가타리(古5-37-71)

그 밖에 호겐(保元)의 난에 뒤이어 일어난 헤이지(平治)의 난을 그린 『헤이지 모노가타리(平治物



語, 古5-37-72)』도 같은 체제 및 필체로 작성되었으며, 에도 초기에 간행한 승구기(承久記: 명덕기(明德記), 응인기(応仁記)의 합질, 古5-37-54)도 군기 모노가타리(軍記物語)류의 선본으로 꼽히고 있다.

### ◆ 가나조시(仮名草子)

중세 산문형식 중 읽기 쉬운 단편으로 모노가타리 소시(物語草子)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림이 들어간 대표적인 판본으로 『샤카노혼지(釈迦の本地, 古5-43-17)』, 『분쇼노소시(ぶんしやうのさうし, 古5-41-2)』, 『하치카즈키(はちかづき, 古5-43-29)』, 『사루겐지(さるげんじ, 古5-41-3)』 등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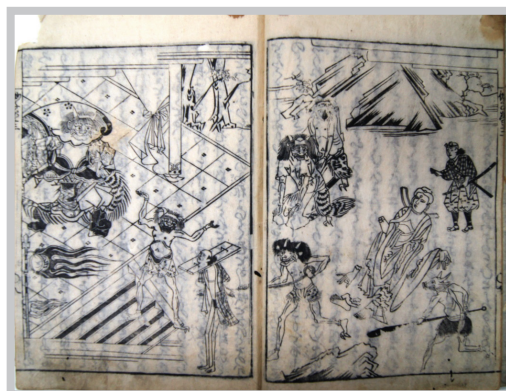


그림 19. 오토기보코(伽婢子, 古5-43-11)

이어 에도시대 전기, 17세기에는 상업출판이 시작되면서 히라가나로 쓰인 문학 장르인 가나조시(仮名草子)가 대두되어 다량 출판된다. 주제는 모노가타리, 교훈적인 내용, 지지(地誌), 역사나 설화 등 다양하며 대부분 삽화가 들어가 있다. 이는 이후 향락적인 대중 문예인 우키요조시(浮世草子)와 요미혼(讀本)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게 된다.

아사이 료이(淺井了意)가 지은 『오토기보코(伽婢子)』는 전등신화, 금호신화 등 한문소설류를 변안한 것으로 68개의 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그림 19) 같은 저자의 『본조여감(本朝女鑑, 古5-43-13)』은 중국의 열녀전을 모방하여 일본 여성의 이야기를 모은 여훈서이다. 『샤카하소 모노가타리(釋迦八相物語, 古5-43-15)』는 석가의 일생을 알기 쉽게 통속화하여 삽화와 히라가나로 표현했으며 그 외의 가나조시로 『잇큐쇼코쿠 모노가타리(一休諸國物語, 古5-43-6)』, 『소로리 쿄카바나시(曾呂里狂歌咄, 古5-45-11)』 등이 있다.

### ◆ 쿠사조시(草双紙)

에도시대에는 아가혼(赤本), 구로혼(黒本), 아오혼(青本) 등 표지 색으로 구분하여 부른 그림책이 유행하였는데 이후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 이야기책인 기보시(黄表紙) 및 여러 권이 합본된 고칸(合巻)으로 발전하게 된다. 17세기 중반 이후 대중성이 강한 목판화 그림을 중심으로 그림 사이에 문장을 배치한 통속 소설이 대두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쿠사조시(草双紙)라고 부르며, 도서관에는 약 60종 소장되어 있다.



그림 20. 아카혼(赤本), 구로혼(黒本), 기보오시(黄表紙)

특히, 18세기 중반부터 제작된 검은 색 표지의 구로혼(黒本) 중 『긴피라 와니(金平鰐)』, 『에지마한가구(江島はんがぐ)』, 『니와노 마쓰(にほのまつ, 古5-47-9)』 3종은 일본에는 없는 가치가 높은 희귀본이다.(그림 21)



그림 21. 긴피라와니(金平鰐, 古5-47-7), 에지마한가구(江島はんがぐ, 古5-47-8)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산토 교덴(山東京伝)이 지어 1785년에 출판한 소설인 『에도우마레우와키카바야키(江戸生浮気蒲, 古5-47-48)』는 카사노바처럼 되고 싶어 하는 주인공 엔지로(艶二郎)의 실패담을 담고 있다.

에도시대 우키요에(浮世絵)의 창시자로 알려진 히시카와 모로노부(菱川師宣, 1618-1694)가 그림을 주로 하여 그린 에혼(絵本)이 소장되어 있다. 『무샤 사쿠라(武者さくら)』로 무사와 주변 여성의 일화를 전면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화면 상단에 문장으로 실었다.(그림 22)



그림 22. 무사사쿠라(武者さくら, 古5-43-26)

#### ◆ 샤레본(酒洛本), 곳케이본(滑稽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근세기에 제작, 간행된 풍속문학, 속요류(俗謠類) 등도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유곽을 배경으로 남녀간의 대화를 주요 소재로 한 샤레본(酒洛本) 『게이샤 토라노마키(妓者虎の巻, 古5-45-22)』 등 19종 있다. 일본 미소장본인 『게이세이카이 고고로에(契情買心得, 古5-45-21)』와 『다이토 게이고(大通契語, 古5-45-29)』 등 6종의 초판본을 보유하고 있다.

곳케이본(滑稽本)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재료로 하여 시정의 풍속, 언어, 인정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기 곳케이본(滑稽本)으로는 『네나시구사(根南志具佐, 古5-45-33)』, 『호히론(放庇論, 古5-45-23)』, 후기작품으로 유일본인 『곳케도추 미야지마미야게(滑稽道中宮島土産, 5-45-38)』, 16책 전질을 갖추고 있는 희귀본 『하나고요미 핫쇼진(花暦八笑人, 5-45-15)』 등이 있다.

#### ◆ 요미혼(讀本)

근세소설 중 18세기중반부터 막부말기에 걸쳐 출판된 통속소설인 요미혼(讀本)은 90종 이상 소장하고 있다. 초기 요미혼으로는 『본조수호전(本朝水滸傳, 古5-44-68)』, 『괴담변망록(怪談辯妄錄, 古5-44-76)』이, 후기 요미혼으로는 책대여점의 장서인이 있는 『춘설궁장월(椿説弓張月, 古5-44-21)』, 『조이순도기전전(朝夷巡嶋記全傳, 古5-44-45)』,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이 1814년부터 1842년까지 28년간 연재한, 근대 이전 일본 최대의 장편 역사소설인 『남총이견팔견전(南總異見八犬傳)』(그림 23)과 『몽상병위호접물어(夢想兵衛胡蝶物語, 무소묘에고초 모노가타리)』(그림 24) 등이 있다.





그림 23. 남총이견팔견전(南總異見八大傳, 古5-44-37)

『본조수호전(本朝水滸傳)』은 중국의 수호전을 일본어로 번안한 장편 요미혼으로, 후대에 제목을 바꿔 『요시노모노가타리(芳野ものがたり)』로 다시 찍어낸 개수본(改修本)이다.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의 『몽상병위호접물어(夢想兵衛胡蝶物語)』는 중편 요미혼으로 도서관에 3종의 다른 판본이 있다. 저자인 바킨이 친필로 57군데의 교정을 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저자의 원래 성인 타키자와(瀧澤)를 알 수 있는 장서인 ‘타키자와문고(瀧澤文庫)’가 날인되어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고서적상이자 감정가인 소리마치 시게오(反町茂雄)가 귀중한 도서에 날인하였던 장서인 ‘월명장(月明莊)’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몽상병위호접물어(夢想兵衛胡蝶物語, 古5-44-103)

참고로 ‘월명장(月明莊)’ 장서인은 앞서 설명한 고판본 중 고야판(高野版)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성자실상의(聲字實相義)』 및 네고로판(根來版) 『진언삼부비경(眞言三部秘經)』에도 날 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 일기

막부말 메이지(明治) 시대 한학자이자 극작가였던 요다 각카이(依田学海, 1833-1909)가 1883년부터 1899년까지 한문으로 작성한 일기인 『요다각카이초고(依田學海草稿)』 서명으로 소장되어 있다. 실제 저자가 일기에 붙인 제목은 ‘묵수별서잡록(墨水別墅雜錄)’이며, 일기가 아닌 시문집 등 2책도 포함되어 있다. 메이지의 문단의 동향을 알 수 있으며 그 당시의 저명 문인, 정치가 작가와 관련된 비화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일본에서 탈초, 번역하여 출간된 바 있다.<sup>(8)</sup>



그림 25. 요다각카이초고(依田學海草稿, 古5-31-8)

### ◆ 오라이모노(往來物)

오라이모노(往來物)는 다방면의 주제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술된 문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 사회의 역사, 풍습, 제도 등 기초상식을 연중행사 소개 형식으로 폭넓게 다룬 『정훈왕래(庭訓往來)』는 15세기 사본을 비롯하여 17세기초 간본 등 전래본이 많다.

앞서 열첩장(列帖裝)의 사진에서 본 『정훈왕래(庭訓往來, 古5-35-240)』는 1598년의 필사본으로 ‘절지열첩장(折紙列帖裝)’의 특이한 장정으로 되어 있다. 통상의 열첩장 보다 두 배의 종이

(8) 今井源衛, 『墨水別墅雜錄』, 吉川弘文館, 1987

분량이 필요한 장정이며 두껍고 좋은 종으로 필사되어 있다. 서사자는 동대사(東大寺)의 승려로 달필로 작성되었다.

#### ◆ 운서(韻書)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운서(韻書)인 『취분운략(聚分韻略, 古5-15-56)』은 14세기 선종 승려인 고칸 시렌(虎関師鍊)이 저술한 이래 다양하게 수정 및 증보되어 유포되어 왔다. 「평·상·거(平上去)」와 같이 3단으로 나뉘 정리한 삼중운(三重韻) 형식에 음훈[附訓] 및 주기를 기입한 전승본 중 간기(刊記)가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경장 17년(1612) 간행본이다. 간기는 없지만 이보다 더 빠른 16세기말에 간행된 것으로는 일본인 개인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이 유일하다.

## 맺으며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고서에 대해 입수 경위와 서지학적 특징, 판본 및 주제별 선본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대한 수량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정된 지면에 포괄하여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옛 책인 일본 고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외국 고서 중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고서 약 2천여 종 3만 5천 책은 판본 조사 및 주제별 분석과 자료적 특징 등에 대해 차후 더 면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명권 내 한국, 일본, 중국의 고서에 대해 그 차이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고, 국내 최대 고문헌 보유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형성과 그 특징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고문서로 본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

### 04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국가든 개인이든 수많은 문서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옛 사람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사망 후에도 문서는 떼레야 떼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문서를 통해서 그 시대, 지방, 가문을 인식하기도 하고, 또 그 문서를 통해서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행동양식, 생활가치관, 나아가 사회적·문화적 특징을 파악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문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작성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목적이란 전통시대의 경우,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다던가 임명장을 주는 경우, 억울한 백성이 관청에 하소연한다거나 개개인이 땅이나 산, 집, 노비를 사고파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 다양한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고문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 공식적인 기록에 없는 옛 사람들의 진솔하고 재미있는 일상생활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처럼 고문서가 일상생활의 산물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 분야에서 생활사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다양한 고문서를 통해서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의 한 단면, 즉 옛 사람들의 시시비비(是是非非), 서명(署名, signature) 문화, 편지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옛 사람들의 시시비비(是是非非)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일이 생긴다. 오늘날에도 소송 절차나 방법, 그리고 소송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옛말에 “송사(訟事)는 패가망신”이라 하여 소송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였다.

조선시대 소송문서에는 소지(所志)<sup>(1)</sup> · 단자(單子)<sup>(2)</sup> · 상서(上書)<sup>(3)</sup> · 발괄(白活)<sup>(4)</sup> · 등장(等狀)<sup>(5)</sup> 등이 있다. 사대부들은 소송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가급적이면 본인이 소유한 노비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지’라고 하는 소송 문서를 관청에 올렸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지금의 법원처럼 판결을 내렸다.

옛날에 특히 많았던 시빗거리는 노비와 토지 소유 문제, 그리고 조상 뒤통자 문제[산송(山訟)]였다. 노비는 일종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소유권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노비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관청을 만들 정도였다. 그리고 뒤통자에 관련한 소송은 풍수 사상의 영향으로 조상 산소를 잘 써서 복을 바라는 마음과 조상을 영원토록 모시려는 유교의 효도 사상, 그리고 뒤통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였던 점 등이 뒤섞여 서로 좋은 뒤통자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으로 하루라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각 가문마다 조상 뒤통자 관련 문서가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어느 한 묘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목축과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물론 이 거리는 피장자(被葬者)의 품계에 따라 달랐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상장(喪葬)〉조에 의하면, 종친(宗親)의 경우 1품은 사방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였으며, 문무 관원은 종친보다 10보씩 감등하도록 하였다. 7품 이하와 생원 · 진사 및 음직(陰職)의 자제는 6품에 준하도록 하였다.<sup>(6)</sup>

(1)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말한다.

(2) 단자는 주로 사대부들이 직접 관에 탄원이나 청원할 때 사용한 문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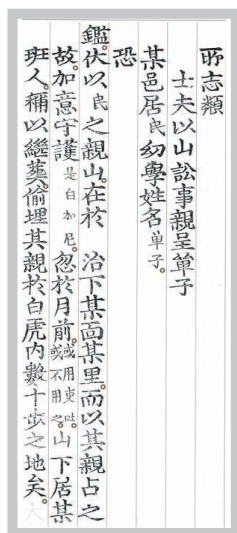
(3) 상서는 백성들이 탄원이나 청원하기 위해 관에 제출한 문서이다.

(4) 발괄이란 원래 구두로 탄원이나 청원하는 것을 가리켰는데 이후에는 글로 된 탄원서나 청원서를 말한다.

(5) 등장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으로 관에 제출하는 탄원서나 청원서를 말한다.

(6) 墳墓定限 禁耕牧(宗親 則一品四面各限一百步 二品九十步 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 五品六十步 六品五十步 文武官 則遞減一十步 七品以下及生員進士有蔭子弟 同六品)(『經國大典』의 「禮典」〈喪葬〉條)

조상 뒷자리 소송은 바로 이 거리 안에 누군가가 묘지를 써서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분쟁을 말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제한 거리 안에 묘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묘를 썼을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났으며 이때의 분쟁을 조선시대에 ‘산송’이라고 하였다.<sup>(7)</sup>



#### 사대부가 산송의 일로 직접 올리는 단자

△△고을에 사는 민 유학 ○○○단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저의 아버이 산소아래 치하의 △△면 △△리에 있는데, 그곳은 아버이가 생전에 직접 잡아놓은 터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유념하여 수호하였는데 갑자기 달포 전에 [이 이후로는 이두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한다] 산 아래에 사는 양반 ××가 계장(繼葬<sup>(8)</sup>)한다고 하면서 그 아버이의 시신을 저의 아버이 산소로부터 수십 보 떨어진 백호(白虎<sup>(9)</sup>) 내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림 1. 유서필지(儒胥必知)<sup>(10)</sup>에 수록된 사대부가 산송의 일로 직접 올리는 단자<sup>(11)</sup>

한편, 조선후기 산지(山地)에 자라는 소나무[松楸]나 땃감[柴草] 등이 점차 경제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분쟁도 역시 산송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조선후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온돌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나무나 땃나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목재와 땃감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나무나 땃나무가 자연히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또 거듭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산지에서 생

(7)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 연구-18·19세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4쪽

(8) 계장은 조상의 묘 바로 아래에 이어서 자손을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9) 백호는 주산에 갈리어 나간 오른쪽 산맥을 말한다.

(10) 『유서필지』는 ‘조선시대 문서 작성의 길라잡이’라고 불리어지는 책으로, 철종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 사족 및 서리,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성해야 할 여러 문서의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11)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171~172쪽

장하는 과일나무, 예를 들면 밤나무·감나무 등을 둘러싼 분쟁도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였다.<sup>(12)</sup> 그리고 조상 뒤편의 경우 어떤 개인 또는 가문에서 해당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몇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 또는 문중이 의도한 대로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국왕에게 상언(上言)<sup>(13)</sup>이나 격쟁(擊錚)<sup>(14)</sup>을 통하여 직접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다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보면 영조의 언급이 과장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묘지를 둘러싼 소송에 있어서 상언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음은 분명하다.

---

“요사이 상언(上言)한 것을 보건대 산송(山訟)이 10의 8, 9나 되었다.”<sup>(15)</sup>

---

한편, 묘지를 둘러싸고 소송문제가 잦아보니 자연스럽게 소송 당사자 간에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였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묘지(墓地)에 관한 송사는 지금 폐속(弊俗)이 되고 말았다. 싸우고 구타하는 살상 사건이 절반이나 여기서 일어나며, 남의 묘를 발굴하여 옮기는 괴변을 스스로 효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사실을 알아 판결함에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sup>(16)</sup>고 말하고 있는 점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심지어 두 집안이 모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웃 사촌’ 간이었다가 묘지 소송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원수 사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sup>(17)</sup>

---

(12) 전경목, 앞의 논문, 15쪽

(13) 상언은 백성이 국왕에게 제출하는 청원서 중의 하나이다.

(14) 격쟁은 왕이 행차할 때 백성이 징이나 팽가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후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면서 올리는 청원서를 말한다.

(15) 近觀上言 以山訟者十之八九(『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3월 20일 기사)

(16) 墓地之訟 今爲弊俗 鬭毆之殺 半由此起 發掘之變 自以爲孝 聽斷不可以不明也(『역주목민심서(譯註牧民心書)』, 『형전(刑典)』, 〈청송하(聽訟下)〉)

(17) 전경목, 앞의 논문, 3쪽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임명장을 비롯해서 매매문서, 과거시험지, 재산상속문서, 편지, 외교문서, 호적 등 2만2천여 점의 다양한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소송문서는 전체의 10%(2천 점)을 차지할 만큼 많은 수량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소송문서 유형 역시 앞에서 언급된 노비와 토지 소유 문제, 그리고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조상 뒤통자리 문제(산송)를 다룬 문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송 문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옛 사람들의 시시비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조상 뒤통자리와 관련된 소송 문서이다.

1804년 3월에 전라도 남원에 사는 화민(化民) 방준덕(房濬惠)이 부친의 산소를 최가(崔哥 즉, 최우(崔隅)를 말함)가 투장(偷葬: 남의 뒤통자리에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하였으므로 잡아들여 처벌하고 도로 묘를 파내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최우를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관청에서는 “남쪽 지방의 투장의 풍습을 개탄하고 아울러 상놈이 아닌 양반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하면서 이장(移葬)하게 하라”는 처결을 내린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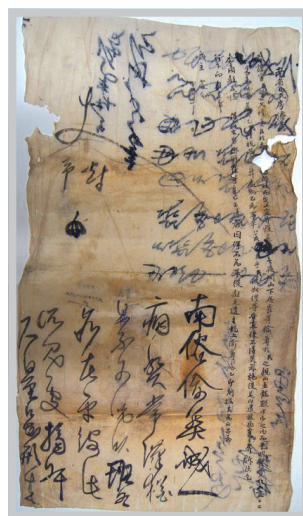


그림 2. 방준덕이 최우를 고소한 문서(소지), 1804

방준덕의 고소에 따라 관청의 판결이 최우에게 불리하게 내려지자, 최우는 방준학을 공격하는 주장을 펴게 된다. 최우가 주장하는 요지는 방준덕의 주장과 달리 방준덕은 관청과 친분이 있어서 의송(議送)하고, 묘를 파가지 않으면 복사(覆莎: 잔디)를 할 수가 없는데 몰래 해버린 죄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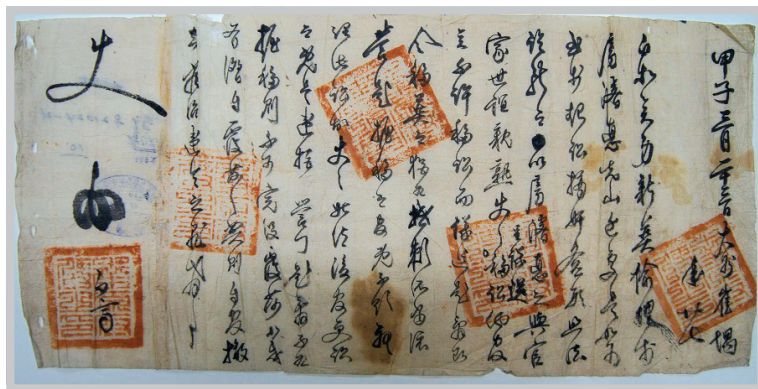


그림 3. 최우가 방준덕을 고소한 문서(소지), 1804

도형(圖形)은 원고와 피고가 관계된 산소 부근의 형세를 그린 그림[山圖]으로, 재판 담당 관원은 도형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판결문은 산소의 형세를 그린 도형의 뒷면에 작성한다.[그림 4]

#### 【판결문】

“원고와 피고를 대변해보니, 방준덕의 금양지(禁養地)를 침범한 죄우에 대하여 감영에 이첩(移牒 : 받은 공문을 다른 곳으로 다시 알림)하라”



그림 4. 도형[산도]의 판결, 1804

### 3. 옛 사람들의 서명 문화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문서상에서 서명(署名, signature)을 하거나 인장을 찍는 것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이나 전통기 시대이나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문서에는 직접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로부터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일흠두다[書字]’ 또는 ‘슈레두다[書押]’라고 하였다. 자(字)나 압(押)은 모두 자기 이름의 글자를 의미하는데, 종이에 이름 글자를 그리는 것이 사인의 본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압(畫押)의 화(畫)는 다른 말로 화(花)라고도 하였는데, 화(花)는 꽃을 뜻하는 것으로 서명의 모양이 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듯하다.

전통시대 서명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착명(着名)이고, 다른 하나는 착압(着押)이다. 인장은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으로 구분된다. 착명은 본인의 이름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서명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서명 방식이며, 착압은 이름 글자 외에 별다른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서명으로 그 쓰임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착압의 경우 대부분 ‘일심(一心)’의 자형을 변형한 사례가 가장 많다. 그것은 계약과 관계가 설정되는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다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서압을 만드는 글자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정(正)·지(志)·의(宜)·종(從)·의(依)·무례(無禮)·진(盡) 등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글자의 내용은 대부분 상대



방에 대한 본인의 다짐을 내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그림 5. 이성계(1335-1408)의 착입<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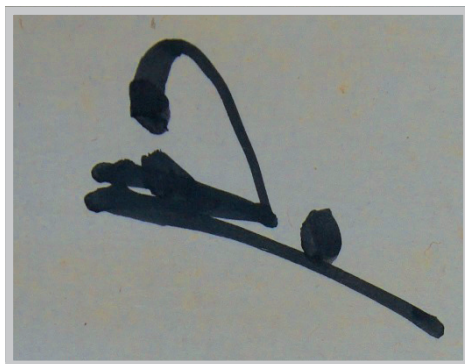


그림 6. 정조(1752~1800)의 착입<sup>(20)</sup>

착명은 여러 문서에서 사용되었지만 옛 편지에서 분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기 시대 편지를 쓸 경우 착명이 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본문과 피봉[皮封, 봉투를 말함] 하단 부분이다. 본문에서의 착명은 주로 17세기까지의 간찰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봉투 하단에 착명을 하는 경우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걸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먼저 편지 본문에 착명을 하는 예부터 들어보도록 하자. 본문에서의 착명은 편지 끝머리에 작성 일자를 쓴 다음에 주로 편지 작성자의 이름과 함께 이루어진다. 편지 본문에서 착명을 하는 경우는 부모가 아들 또는 손자에게, 아들이 부친에게 편지를 쓸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 그림[그림 7]은 이번(李蕃, 1463~1500)이 3월 21일에 부친인 이수회(李壽會, 1431~1518)에게 쓴 편지이다. 이번의 착명은 이름자 ‘번(蕃)’을 변형하였다.

(18) 박준호, 『한국 고문서의 서명 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23쪽

(19) 『분재기』(보물 51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 『御射古風帖』(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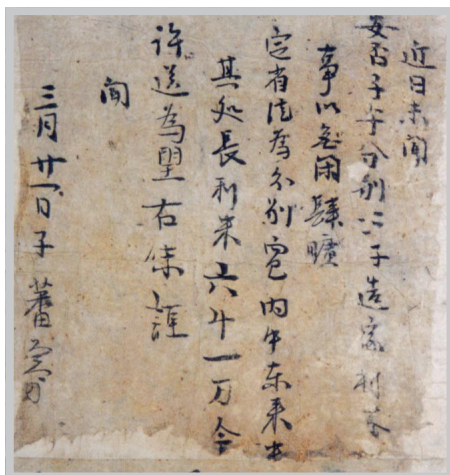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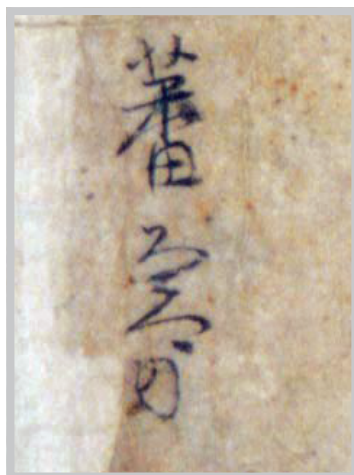
그림 7. 이번이 부친 이수회에게 쓴 간찰<sup>(21)</sup>

그림 8. 이번의 착명

다음 아래의 [그림 9]<sup>(22)</sup>는 김수(金綏, 1491~1555)가 아들 부륜(富倫, 1531~1598)에게, [그림 10]<sup>(23)</sup>은 이황(李滉, 1501~1570)이 아들 준(堧)에게, [그림 11]<sup>(24)</sup>은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아들 집(溍, 1558~1631)에게, [그림 12]<sup>(25)</sup>는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아들 인(裨)과 존(稭)에게, [그림 13]<sup>(26)</sup>은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아들 심(杔)과 학(木/學)에게, [그림 14]<sup>(27)</sup>는 정온(鄭蘊, 1569~1641)이 아들 창시(昌詩, 1590~1650)에게, [그림 15]<sup>(28)</sup>는 윤선거(尹宣舉, 1601~1669)가 아들 증(拯, 1627~1714)에게, [그림 16]<sup>(29)</sup>은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이 9일에 손자 만부(萬敷, 1664~1732)에게, 마지막으로 [그림 17]<sup>(30)</sup>은 안서우(安瑞羽, 1664~1735)가 아들 극(極, 1696~1754)에게 보낸 편지이다.

(21) 현재 慶州 良洞 驪州李氏 無忝堂에 소장되어 있다.

(22) 예술의전당, 『退溪 李滉』, 2001, 281쪽.

(23) 예술의전당, 위의 책, 130쪽.

(24)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六-義城金氏川上各派篇(Ⅱ)-, 1990, 759쪽.

(25)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十六-河回 豊山柳氏篇(Ⅱ)-, 1994, 272쪽.

(26)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簡札資料選集』1-鄭經世편-, 2001, 390쪽.

(27)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二十三-居昌 草溪鄭氏篇-, 1995, 385쪽.

(28)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四-坡平尹氏篇-, 1989, 588쪽.

(29) 한국학중앙연구원, 『尙州延安李氏 息山 李萬敷宗宅篇』I, 2004, 115쪽.

(30)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八-廣州安氏·慶州金氏篇-, 1990, 65쪽.



편지 본문에서의 착명 사례



그림 9. 김수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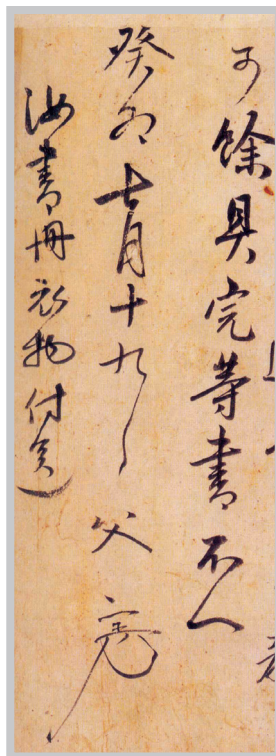


그림 10. 이황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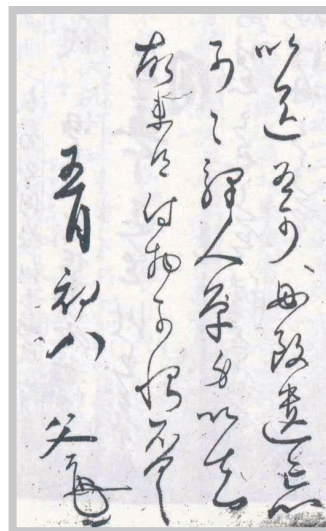


그림 11. 김성일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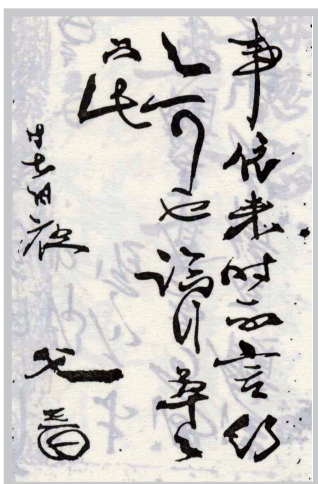


그림 12. 유성룡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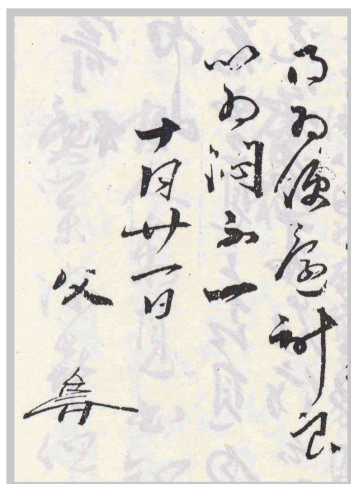


그림 13. 정경세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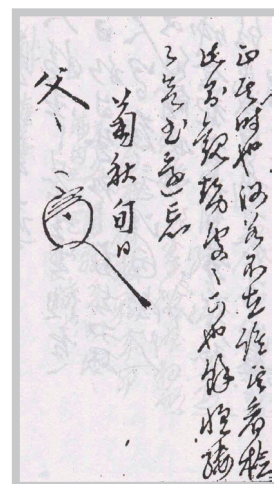


그림 14. 정운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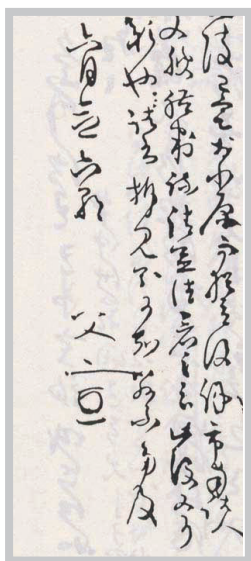


그림 15. 윤선거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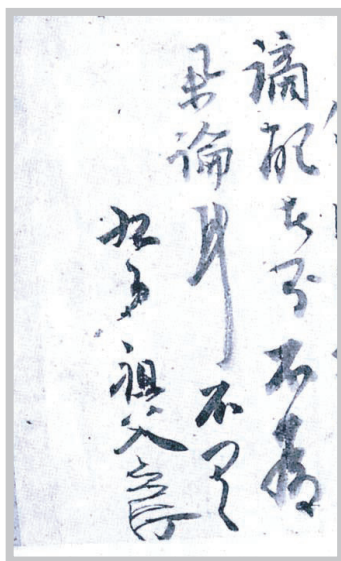


그림 16. 이관징의 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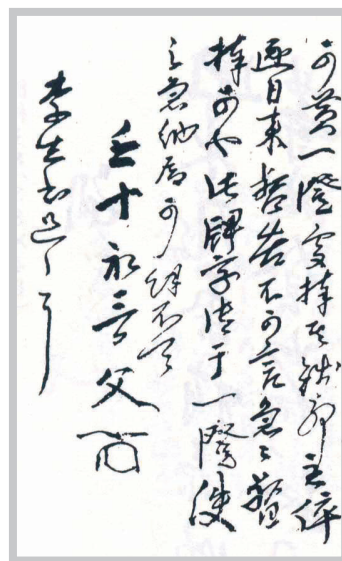


그림 17. 안서우의 착명

[그림 7]은 아들이 부친에게, [그림 16]은 조부가 손자에게, 나머지는 모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서 유의해서 볼 것은 [그림 7]이다.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압자(押字)는 군상(君上)만이 해당되고, 아랫사람은 곧 착함(着銜) 또는 수결(手決)이라고 하였다. 착함(着銜)은 존경하는 상대에게 쓰는 것이고, 수결은 비천한 사람에게 쓰는 것이다.”<sup>(31)</sup> 『임하필기』에는 압자·착함·수결의 세 가지 경우를 예시하였으나, 압자와 수결은 동일한 개념이다. 착명·서압은 상하의 위계에 따른 예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임하필기』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상대에게 할 때는 착함[착명]을 하고, 반대로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수결을 하는 것이다.<sup>(32)</sup>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실례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유원이 『임하필기』에서 착함[착명]은 존경하는 상대에게 쓴다고 언급한 것이 편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지의 피봉에서는 착명을 하는 것이 분명히 상대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내지에서 성명을 기입하는 범주에 착명을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31) “我國則押字 惟君上當之 下則曰着銜也手決也 着銜用於尊敬 手決施於卑賤者也”(『林下筆記』권30, 春明逸史, 押字之別)

(32) 박준호, 앞의 논문, 31쪽.

나머지 편지를 보면 모두 조부 또는 부친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착명을 하였다. 현재 실물로 발견되는 편지로 본다면 대체로 가족 간에 편지를 수수(授受)할 때, 특히 손윗사람이 손아래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착명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서로 간에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고 대체로 관계(父, 祖, 叔 등)를 기록한 뒤 착명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한편, 서명은 글을 배워서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서명은 글을 배워서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신분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라면 서명이야말로 저 먼 호사 취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서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기 신체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고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며, 아마도 자기의 손바닥이나 손가락은 이점에서 가장 좋은 서명의 대체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노비 중에서도 부유한 자가 있었고, 돈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글을 배울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노비 중에서도 자신만의 서명을 가진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글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고, 글을 배우지 못했다면 붓으로 하는 서명을 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림 18]는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인데, 주인 양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주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노비 충립(忠立)이 받을 매매하면서 이름과 함께 손가락을 그려서 서명을 대신하였던 예이다. 왼쪽 손가락을 그려 넣고, 양쪽에 점을 찍어 손가락 마디를 표시하고 있다. 즉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수촌(手寸)이나 수장(手掌)([그림 19] 참조)을 사용하였는데, 수촌은 손가락을 그려서 사인을 대신하였던 것이고, 수장은 손바닥을 그려서 사인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서명은 본인의 이름 글자를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 할 수 없도록 변형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름 글자의 초서체(草書體)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옛 사람들의 서명 중에는 추상적인 문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매우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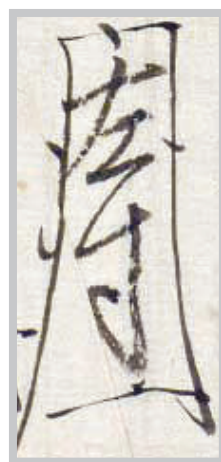


그림 18. 손가락을 그려서 서명(수촌) 한 예

(33) 김효경, 『조선시대 간찰 서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6~119쪽





그림 19. 매매문서에서 보이는 손바닥[수장]으로 서명한 사례

한편, 관인(官印)은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데, 국왕이 사용하는 어보(御寶)와 일반 관서에서 사용하는 관서인(官署印) 등이 있었다. 또한 관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서원, 사찰 등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있다. 반면에 사인(私印)으로 서화 작품에 사용하는 성명인(姓名印), 책 등의 장서인(藏書印) 등이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서명을 대신하는 둥근 도장[圖章]이 사용되었으며,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부인도서(婦人圖書)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백여 년 전부터 둥근 형태에 붉은 인주를 사용한 이름 도장을 사용하였다. 당시 도장은 전통적으로 문서 등에 하였던 서명을 대신하여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에 사용되었다.

그림 20. 재산상속 문서에 사용된 부인도서 도서인 : 丁碩强妻李氏<sup>(34)</sup>

(34) 본재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4. 옛 사람들의 편지 생활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져버릴 만큼 그 존재가 희미해진 편지는, 사실 전통시대에 가잘 널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수단이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는 임명장, 재산상속문서, 호적, 매매계약서, 등기문서 등 갖은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전해진 것은 편지이다.

편지는 옛 사람들의 생활에 스며 있을 만큼 가까이 자리했기에 뜻 깊은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편지를 써 아주 짝막하게 안부를 묻거나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 또는 벼슬에 임용되거나 과거에 합격한 일, 득남(得男)에 대한 축하 인사 등을 전하기도 했지만,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는 학문의 갈증을 풀어주는 매개체로서 그 쓰임새를 다하기도 했다. 또한 아들이나 손자에게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는 손때 묻은 것이기에 중요한 유품으로 간직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인들은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지를 일상의 삶과 떨어뜨려놓지 못했지만, 막상 편지 한 통 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 그랬을까? 언뜻 듣기에 늘 한문으로 생활했던 옛사람들이 편지 하나 쓰는 것이 뭐 그리 어려웠을까 생각하며 이 말을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옛 사람들에게는 전달하려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식을 갖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보내는 이와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용어를 달리 썼다.

만약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감정에 흠이 내는 일이었다. 편지도 '나'를 '남'에게 보이는 자기표현의 하나였기에 상대방에게 예의를 깎듯이 차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관직의 높고 낮음, 친소존비(親疎尊卑)에 따라 용어를 구별해서 썼다는 점에서 편지는 곧 위계와 예의의 표현이 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간식유편(簡式類編)』, 『한훤차록(寒暄筴錄)』, 『간독정요(簡牘精要)』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편지쓰기 매뉴얼집이 등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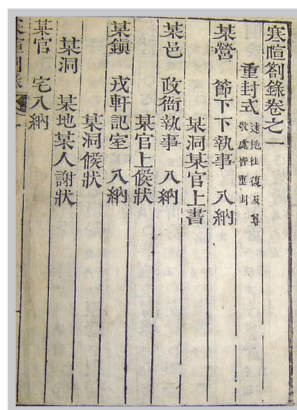


그림 21. 조선후기 대표적 편지 매뉴얼집, 『한훤차록(寒暄筴錄)』

사람이 항상 만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별하거나 어긋날 때가 있고 말을 항상 주고받을 수 없지만 반드시 소식을 묻고 듣는 때가 있다. 마음을 서로 비추는 것이 몇 마디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산하(山河)가 떨어져 있지 않음이 곧 하나의 종이 위에 있다. 진실로 서척(書尺, 편지를 말함)이 세교(世敎)에 보탬이 있으니 하인과 같은 천한 사람과 부인들과 같이 미천한 사람들도 하루도 (편지가) 없을 수 없다.<sup>(35)</sup>

위 인용문은 18세기에 간행된 편지쓰기 매뉴얼집인 『간식유편』의 서문 중 일부이다. 편지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된다. 받는 이와 보내는 이가 천 리 떨어져 마주할 순 없지만, 정답게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편지가 시원하게 풀어준다.<sup>(36)</sup>

다음은 존장(尊長)에게 올린 편지를 한 예로 작성해 본 것이다.

不獲侍教已至多日 仰德之劇與日俱深 比來 寒威漸減宇宙皆春 伏惟 氣體候安寧 伏喜區區 無任  
下誠 某伏蒙下念僅保開張亥他何伏達 悚達茲特愛隆敢此稟懇 適有某事云云 臨書悚慄之 至 餘伏  
祝氣體候益加安寧 不備 伏惟下鑑

某年某月某日 某姓名拜手

[번역]

뜻밖에 만나 뵈는 것이 이미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근래 추위가 점점 누그러져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평안하십니까? 그리워하는 마음 가늘 길이 없습니다. 아무개는 염려 덕분에 겨우 근근히 지내고 있어서 달리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에 평소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히 아무개 일로 아웁니다. 편지에 임해서 죄송한 마음 지극합니다. 항상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갖추지 않겠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아무개 올림

(35) “方寸相照 不出數語之間 山河不隔 即在一紙之上 則儘乎書尺之有補於世教 而與儻之賤 婦孺之微 亦不可一日無者也”(『簡式類編』序)

(36) 김효경, 「편지만이 오직 뜻을 통하게 한다-조선에서 유행한 편지쓰기 매뉴얼 『간식유편』, 『실용서로 읽는 조선』, 글항아리, 2013, 182~186쪽

한편, 편지를 통해서 옛 사람들의 멋스러운 문화도 엿볼 수가 있다. 이메일과 핸드폰이 일상화된 요즘 현대인들에게 편지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불과 20여 년 전만해도 친구 혹은 연인에게 편지를 쓸 때 이메일이 아닌 다양한 색깔의 편지지에 정성을 들인 글씨로 서로의 우정을 쌓거나 사랑을 꽃피우곤 했다. 옛 선비들 역시 친구나 부모형제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멋스러운 무늬가 새겨져 있는 시전지(詩箋紙) 위에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정다운 소식을 전하곤 하였다.

시전지란 문자 그대로 시를 쓰기 위하여 별도로 만든 무늬가 있는 종이를 말하였으나, 편지를 쓸 때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때문에 시전지란 그 글자의 풀이와 관계없이 시나 편지를 쓰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예쁜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전지에서 ‘전(箋)’은 ‘글이나 편지를 쓰는 작은 종이쪽지’라는 의미로, ‘전(牋)’이라는 글자도 썼다. 시전지는 중국 촉(蜀) 지방에서 만든 ‘전’이라는 종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당나라 이래로 시전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송(宋)·원(元)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류의 시전지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시전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전지는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조선시대 시전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수집한 『근묵(槿墨)』에 실려 있는 최덕지(崔德之, 1384~1456)의 시이다.<sup>(37)</sup> 종이 왼쪽 아래편에 노랑고 빨간 국화꽃이 인쇄되어 있는 예쁜 시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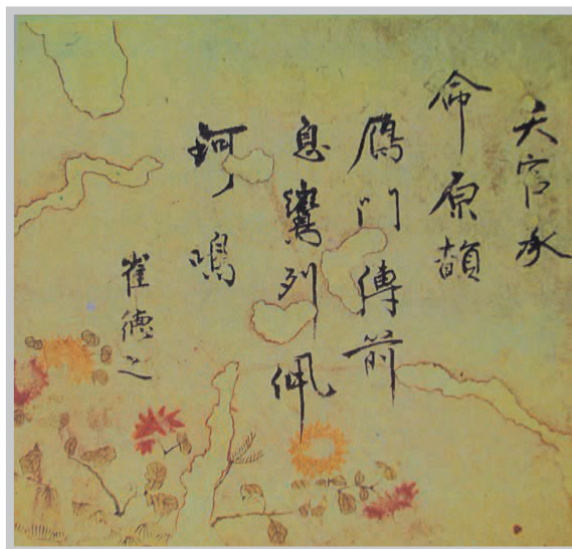


그림 22. 최덕지의 시가 써진 시전지

(37) 성균관대학교, 『근묵』, 1995, 7쪽

시전지는 주로 나무에 무늬를 새긴 후 솔로 색을 칠하고 종이를 얹어 박아내는 판화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시전지는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종이에 선을 그어서 글자를 넣을 빈칸을 만든 것이다. 둘째는 첫째의 형식에 축책 오른쪽 또는 왼쪽 공간을 약간 비워서 무늬나 무늬에 어울리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셋째는 종이 위에 그림만 찍혀있는 것이다.

무늬는 옛날부터 선비들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사군자(四君子)가 많고, 연꽃·새·병에 담긴 꽃 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늬 이외에도 길상(吉祥)이나 편지를 의미하는 ‘고간(古簡, 또는 古柬)’이나 ‘척소(尺素)’ 따위의 문구를 함께 넣기도 했다.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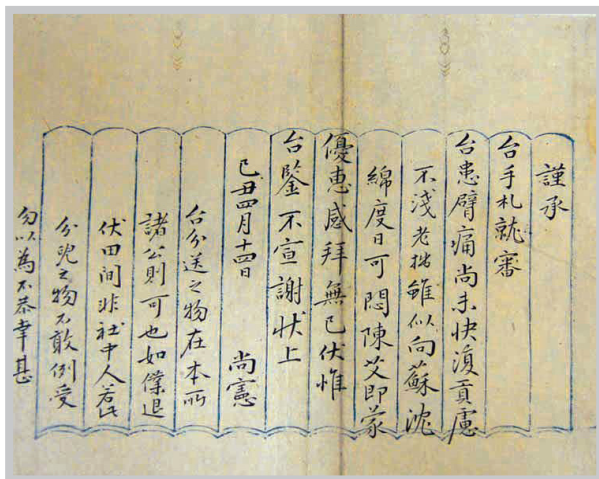


그림 23. 첫 번째 유형의 시전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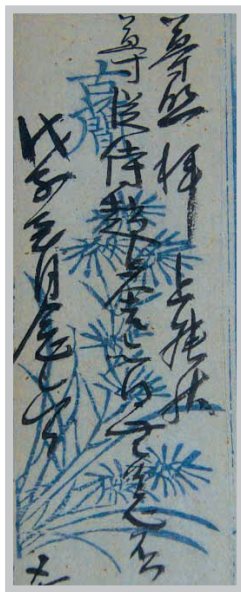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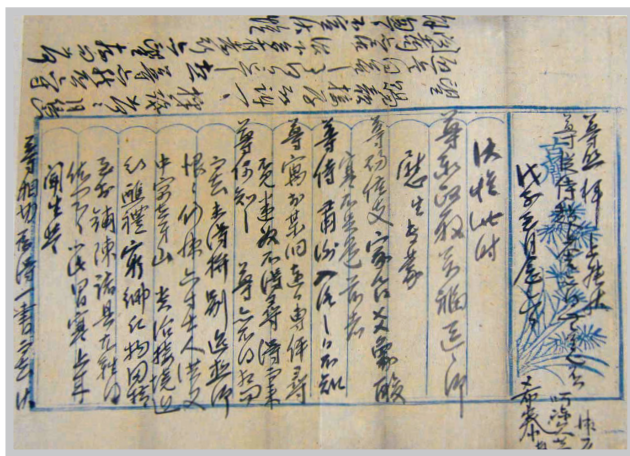


그림 24. 두 번째 유형의 시전지 (39)

(38) 『古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9) 『古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25. 세 번째 유형의 시전지<sup>(40)</sup>

시전지는 편지에 담긴 내용과 어우러져 편지 속에 담긴 마음을 한층 멋스럽고 품위있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시전지를 통해서 옛 선비들의 은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5. 나오는 말

본 논고에서는 여러 종류의 고문서 중에서 조상 뒷자리 소송, 옛 사람들의 서명 문화, 편지 생활 등 세 분야에 걸쳐 선인들의 여러 삶의 모습 중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각종 다양한 고문서를 이용하여 개인의 일상적의 생활모습과 생활양식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2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유력 사대부가의 고문서를 수집, 분석하여 각 가문의 형성, 통혼권, 사회경제적 기반, 상속 등 한 가문의 가족사 연구의 기본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準戶口) 등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가족의 형태와 가세(家勢) 변동을 분석하기도 하고, 재산상속문서나 매매문서[명문(明文)]·입안(立案)<sup>(41)</sup> 등의 고문서를 통해 한 가문의 가계운영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문서 자료를 활용하여 그동안 역사학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생활사 분야의 내용들이 부각되어 새로운 내용들을 밝혀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40) 『碩齋尺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韓貴古朝44-다8-11)

(41) 입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가옥이나 토지 및 노비 등을 매매하거나 양자(養子)를 들일 때 원칙상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 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바로 입안이다.

# 그림식 고을지도, 조선 사람들의 소망공간을 담다

이 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 05

### 명당, 의미가 확장되다

명당(明堂)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풍수에서 삶터나 무덤터를 잡을 때 제일 좋은 땅으로 여기는 길지(吉地)’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명당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인터넷 네이버에서 ‘明堂(명당)’으로 검색해 보면 한자사전에서는 첫 번째로 “임금이 조회<sup>(1)</sup>를 받던 정전(正殿)”이란 뜻을, 중국어사전에서도 첫 번째로 “옛날, 국왕이 성대한 의식을 행하던 궁전”이란 뜻을 내놓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비록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임금이 조회(朝會)를 받던 정전(正殿)”이란 뜻이 적혀 있다.

명당(明堂)을 한자의 뜻으로만 풀이하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집’이란 뜻이다. 그리고 신분사회를 당연하게 여겼던 전통시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여겼던 유일한 사람, 임금밖에 없었다. 따라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집’이란 뜻의 명당은 원래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핵심 정치행위를 하는 궁궐이나 정전을 가리켰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1394년 수도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길 때 원래 의미의 명당은 넓게

(1) 조회(朝會)란 글자의 의미는 ‘아침(朝)에 신하들이 모여(會) 임금을 뵈는 일’이었는데, 실제로는 ‘궁궐의 정전(正殿)에서 행한 국가의 주요 행사 때 중앙 정부의 신하들이 도열하여 임금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을 가리켰다.



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궁궐인 경복궁 전체, 좁게는 ‘임금이 국가적인 행사 때 신하들의 조회(朝會)를 받던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만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명당이란 용어의 사용을 궁궐이나 정전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임금과 왕실은 물론이고 양반과 일반인의 집과 무덤, 동헌을 비롯한 각종 관아 건물, 사찰과 향교, 서원 모두에 명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 또한 범위를 더 넓혀서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와 마을까지, 나아가 국토 전체에 대해 명당이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했다. 원래의 명당 의미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이다.

## 무덤에만 적용된 중국의 풍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궁궐에만 적용시키던 명당의 의미를 엄청나게 확장시킨 사상적 논리는 풍수(風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수의 논리 자체에 명당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확장시킨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론 체계를 갖춘 풍수가 발생한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다. 일부 진위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풍수 최고의 경전인 『청오경(靑鳥經)』은 중국의 한나라(BC206-AD220) 때, 『금낭경(錦囊經)』은 중국의 당나라(618-907) 때 저술된 것이다. 그런데 두 책 모두 죽은 사람의 공간인 무덤에 관한 내용일 뿐 살아 있는 사람의 삶터 이야기는 전혀 없다. 결국 풍수사상은 죽은 사람의 공간인 무덤의 터를 잘 잡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에서 주산(主山)-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sup>(2)</sup>-안산(案山)의 산줄기 흐름을 갖춘 풍수의 명당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릉 등 무덤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北京)을 비롯하여 중국의 역대 수도는 산과 산줄기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평지에 직선 위주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이상적으로 삼았다. 그러니 중국의 수도와 그 안의 삶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수의 명당 논리가 적용될 틈이 없었는데, 이는 지방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중국에서 산이 많은 곳을 여행하다 보면 사찰과 탑을 비롯한 각종 종교 시설들이 우리나라 처럼 산 밑이나 산 속이 아니라 산이나 언덕 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또한

(2)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에서 좌(左, 왼쪽)와 우(右, 오른쪽)는 주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방향을 가리킨다.

풍수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을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원리에 따라 산을 등지고 들어선 마을을 찾기도 쉽지 않다.

## 우리나라, 온 국토가 풍수의 명당 천지로 변하다

풍수의 발생지 중국이 무덤에만 풍수를 적용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궁궐과 집, 무덤, 종교시설, 마을, 도시 등 온 국토를 풍수의 명당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부터 온 국토가 명당 천지였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풍수의 명당 논리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무덤이었고, 신라에서 첫 번째의 주인공은 제 23대 임금인 법흥왕(재위: 514-540)의 무덤이었다. 이후 풍수의 명당 논리가 신라의 임금과 귀족의 무덤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고려시대에 이르면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전형적인 형세가 갖추어졌다. 이것은 조선에도 계속 이어져 멸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림 1. 풍수의 전형적인 명당 형국

삶터에 풍수의 명당 논리가 적용된 최초의 장소는 682년(신문왕 2)에 조성된 감은사였고, 이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불교 사찰로 확산되었다.

후삼국시대가 시작된 89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풍수 도시가 등장했는데, 바로 왕건이 궁예의 명을 받아 건설한 수도 개성이었다. 고려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수도와 궁궐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 풍수의 명당 논리를 무조건 적용시키는 임금풍수가 유행하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조선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고 고을의 읍치인 지방도시에도 후삼국시대부터 풍수의 명당 논리가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시대 내내 풍수의 명당 논리가 적용된 도시는 개성, 서경, 남경 등 임금과 관련된 수도 뿐이었고, 고을 호족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방도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풍수의 명당 논리를 이용하여 지방도시를 만들면 임금에게 반역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정도로 금기시되었다. 완전한 중앙집권국가를 꿈꾸었던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야 풍수의 명당 논리를 적용한 지방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4대 임금인 세종(재위: 1418-1450) 때는 국가가 새로운 읍성의 선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풍수의 명당 논리를 적용시켰고, 이후 조선의 모든 도시에서는 풍수의 명당 논리가 모범으로 따라야 할 당연한 원리로 정착되었다.

고대부터 고을의 중심도시에 살던 지배신분들이 고려 말부터 서서히 마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400년대를 거쳐 1500년대에 이르자 지배신분인 ‘양반은 지방도시가 아닌 마을에 살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양반 가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동시에 풍수의 명당 논리도 양반마을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거쳐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수도, 지방도시, 마을, 무덤, 관아와 종교 및 제사 건물, 개인 주택 어느 하나도 풍수의 명당 논리를 따지지 않는 공간이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온 국토가 명당 천지로 변했고, ‘명당이네 명당이야’란 소리는 삶터와 무덤에 대해 조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최고의 칭찬이 되었다.

## 완벽한 명당은 드물다

풍수가 과학적으로 옳건 그르건, 미신적이건 아니건 조선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당에 살고, 명당에 묻히고 싶어 했다. 조선에서 명당은 단지 ‘살기 좋은 또는 편안한 땅’, 죽은 후 ‘넋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땅’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거나 묻혀야 개인과 가문이 번영한다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출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풍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사대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들도 풍수의 폐해를 비판한 것이었을 뿐, 자신들이 풍수의 명당에 살거나 묻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선후기에 유명했던 실학자의 집이나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풍수의 명당과 관련된 곳에 자리 잡지 않은 경우를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하지만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이란 풍수의 명당 지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풍수의 명당터를 둘러싼 산송(山訟)<sup>(3)</sup>이 조선후기 내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물론 무덤을 제외하면 풍수의 명당터를 둘러싼 분쟁은 별로 없었는데, 새로 만들거나 옮기기가 무덤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마을, 나아가 고을과 도시가 풍수의 명당터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은 무덤 못지않게 강했다. 하지만 완벽한 풍수의 명당에 걸맞은 자연 지형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완벽한 명당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바로 비보풍수(裨補風水)다.

(3) 산송(山訟)은 후손들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조상의 ‘산소(무덤)’에 대한 소송이란 뜻이다.

## 그림식 고을지도, 고을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소망공간을 담다

비보풍수(裨補風水)는 풍수의 논리로 볼 때 완벽한 명당이 되기에 부족한 자연지형을 ‘인위적으로 보충하여 완벽한 명당이 되도록 도와주는 풍수’라는 의미인데,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인공적인 산<sup>(4)</sup>이나 숲, 연못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주변의 자연지형에 풍수적 의미를 붙여주거나 풍수 지명으로 바꾸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인위적으로 보충해 준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관점에서는 풍수의 완벽한 명당 모습을 구현해 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실제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조선 사람들의 소망에 맞추기 위해 지형을 풍수의 명당 모습으로 변형시켜 그리는 그림식 지도가 유행했다.

풍수의 명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유행한 그림식 지도는 무덤 지도다. 풍수가 유행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산에다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 무덤을 산소(山所)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풍수 관련 무덤의 그림식 지도를 ‘산소의 지도’란 뜻의 산도(山圖)라고 불렀는데, 임금과 왕실의 무덤은 물론이고 양반 사대부 가문의 무덤까지 풍수의 산도를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다. 주택, 궁궐, 마을, 도시, 고을 등 삶터에 대한 풍수의 그림식 지도는 무덤만큼 많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아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식 고을지도다. 모든 그림식 고을지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그림식 고을지도에는 고을의 지형을 풍수의 완벽한 명당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싶어 했던 조선 사람들의 열망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림식 고을지도를 그릴 때 이미지 묘사의 핵심은 지방관이 임금을 대신하여 고을을 다스리는 동헌(東軒), 지방관이 대궐을 상징하는 신성한 나무토막인 궐패(闕牌) 또는 전패(殿牌)를 향해 절하는 향망궐배(向望闕拜)의 의식을 통해 임금에게 충성을 맹서하는 객사(客舍) 등 관아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방도시인 읍치(邑治)<sup>(5)</sup>다. 읍치는 고을 전체에서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고, 따라서 조선 사람들에게 불문율의 가치로 자리 잡은 풍수의 명당 논리로 표현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읍치터의 선정에 풍수의 명당 논리가 적용된 것은 조선에 들어서이고, 특히 국가가 읍성터

(4) 인공적으로 만든 산을 한자로는 造山(조산)이라고 적는데, 지역 사람들은 ‘알처럼 작게 만든 뫼(山)’란 뜻의 ‘알미’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5) 읍치(邑治)는 ‘고을(邑)을 다스리는(治) 곳’이란 뜻으로, 지방관이 고을을 다스리기 필요한 동헌(東軒 또는 衙舍)과 객사(客舍) 등의 관아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던 세종 때 풍수의 명당 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시킨 이후부터다. 따라서 조선 이전에 자리 잡은 후 역사적인 관성 때문에 옮기지 못한 고을의 읍치는 자연지형의 측면에서 풍수의 명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의 지도 제작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풍수의 명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그런 관점에서 그림식 고을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많았다.

## 『여지도』, 전국 그림식 고을지도책

고을 하나가 아니라 도(道)나 전국 차원의 그림식 고을지도책 중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1720년대 안팎에 국가 주도로 편찬되었다. 최초의 원본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후대에 국가기관과 민간 모두에서 여러 번 필사하여 이용되었기 때문에 같은 계통이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는 완질본으로 『여지도(輿地圖)』(6책, 古朝61-3)와 『대한지도(大韓地圖)』(6책, 古朝61-27) 2종이, 결본으로 『팔도여지도(八道輿地圖)』(5책, 古2702-14)와 『각읍지도(各邑地圖)』(1책, 古朝61-14) 2종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완질본으로 3종이 있고, 일부 지역만 포함된 것으로 5종이 있다.

우리 도서관 소장본 중에서 『여지도』(6책)는 완질본일 뿐만 아니라 색감이 아주 뛰어나고 글씨가 정서되어 있어 국가기관에서 필사하여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귀중본이다. 필사 과정에서 일부 지명의 한자가 바뀌거나 생략되기도 했지만 실제 지형과 상관없이 조선 사람들이 소망한 고을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모든 고을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고을에서 읍치(邑治)의 풍수적 명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 주변뿐만 아니라 고을 전체의 차원에서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 그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조선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을에 대해 만들고 싶어했던 고을의 소망공간을 다양한 사례로 만날 수 있다.

## 배산임수,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가에 산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착은 남다르다. 필자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뒤



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접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가 마을뿐만 아니라 옛 도시에 서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처럼 귀가 따갑게 들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고을의 중심도시인 읍치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서 고을이 클수록 읍치가 배산임수의 입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을 알게 되었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충청도의 충주와 청주,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경주와 상주, 강원도의 원주 모두 뒤쪽으로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 위에 읍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 충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모두 고려시대에 읍치를 잡은 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옮기지 않은 곳이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임금과 관련된 수도를 제외하면 풍수의 명당 논리가 적용된 지방 고을의 읍치는 전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또 궁금해졌다. 조선후기가 되면 풍수는 조선의 모든 공간에서 권위 있는 땅임을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논리였는데, 뒤쪽으로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의 읍치들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그리고 풍수의 명당 형국에서 일부를 갖추지 못한 고을의 읍치들은 또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고을의 지리지도 있지만 역시 최고는 누구나 눈으로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림식 고을 지도였다. 이제부터 『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을 몇 곳을 한번 탐사해 보며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다.

## 경상도의 상주 지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

조선시대 경상도란 이름은 경주와 상주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상주목이 그만큼 중요한 고을이었다는 의미인데, 통일신라 때도 상주목은 지방행정체제에서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는 9주(州)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고을이었다면 상주의 중심도시는 풍수의 명당 논리에 상당히 완벽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상식일 것이다. 그리고 『여지도』의 상주목 지도인 그림 2를 보면 예상이 딱 들어맞는다.

그림 2의 가운데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대문을 갖춘 원형의 상주읍성이 자리 잡고 있고, 서쪽의 주산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싸며 주산(主山)-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안산(案山)의 풍수적 형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산줄기와 읍성 사이에는 서쪽에서 두 줄기의 명당수가 동쪽으로 흘러 합해진 후 낙동강으로 빗겨서 들어간다. 풍수의 명당 형국을 이보다 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진짜 완벽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실제 지형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명당 묘사가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림 2. 『여지도』의 상주목 지도



그림 3. 상주읍성과 주변 지형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제작된 1:5만 지형도 위의 상주읍성터와 주변 지형이 그림 3<sup>(6)</sup>인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상주읍성은 원형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4대문을 갖춘 정사각형에 가까웠고, 북쪽의 북천과 동남쪽 병성천 사이의 넓은 평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헌과 객사 모두 남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주목의 읍치 뒤쪽은 상주읍성의 북쪽에 해당된다. 그런데 상주읍성과 북천 사이에 있던 그림 2의 좌청룡 산줄기가 그림 3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상주읍성과 서쪽의 산 사이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북천에 합류하는 작은 하천이 있어 서쪽의 산에서 상주읍성의 북쪽으로 바로 뻗어 내린 산줄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눈을 돌리면 그림 2와 그림 3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 면이 더 많아진다. 그림 2에서는 상주읍성 북쪽의 북천과 동남쪽의 병성천이 읍성 주위의 산줄기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휘돌아 감싸면서 합류하는 짧은 하천처럼 그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주읍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상당히 긴 하천이며, 읍성 주변의 산줄기 사이사이를 휘돌아 감싸는 모습도 아니다. 그리고 그림 2에서 상주읍성 바로 동쪽에 솟아난 풍수의 안산처럼 묘사된 병풍산(屏風山)도 실

(6) 이 글에서 사용한 일제강점기 제작 1:5만 지형도는 모두 종로도서관 소장본을 국가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 이미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제로는 아주 멀리 있는 산이고, 북천과 병성천 못지않게 긴 동천이 합류하는 모습은 아예 그리지도 않았다. 모두 풍수의 명당 형국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 변화시키거나 생략한 것이다.

실제의 지형을 보여주는 그림 3을 보고 그림 2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해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하지만 18세기 조선의 사람들은 그림 3의 지형을 풍수의 명당 논리로 재구성하고 싶어 했고, 그림 2의 상주목 지도가 그런 소망의 결과물인 것이다. 풍수의 명당 논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주목 지도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다.

상주읍성은 왜구의 침입이 가장 심했던 고려 말인 1381년에 축성되었고,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풍수의 명당 논리가 지방 고을의 읍치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하지만 풍수의 명당 논리가 읍치의 권위 표현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조선후기에 이르면 전혀 풍수적이지 않은 상주목의 읍치까지 풍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충청도의 충주 지도, 생략과 변형을 통해 명당을 구현하다

충청도란 이름은 충주와 청주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충주 또한 경상도의 상주처럼 충청도에서 중요했던 고을이란 의미인데, 통일신라 때는 다섯 개의 작은 서울이란 뜻의 5소경(小京) 중 하나인 중원경(中原京)이었다. 그러면 『여지도』의 충주 지도에는 이런 충주의 읍치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그림 4가 바로 『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충주의 지도인데, 얼핏 보아서는 풍수의 명당 형세가 잘 표현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첫째, 남향한 읍성의 뒤흘인 북쪽에 그려진 종당산(從堂山)을 풍수의 주산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당산으로부터 좌우로 솟아난 산이 산줄기로 이어졌다고 보면 좌청룡이 대림산(大林山)까지, 우백호가 탄금대(彈琴臺)까지 이어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셋째, 아래쪽의 달내나루(達內津) 너머에 풍수의 안산으로 마산(馬山)이 솟아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충주의 읍치는 상당히 좋은 풍수의 명당 형국에 들어선 것처럼 보아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떨까.

그림 5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제작된 1:5만 지형도 위의 충주읍성과 주변의 지형이다. 충주읍성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 문을 갖고 있었으며, 동서로 길고 동북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충주읍성을 중심으로 사방의 산과 산줄기를 얼핏 보면 서쪽이 뿔려

있지만 북쪽과 동쪽, 남쪽은 산과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어 분지 지형을 선호하는 풍수의 명당 형세를 이룬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충주읍성은 명당터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그림 5를 보면 충주읍성은 남쪽의 산줄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충주천과 동쪽의 산줄기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흐르는 교현천 사이의 평지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동헌과 객사 등 중요한 관아 건물은 남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읍성의 뒤쪽은 북쪽에 해당된다. 만약 풍수의 명당터라면 주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충주읍성까지 이어져야 하지만 북쪽의 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교현천 때문에 충주읍성까지 이어질 수 없다.



그림 4. 『여지도』의 충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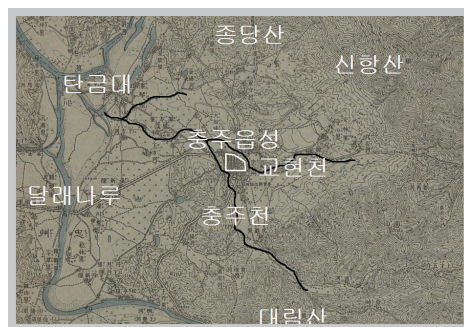


그림 5. 충주읍성과 주변 지형

이것은 풍수의 명당터이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주산(主山)이 설정될 수 없다는 뜻이며, 충주의 읍치가 풍수의 명당 논리가 일반화된 조선시대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조선의 사람들은 충주의 읍치가 풍수의 명당 논리에 적합한 형국이기를 소망했다. 그림 4가 바로 그런 소망공간을 잘 담고 있는데, 풍수의 명당 형국임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지형을 교묘하게 바꾸어놓았다.

충주의 읍치가 명당터로 인식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바로 충주읍성 바로 북쪽을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흐르는 교현천이다. 그림 4에서는 교현천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충주의 읍치가 풍수의 명당터이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된 결과다. 교현천을 그리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충주천도 그리지 않았고, 그런 조건에서라면 확대된 충주읍성을 중심으로 있는 그 대로의 지형을 따라 그려도 북쪽의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내린 좌청룡의 흐름은 분명해진다.



하지만 그림 5를 보면 충주읍성을 중심으로 북쪽의 주산에서 왼쪽으로 뻗어 내린 우백호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4에서는 거의 섬 속의 절벽인 탄금대를 상당히 큰 산인 것처럼 그려 넣어 우백호의 흐름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하나 풍수의 주산에 해당되는 읍성 북쪽의 종당산(從堂山)이 해발 200m 약간 넘는 반면에 좌청룡의 산줄기에 있는 심향산(心項山, 계족산, 776m)과 대림산(大林山, 489m)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이는 풍수의 전형적인 명당 형국에서 단점이 되는데, 그림 4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렵게 그렸다.

## 전라도의 전주 지도, 북쪽의 산과 전주천 발원지의 거리를 조절하다

전라도란 이름은 전주와 나주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어졌다. 전주는 요즘의 도청소재지에 해당되는 전라도의 감영이 있을 만큼 중요한 고을이었으며, 통일신라 때는 9주 중의 하나였다. 그러면 『여지도』의 전주 지도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그림 6. 『여지도』의 전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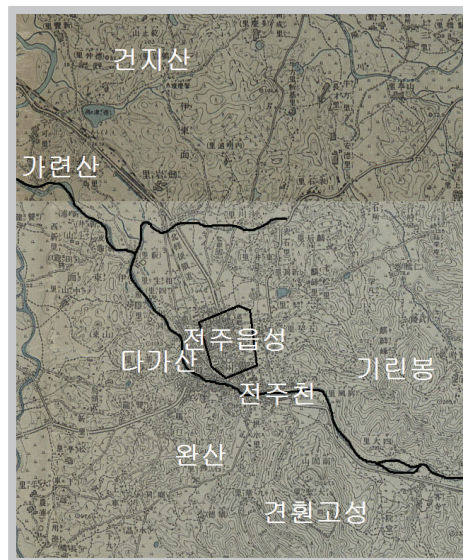


그림 7. 전주읍성과 주변 지형

그림 6의 전주 지도에는 사각형의 전주읍성이 동서남 세 방향으로 산과 산줄기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건지산(乾止山)과 가련산(可連山)이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남쪽에서 발원한 전주천이 전주읍성 남쪽과 서쪽을 돌아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모양이다. 비록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이란 풍수의 전형적인 명당 형국은 아니지만 전주읍성이 산과 산줄기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명당 중의 하나인 것처럼 읽을 수는 있다.

그림 7에 그려진 실제의 지형을 큰 범위에서 보면 그림 6의 전주 지도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실제의 모습을 풍수의 명당 형국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전주읍성은 읍성터의 선정에 풍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던 고려 말인 1381년에 전주천가의 완전 평지에 동서남북의 4대문을 갖추어 축조되었다. 읍성의 축은 전주천가를 따라 서북북-동남남 방향을 향했으며, 서북북 방향에는 가련산과 건지산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전주읍성의 동남남쪽에서 서북북쪽을 바라보면 가련산과 건지산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림 6의 전주 지도에는 상당히 가까운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리고 전주천의 발원지가 전주읍성에서 동남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의 소재(掃峙)<sup>(7)</sup>임에도 그림 6의 전주 지도에는 소재를 상당히 가까운 것처럼 그려서 전주읍성을 감싸며 흘러나가는 부분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북쪽의 산과 전주천의 발원지 거리를 가깝게 조절한 결과 전주읍성이 마치 가까운 산과 산줄기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인 풍수의 명당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의 부평 지도, 조산으로 보완했지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그린다

부평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계산동에 읍치를 두고 있는 고을이었고, 그림 8이 『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부평의 그림식 지도다. 고을 전체의 산줄기가 읍치 뒤쪽의 계양산(桂陽山)을 풍수의 주산으로 하여 좌청룡-우백호-안산의 명당 형국이 전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 지형도 대략 비슷하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 풍수와 관련하여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부분은 고을 전체가 아니라 읍치다.

읍치의 동쪽에 조산(造山)이란 이름의 작은 산이 3개 그려져 있다. 여기서 조산(造山)은 인공적

(7) 이 글에서는 부르던 이름과 표기된 한자의 소리가 다름이 확인될 경우 한글로는 부르던 이름을 써넣었다.

으로 만든 산이란 뜻이며, 지도에는 3개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섯 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림 8의 지도만 본다면 왜 이곳에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계양산(桂陽山, 395.4m)을 풍수의 주산으로 하여 좌청룡-우백호-안산의 형세가 나뉘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산(造山)의 비밀을 풀기 위해 부평의 읍치가 있던 지역의 실제 지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9를 보면 주산인 계양산이 읍치의 서북쪽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좌청룡과 우백호의 산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계양산-읍치 축의 정면에 해당되는 동남 방향에는 언덕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 전개되고 있어 앞쪽에서 명당을 막아주는 안산을 설정할 수 없다. 지형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 방향의 허허벌판에 다섯 개의 조산(造山)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 들판을 ‘다섯 개의 조산’이란 뜻의 오조산(五造山)들이라 불렀다.



그림 8. 『여지도』의 부평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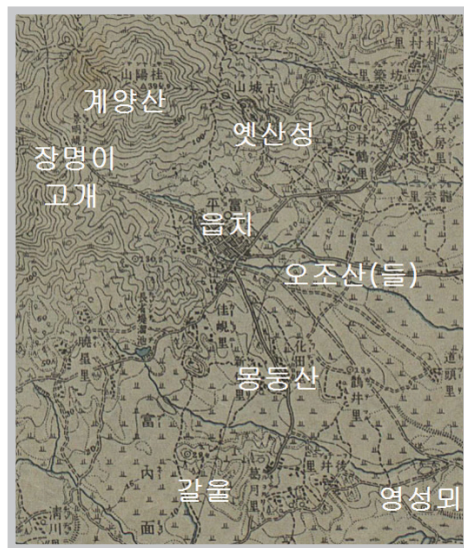


그림 9. 부평의 읍치와 주변 지형

그런데 그림 8의 부평 지도에는 이런 지형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산이 없더라도 부평의 읍치가 풍수의 명당 형국을 완벽하게 형성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몽둥산(名東山, 60~70m)이 마치 주산인 계양산의 맞은편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것처럼 그렸고, 그 너머에 작은 언덕에 불과한 영성외(廉成山, 20~30m)를 꽤 높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우리는 그림 9를 통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계양산 맞은편의 동남쪽 방향이 허허벌판이어서 다섯 개의 조산(造山)을 만들어 풍수의 안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형을 마음대로 옮겨 그릴 수 있는 그림 8에서는 실제 지형에서는 풍수의 안산 역할을 할 수 없

는 몽둥산과 영성피를 계양산 맞은편의 안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 그 결과 실제의 안산 역할을 하던 조산(造山)을 그리기는 했지만 왜 조산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 경상도의 산음 지도, 조산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산줄기를 그린다

산음(山陰)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에 읍치를 두고 있던 고을이며, 1767년에 산청(山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림 10을 보면 읍치 동북쪽(위)의 와룡산을 주산으로 하여 좌청룡-우백호의 산줄기가 명확한 것처럼 그려져 있다. 안산에 해당되는 서남쪽(아래)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산인 세 개의 조산(造山)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 지형은 어떻게.



그림 10. 『여지도』의 산음 지도



그림 11. 산음의 읍치와 주변 지형

그림 11을 보면 읍치의 서남쪽 방향이 탁 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곳에 풍수의 안산에 해당되는 조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풍수의 명당 형국을 보완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형에서는 풍수의 전형적인 명당 형국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첫째, 주산인 와룡산에서 동헌(衙舍)의 뒤쪽까지 연결된 산줄기가 있기는 하지만 눈에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지는 않다. 둘째, 좌청룡에 해당되는 성내미산(城南山)이 우백호에 해당되는 동헌 뒷산보다 훨씬 크고 높아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셋째, 아무리 조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너무 작다.

그림 10은 산음의 읍치가 갖고 있는 풍수의 단점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있다. 첫째, 주산인 동북쪽(위)의 와룡산에서 동헌의 뒷산까지 연결된 산줄기를 명확하게 그려 넣었고 둘째, 성내미산(城南山)과 동헌(衙舍) 뒷산의 높이를 비슷한 것처럼 그려 좌우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셋째, 서남쪽(아래)의 조산 뒤쪽에 안산이 솟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또한 산과 산줄기로 둘러싸인 읍치가 실제보다 훨씬 넓은 것처럼 확대하여 그래서 풍수의 전형적인 명당 입지에 알맞게 보이도록 하였다.

## 경상도의 고령 지도, 숲을 조성하여 명당 형국을 완성하다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였으며, 동헌과 객사가 있던 읍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의 연조리 일대에 있었다. 그림 12를 보면 풍수의 주산인 서쪽의 귀산(耳山)을 중심으로 좌청룡과 우백호(南山)의 산줄기가 분명하며, 동쪽의 안산에 해당되는 방향에는 밤숲(赤林)이 하천가를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다. 밤숲은 풍수의 명당 형국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보호한 비보숲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실제 지형은 어땠을까?



그림 12. 『여지도』의 고령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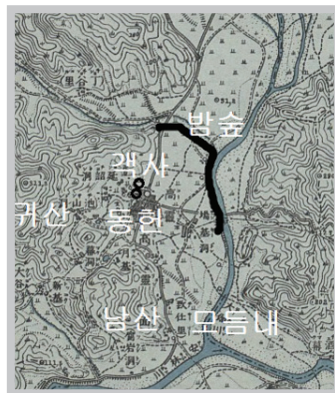


그림 13. 고령의 읍치와 주변 지형

그림 13을 보면 고령의 읍치 주변의 실제 지형도 그림 12처럼 풍수의 주산인 서쪽의 귀산(耳山)을 중심으로 좌청룡과 우백호(南山)의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다. 다만 동쪽의 하천 방향이 탁트여 있는데, 바로 이곳의 하천가를 따라 모듬내(合川) 방향으로 밤숲(赤林)을 조성하여 풍수의 명당 형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비보숲으로 삼은 것이다.

## 충청도의 회인 지도, 없는 산줄기를 만들어내다

회인이란 고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인데,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대부분 보은군에 합해지면서 고을의 이름은 회인면으로만 남았다. 동헌과 객사 등이 입지한 고을의 읍치는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의 중앙리에 있었는데, 『여지도』에 수록된 회인 지도가 그림 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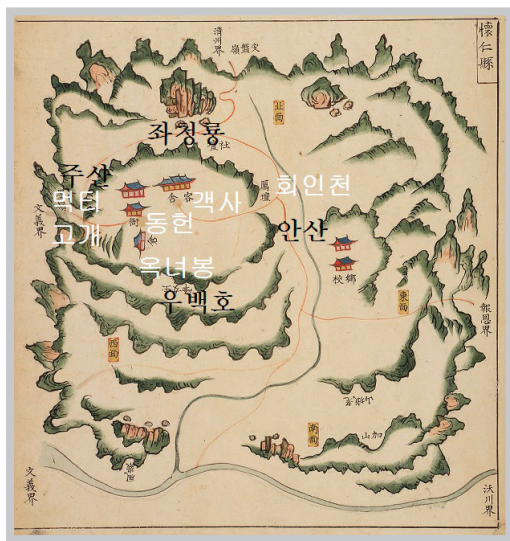


그림 14. 『여지도』의 회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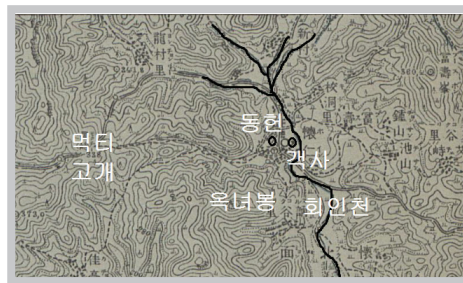


그림 15. 회인의 읍치와 주변 지형

그림 14를 보면 고을의 읍치 서쪽의 주산과 그로부터 뻗어 내린 좌청룡과 우백호의 산줄기가 분명하고, 동쪽에는 안산도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회인 지도의 이와 같은 모습만 보면 고을의 읍치가 거의 완벽한 풍수의 명당 형국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5를 보면 동헌과 객사가 있는 고을의 읍치를 좌우로 감싸는 좌청룡과 우백호의 산줄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쪽의 회인천 방향으로 안산을 설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지도』의 회인 지도는 실제 지형과 상관없이 지도 제작자가 소망하는 공간을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 안성 지도, 산줄기를 과장하고 먼 산을 끌어오다

조선시대 안성군의 읍치는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있었다. 그림 16에는 안성의 읍치가 풍수의 주산인 비봉산(飛鳳山)을 중심으로 좌청룡과 우백호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의 안성천 건너이기는 하지만 사계서원과 홍이계진터(洪李界陣堡) 근처에도 안산이 분명하게 솟아 있어 풍수의 명당 형국에 상당히 잘 맞는다. 그렇다면 실제 지형은 어떨까.



그림 16. 『여지도』의 안성 지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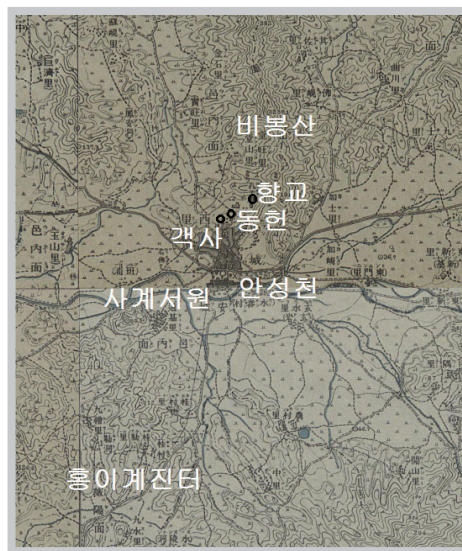


그림 17. 안성의 읍치와 주변 지형

실제의 지형을 보여주는 그림 17을 보면 그림 16의 안성 지도가 풍수의 명당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실제 지형을 얼마나 바꾸어 그려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읍치의 동북북 방향에 주산인 비봉산이 솟아 있고, 그로부터 좌청룡(오른쪽)의 산줄기는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지도 위에서 우백호(왼쪽)의 산줄기는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언덕일 뿐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 16의 안성 지도에는 우백호의 산줄기가 상당히 잘 발달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림 16의 안성 지도에서 풍수의 명당 형국을 완성시키기 위해 실제 지형을 가장 변형시킨 부분은 주산 맞은편의 안산 부분이다. 실제 지형에서 사계서원의 봉우리는 그래도 가깝지만 홍이계진터 뒤의 봉우리는 아주 멀리 있다. 하지만 그림 16에는 두 봉우리가 읍치로부터 아주 가까운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안산을 그려 넣어서 풍수의 명당 형국을 완성시키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 전라도의 낙안 지도, 빈약한 산과 산줄기를 과장하다

낙안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순천과 보성에 나누어 합해지면서 사라졌는데, 고을의 이름은 순천시의 낙안면으로 남아 있다. 원래의 고을 읍치는 보성군 벌교읍의 고읍리에 있었는데, 1424년(세종 6)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가 풍수의 명당 형국에 알맞은 낙안면의 성내리에 터를 잡아 낙안읍성을 건설하여 옮겼다.



그림 18. 『여지도』의 낙안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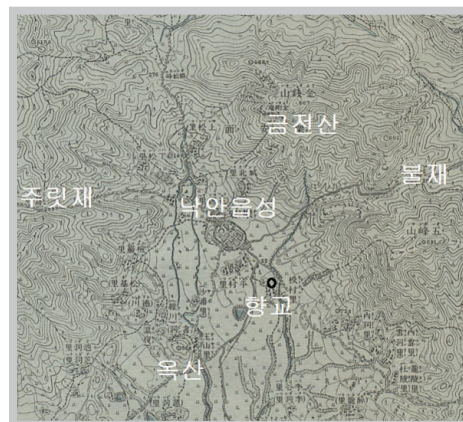


그림 19. 낙안의 읍치와 주변 지형

실제 지형을 보여주는 그림 19를 보면 낙안읍성은 동북북 방향에 있는 금전산(667m)을 주산으로 하여 서남남 방향을 향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금전산에서 왼쪽으로 뻗은 주릿재(周路峙) 방향의 우백호와 오른쪽으로 뻗은 불재(大峙, 火峙를 잘못 쓴 것임) 방향의 좌청룡 산줄기가 분명하고, 낙안읍성의 서남남 방향에는 풍수의 안산인 옥산(玉山, 95.6m)이 솟아 있다. 실제 지형의 입장에서 보아도 풍수의 명당 형국을 아주 잘 갖춘 곳에 낙안읍성이 건설되어 있으며, 주산 방향에 북문을 건설하지 않은 동문-서문-남문의 3대문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낙안읍성의 이러한 명당 형국에도 단점이 있었다. 첫째, 주산인 금전산에 비해 옥산이 너무 낮고 작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18에서는 옥산의 모습을 실제보다 더 높고 큰 것처럼 그렸다. 둘째, 좌청룡의 산줄기를 불재 방향이 아니라 향교가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낮은 야

산이거나 눈으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18에서는 향교 방향에 마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산이나 산줄기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 세계적으로 독특한 우리의 전통 도시와 마을 그리고 고지도

풍수의 명당 논리에 따라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산과 산줄기로 둘러싸인 곳에 도시와 마을을 만들고 그것을 가장 권위 있는 공간의 이상향으로 삼은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또한 오랜 역사적 관성 때문에 풍수의 명당이 아닌 곳에 도시와 마을이 계속 있어야 할 경우에도 풍수의 명당 논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한 나라도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시와 마을은 다른 문명권이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입지와 상징 구조를 갖고 있다.

조선의 지도 제작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을과 도시를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산과 산줄기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풍수의 명당터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산과 산줄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는 산과 산줄기를 새로 그려 넣었다. 또한 산과 산줄기가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면 강하게, 너무 강하다고 여겨지면 약하게 자유자재로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다른 문명권이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과 산줄기를 강조해서 그린 독특함을 갖게 되었고,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전국 모든 지역에 그물망처럼 뻗어 내린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우리의 산하를 가장 아름답게 그려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지하 서고에는 대략 28만 책이라는 방대한 양의 고서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963종 3,475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귀중본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종의 국보와 10종의 보물을 비롯하여 시(市)지정문화재 등 총 19종의 자료가 문화재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는 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양도 국내 최대이다. 국가도서관인 만큼 많은 양의 책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28만이나 되는 많은 고서가 모두 종이로 만들어진 책일까? 그리고 도서관에는 정말 책만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가지런히 놓여있는 책 사이사이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보물 같은 자료들을 함께 찾아보자.

### 1. 글씨와 그림

글씨는 글자의 모양 혹은 글자를 쓰는 방법이나 쓰는 일을 의미한다. 최근 아름답고 독특한 글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캘리그래피’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한 캘리그래피는 붓이나 펜으로 쓴 듯 질감이나 필력이 느껴지는 글씨를 의미한다. 캘리그래피는 최근에서야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동양에서는 ‘서화(書畵)’ 혹은 ‘서예(書藝)’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것이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명칭과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아름답고 독특한 글씨에 매력을 느끼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해왔다.

동양에서의 서예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필가나 유명인의 글씨를 모방하고 배우기 위해 탁본(拓本)의 제작도 성행하였다. 주로 비석이나 현판(懸板) 그리고 기타 금석물에 조각된 문자를 본떠 낱장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를 책처럼 만든 탁본첩(拓本帖)을 소장하기도 하였다. 또 직접 쓴 글씨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들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조선시대 왕이나 왕족 그리고 한호(韓濩, 1543~1605)·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같은 명필가의 글씨를 모은 서첩과 탁본류가 소장되어 있다. 우선 왕의 글씨를 살펴보자.

여러 왕의 글씨를 한데 모아놓은 열조어필(列朝御筆)류 가운데 古朝82-48-12의 『열성어필(列聖御筆)』은 조선 태조·문종·세조·성종·인종·명종·선조·원종(추존 왕)·인조·효종·현종·숙종·경종 등 13명의 어필(御筆)을 모아 석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각 왕의 어필 첫 장의 우측상단에 ‘태조대왕어필(太祖大王御筆)’, ‘문종대왕어필(文宗大王御筆)’과 같이 표기되어 있어 누구의 글씨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태조는 안진경체(顔眞卿體)를 구사하는 뛰어난 명필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글씨는 근엄하면서도 단정하다. 문종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치를 보이는 반면 세조의 글씨에서는 남성적인 힘이 느껴진다. 성종은 단정한 글씨체를 송설체에 가미시켜 유려단정(流麗端正)한 조선식 송설체로 발전시켰다. 선조는 중국의 사신들이 갖고 싶어 할 만큼 글씨를 잘 쓰기로 유명했으며,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종은 송설체를 능란하게 구사하였고, 이러한 효종의 서체는 현종, 숙종으로 이어진다. 숙종은 송설체는 더욱 유려하고 획의 유연함을 느낄 수 있고, 숙종의 서풍은 아들 경종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 서첩은 조선시대 주요 왕의 글씨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영조의 어필은 왕의 어필 중 가장 많은 수가 소장되어 있다. 영조가 만년에 쓴 『어제어필(御製御筆)』(古朝52-42-3)과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글씨를 함께 감상해보자.





그림 1. 『어제어필』  
(古朝52-42-3)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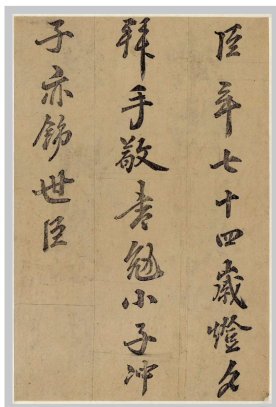


그림 2. 『어제어필』  
(古朝52-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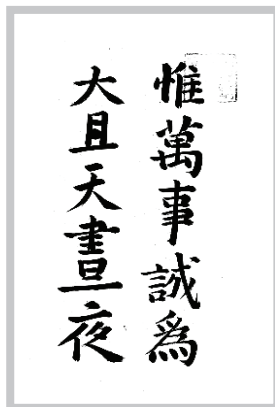


그림 3. 『영조어필』  
(古朝82-138-2)

[그림 1]과 [그림 2]의 『어제어필(御製御筆)』은 영조가 동왕 43년(1767)에 추모(追慕)의 마음과 제신(諸臣)을 면려하기 위해 직접 시를 짓고 글씨를 쓴 책이다. 이 글을 쓴 시기는 내사기(內賜記)에 “乾隆三十二年四月初八日”이라는 날짜와 권말에 “臣年七十四歲”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 영조 나이 74세인 1767년임을 알 수 있다. 면지(面紙)에 쓰인 내사기를 보면 영조 43년(1767) 4월 8일에 부총관 원중회(元重會, 1713~미상)<sup>(1)</sup>에게 1책을 하사하였다고 되어있다. 본문은 “追慕深 勉世臣”이라는 글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선왕에 대한 추모와 세신(世臣)을 책려하는 함을 알 수 있다. 이어 시(詩)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의 내용을 보면 “嗚呼陟降 眷頭弗肖 吁嗟世臣 弗體暮君”이라 하여 선왕께서 불초한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시고, 세신들 또한 자신을 잘 섬기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그림 3]의 『영조어필(英祖御筆)』(古朝82-138-2)의 표지에는 “御筆”이라 제첨(題籤)되어 있고, 첫 장에 “英祖御筆”이라 필사되어 있어 영조의 어필로 보이나, 이것을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필사시기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고, 글씨체로 보아 공들여 쓴 어린아이의 글씨처럼 보인다. 권상일(權相一, 1679~1759)<sup>(2)</sup>이 쓴 『청대일기(淸臺日記)』에 영조 24년(1748) 2월 14일의 기록에는 “금일 서연을 마친 후에 동궁이 친히 글을 지어 공관들에게

(1) 조선 중기 무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여일(汝一)이다.

(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 숙종조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가 되었으며 영조조에 영암 군수와 사헌부장령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청대집』 18권, 『초학지남(初學指南)』·『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소대비고(昭代備考)』·『가범(家範)』·『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과 『일기(日記)』 30여 권이 있다. 죽림정사(竹林精舍)·근암서원(近菴書院)에 향사되었다.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 본 책과 동일한 내용의 글귀가 수록되어 있다.<sup>(3)</sup> 영조 24년인 1748년은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가 동궁으로 있을 때이고 그의 나이 14세였다. 본 어필첩은 영조어필이 아닌 사도 즉 장헌세자의 글씨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내용이 장헌세자의 문집인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 권6에도 수록되어 있다. 『능허관만고』 권6의 「답궁료고사(答宮僚故事)」 부분은 장헌세자가 공부하면서 신하들과 문답한 것들이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

惟萬事誠爲大 且天晝夜不息而成萬物 況人乎 誠卽無自欺也 雖誠不敬可乎哉  
誠敬卽兩翼兩輪徹上徹下之工夫也 誠敬然後 百事可做 可不勉之哉 尺璧非寶良臣寶  
文飾非貴德行貴

모든 일은 진실로 크고, 하늘은 밤낮을 쉬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데 하물며 사람뿐이라. 성(誠)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니 성(誠)을 공경하지 않겠는가. 성(誠)·경(敬)은 두 날개 두 바퀴와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는 공부이다. 성(誠)·경(敬)한 이후에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자의 구슬이 보물이 아니라 좋은 신하가 보물이요, 문식(文飾)이 귀한 것이 아니라 덕행이 귀하다.

비록 몇 줄의 짧은 글귀이나, 성경(誠敬: 정성스러움과 공경하는 마음)에 대한 장헌세자의 마음가짐과 훌륭한 신하와 덕행을 귀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비록 이듬해에 대리청정이 시작되고, 부왕(父王)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며 비극적 생애를 보내야 했던 인물이나, 그의 진실한 초심은 의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의 글씨로는 조선의 왕과 왕족들을 포함해 가장 글씨를 잘 썼다고 평가되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의 글씨이다.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서예가로 알려져 있다. 이용의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낭간거사(琅玕居士)·매죽헌(梅竹軒)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詩)·서(書)·화(畫)에

(3) 今日 書筵罷後。東宮親製親書下宮官。有曰。惟萬事誠爲大。且晝夜不息。而成萬物。況人乎。誠卽無自欺也。雖誠不敬可乎哉。誠敬卽兩翼兩輪徹上徹下之工夫也。誠敬然後。百事可做。可不勉乎哉。尺璧非寶。良臣寶。文飾非貴。德行貴。睿學夙成。如是 宗社。臣民之慶。不可盡言。

모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칭하였으며, 가야금에도 능했다고 전해진다. 조맹부의 글씨체인 송설체를 잘 써 한석봉과 쌍벽을 이루는 서예가였다. 『매죽헌진묵(梅竹軒眞墨)』(古朝21-146)은 금자(金字)로 해정하게 쓴 것으로 금분(金粉)이 퇴색되지 않은 대단히 귀중한 글씨첩이다. 서명(書名)에서 안평대군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한석봉’으로 더 잘 알려진 한호(韓濩, 1543~1605)는 명종 22년(1567)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9년 천거로 사어(司禦)가 되었으며 가평군수 등을 지냈다. 글씨를 잘 써서 국가의 여러 문서와 외교문서를 작성하였고, 연행에도 서사관으로 파견되었다. 이런 석봉을 선조는 특히 아꼈으며, 중국의 왕세정(王世貞)·주지번(朱之蕃)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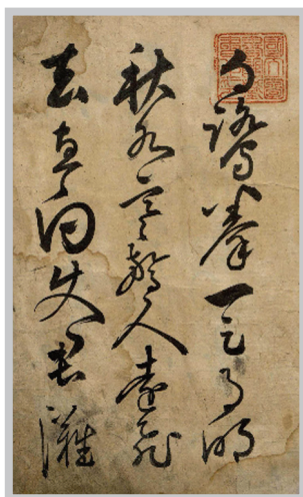


그림 4. 『석봉유법』(古4464-6-32)

그의 서법은 조선 초기부터 성행하던 조맹부의 서체인 송설체를 따르지 않고 왕희지의 안본을 임모해서 배운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원첩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옛 사람의 높고 굳센 기운이 결핍되었다. 또 사자관으로 오랫동안 있어 틀에 맞추려는 듯한 글씨를 만들게 되어 서품이 낮고 격조와 운치가 결여되어 외형의 미만을 다듬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글씨의 짜임새가 좋고 필력도 있어 일세를 풍미했고, 그로부터 국가의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의 특유한 서체가 생길 정도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4)</sup>

석봉의 글씨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석봉유법(石峰遺法)』(古4464-6-32)을 비롯하여, 『석봉서법(石峰書法)』(古445-12-

135), 『천자문(千字文)』(위창古3111-26), 『화담비문(花潭碑文)』(古朝52-31-28-2) 등이 있다.

석봉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원춘(元春)이다. 그는 명성만큼이나 많은 호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그의 호로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예당(禮堂), 시암(詩庵), 노과(老果), 농장인(農丈人),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등이 있다. 순조 19년(1819)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예조참의·설서·검교·대교·시강원 보덕을 지냈다. 헌종이 즉위하고,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였을 때 그는 다시 10년 전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헌종 말년에 귀양이 풀려 돌아왔다. 그러나 1851년 친구인

(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3073a>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일에 연루되어 또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 돌아왔다. 이 시기는 안동 김씨가 득세하던 때라서 정계에는 복귀하지 못하였고, 그의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면서 학예(學藝)와 선리(禪理)에 몰두하다가 생을 마쳤다.<sup>(5)</sup> 비록 많은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지만, 김정희는 예술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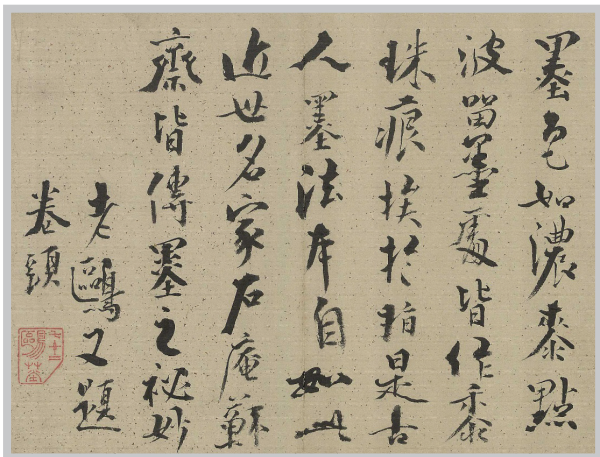


그림 5. 『추사김정희진필서첩』(古朝82-74)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순조 9년(1809) 24세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동지검사은사부사(冬至兼謝恩使副使)로서 연행(燕行)하는 김노경의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연경[북경]에 가게 되었다. 이듬해 1월에 완원(阮元, 당시 47세)과 옹방강(翁方綱, 당시 78세)을 찾아뵈고 사제의(師弟義)를 맺었다. 또한

주학년(朱鶴年), 이정원(李鼎元), 조강(曹江), 서송(徐松), 옹수배(翁樹培), 옹수곤(翁樹崑), 사학송(謝學崇), 이임송(李林松) 등과 교유하여 배우고 많은 진적(真蹟)을 감상함으로써 안목을 높였다. 특히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도사 및 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고서 서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했다.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 조맹부(趙孟頫)·소동파(蘇東坡)·안진경(顔眞卿) 등의 여러 서체를 익혔다. 추사는 말년에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지 않는 자신의 서체를 완성시켰다. 글씨 뿐 아니라 문학과 그림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청나라의 이름난 유학자들이 그를 가리켜 ‘해동제일통유(海東第一通儒)’라고 칭찬하였고, 전각(篆刻)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유명인의 전각을 연구하여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그가 소유한 자신의 전각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어디서는 100개가 넘는다고 하고 또 누구는 200개에 이른다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

(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6. [중봉(中峯)]



그림 7. [칠십이구초  
(七十二鷗草)]



그림 8. [추사(秋史)]



그림 9. [동해한구  
(東海閒鷗)]



그림 10. [천축고선생  
(天竺古先生)]

위의 5개의 인장은 『추사김정희진필서첩(秋史金正喜眞筆書帖)』(貴古朝82-74)에 찍힌 추사의 것이다. 추사의 작품은 글씨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글씨와 함께 찍힌 그의 도장이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전서(篆書)는 조금 낯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림인지 문자인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획을 따라 글자를 추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추사의 인장을 모아 놓은 책으로는 『완당선생인보(阮堂先生印譜)』(古433-11)가 대표적이다. 추사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는 것들로 『완당서심경탁본(阮堂書心經拓本)』(위창古4468-3), 『추사첩(秋史帖)』(古朝82-6-10) 등이 있다.

글씨에 이어서 그림을 살펴보자.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아닌데, 도서관에 무슨 그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류의 초기 도서관에서는 그림과 책 모두를 소장하고 관리하였다. 도서(圖書)라는 말이 ‘하도낙서(河圖洛書)’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림[圖]과 책[書]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친밀한 관계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중 도서관 ‘규장각(奎章閣)’만 하더라도, 왕의 글과 그림 등을 함께 관리하였고 이는 서양의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그림이나 유물만을 따로 관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림과 각종 유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도서관도 많다. 우리도서관에 소장된 서화류는 도서관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지만, 감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먼저 궁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그린 『영종사마도(英宗賜馬圖)』(貴古朝51-나67)와 강화부궁의 모습을 그린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古朝62-178)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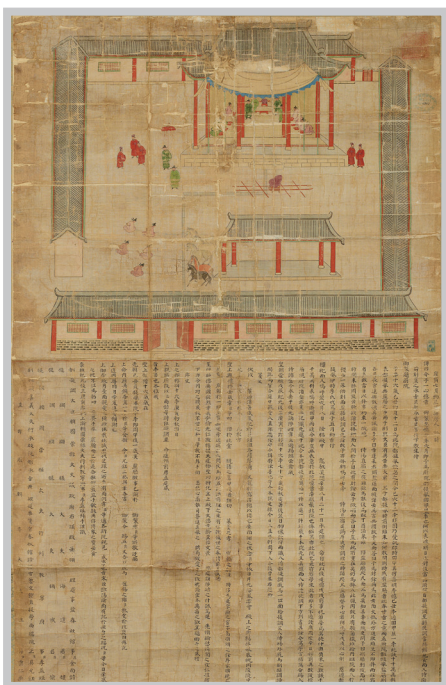


그림 11. 『영종사마도』(古朝51-나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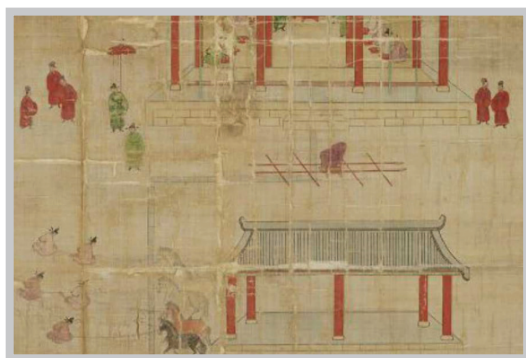


그림 12. 『영종사마도』 확대

『영종사마도』는 영조 46년(1770)에 영조가 사옹원(司饔院)을 방문하여 어제서(御製書)와 구마(廋馬)를 하사한 일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다. 1幅으로 크기는 190.0x105.0cm이며, 전면을 두 단으로 나누어 상단은 그림을 하단에는 글을 수록하였다. 내용은 왕이 지은 어제(御製)와 신하들이

올린 진전문(進箋文)·서문(序文)·좌목(座目) 순으로 작성되었다. 좌목의 내용을 통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 앞에 ‘臣’자를 붙임으로써 이 사마도는 임금이 소장할 어람용(御覽用)임을 알 수 있다.

사옹원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영조는 16세 때 사옹원의 제거(提舉)에 임명되었던 일이 있었다. 60년이 지나 다시 사옹원을 방문하게 된 영조는 과거를 회상하며 도제조(都提調) 김상철(金尙喆)과 제조(提調)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漣), 학성군(鶴城君) 이유(李楡), 이익정(李益炡) 등에게 말을 하사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그림과 글로 남긴 것이다.

[그림 11]을 보면, 사옹원으로 보이는 ‘ㅁ’자 건물이 있고, 중앙에 차일이 설치된 건물이 사연(賜宴)이 열리는 연회장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상단에는 임금의 자리인

어좌(御座)가 보이고, 그 주변에는 수행원들이 그려져 있다. 건물 주변으로 청적의 관복을 입은 신하들이 여럿 보인다. 또한 건물의 앞에는 임금의 가마가 보이고 그 아래로 백·적·흑의 4마리 말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말은 4마리인데 고삐를 잡은 사람은 5명으로 재미있는 모습이다. 비록 당시 화풍에 따라 임금의 모습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어좌와 임금의 가마 등을 통해서 임금이 친히 행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종이가 헐고, 채색된 부분들에 약간의 훼손이 있으나, 그림을 이해하기에 문제는 없다. 투시법이나 원근법과 같이 현대적 회화기법도 사용되었고, 영조시기에 궁중에서 제작된 기록화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貴古朝62-178)는 경기도 강화부의 궁전·묘전(廟殿)을 4폭으로 그려 8분으로 접어 절첩장(折帖裝) 형태로 만든 것이다. 제1폭은 「행궁도(行宮圖)」, 제2폭은 「외규장각도(外奎章閣圖)」, 제3폭은 「장영전도(長寧殿圖)」, 제4폭은 「봉선전도(奉先殿圖)」로 구성되었다. 그림이 그려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강화부궁전고(江華府宮殿考)』(奎 3169, 高宗 18(1881))에 수록된 건물의 상황과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볼 때 『강화부궁전고』의 편찬 전후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화부 궁전이 1866년 병인양요로 소실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강화부궁전고』보다 먼저 그려졌을 확률이 높다.

조선은 수도의 방위를 위해 한성부 주변의 행정·군사적 요충지에 주·부·군·현의 일반적인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 행정 체계인 유수부(留守府)를 설치했다. 태종 13년(1413) 도호부로 승격된 강화부는 광해군 14년(1622)에는 봉선전(태조 영정을 봉안)을 건립하였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 인조 2년(1624)에는 행궁을 건립하였고,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가 강화로 피난을 갔다가 환도하면서 강화유수부로 승격되었다. 인조 16년(1638)에는 유수부 동헌을 개수하였으며, 효종 5년(1654)에는 유수부 이방청을 건립하였다. 숙종 21년(1695) 장녕전, 숙종 39년(1713) 만녕전이 차례로 세워져 조선 궁궐의 모습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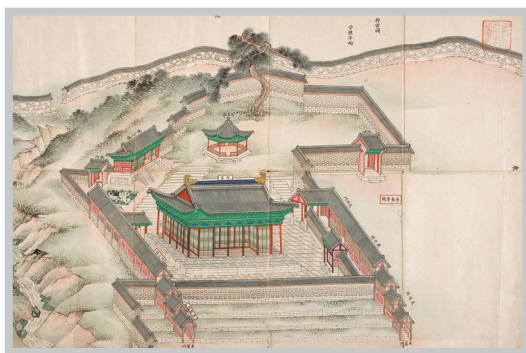


그림 13. 『강화부궁전도』中 「행궁도」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중 「행궁도」는 전면 오른쪽 상단에 '行宮圖'라고 표기해 놓았고, 상하좌우에 4방위도 표시하였다. 중앙에 중심 건물을 위치시키고 지붕 위에 건물의 이름을 쓰고 빨강색으로 테두리를 쳐 눈에 띄게 표시해 두었다. 이러한 방식은 주변 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淸)과의 전란으로 불타 없어진 행궁

을 숙종 31년(1705)에 재건하였고, 숙종 40년(1714)에 유수 김진규(金鎭圭)가 ‘行宮’이란 편액을 써서 걸었다<sup>(6)</sup>고 한다. 행궁의 뒤편에는 ‘척천정(尺天亭)’이 있고 그 서쪽에는 ‘세심재(洗心齋)’가, 그리고 그 옆으로 작은 연못이 있다. 행궁의 동쪽 담장 옆으로 외규장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곧 행궁의 동쪽에 외규장각이 위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외규장각도」에도 서쪽에 행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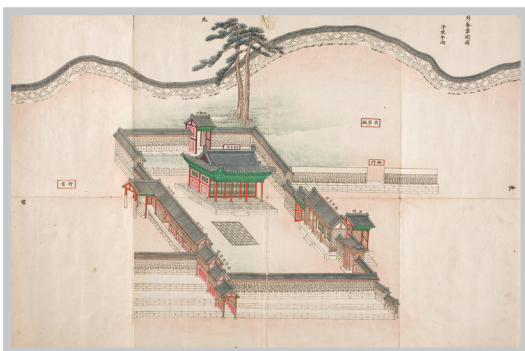


그림 14. 『강화부궁전도』中 「외규장각도」

외규장각은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3칸의 작은 서고(書庫)였다. 정조 5년(1781) 3월에 세워진 외규장각은 당시 강화유수였던 서호수(徐浩修, 1736~1799)에게 명하여 행궁 동쪽과 장녕전 서쪽 사이에 있던 연초헌(燕超軒)을 헐고 건물을 새로 지어 강화부 내책고(內冊庫)와 서울의 의궤 등을 옮겨왔다. 정조는 사고(史庫)에서 보관하던 어제(御製)·어필(御筆) 등도 모두

외규장각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인양요로 300책이 넘는 의궤가 약탈당하거나 수천 권의 책과 문서가 불타버렸다.



그림 15. 『강화부궁전도』中 「장녕전도」

장녕전(長寧殿)은 숙종의 영정을 봉안하였던 곳이다. 장녕전의 위치는 외규장각의 동쪽 뒤편으로 숙종 21년(1695) 영송전(永崇殿)의 옛 터에 창건되었다. 정조 즉위년(1776) 8월 영조의 영정도 만녕전에서 이곳으로 옮겨 함께 봉안하였다. 장녕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신문(神門)’이라 표기되어 있고 신문을 지나면 계단 양 옆으로 ‘명화석(明火石)’이 설치되어 있다. 장녕전 동편

으로 재실(齋室)과 제기고(祭器庫), 향실(香室) 등이 함께 그려져 있다.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인 두멍[豆毛]도 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 윤진영, 『강화부궁전도』 해제.



봉선전(奉先殿)은 세조의 어진(御眞)을 모셨던 곳으로, 광해군 9년(1617) 유학 정충(鄭聰)이 강화(江華)를 행궁으로 삼고 진영을 설치할 것을 상소한 이래, 강화부에 처음으로 지어진 왕실 관련 건물이나,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졌다.



그림 16. 『강화부궁전도』 중 「봉선전도」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는 모두 4폭으로 나누어 제작되어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 건물에 비해 주변에 나무가 더 크게 그려져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에 궁궐을 묘사·채색했던 회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강화부 궁전의 모습을 고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 그림은 『춘궁강학도(春宮講學圖)』(古貴0230-1)로 춘궁은 세자나 태자가 사는 궁을 말한다. 때문에 춘궁은 곧 세자를 일컫는 말로도 쓰였다. 『춘궁강학도』는 제목 그대로 세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왕세자의 입학례 즉 성균관 입학식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 입학례는 학교의례 중 하나로 왕세자가 성균관에 가서 공자의 신위를 모시는 대성전을 참배하고, 성균관 박사의 제자가 됨을 행하는 예식이다. 실제로 성균관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식을 통해 유학을 숭상하는 학생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본 강학도의 주인공공은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로 그가 9세 되던 해인 순조 17년(1817) 3월 11일에 입학례가 치러졌다. 입학의 과정은 「출궁도(出宮圖)」, 「작헌도(酌獻圖)」, 「왕복도(往復圖)」, 「수폐도(授幣圖)」, 「입학도(入學圖)」, 「수하도(受賀圖)」로 구성되었다. 책의 첫장에 행사를 진행하는 문무백관들의 복식에 대한 규정과 배치상태, 왕의 거동의 요령 등 의식의 절차 전반에 걸쳐 기술해 놓았다. 글에 이어 행사의 순서대로 그림이 실려 있고, 그림 뒤에는 시강원에서 세자의 서연을 하던 신하들이 세자의 입학을 축하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글을 쓴 사람은 이만수(李晩秀, 1752~1820)·남공철(南公轍, 1760~1840)·김희순(金羲淳)·김리교(金履喬)·서정보(徐鼎輔)·이헌기(李憲琦)·이종목(李鍾穆)·홍경모(洪敬謨)·김병구(金炳球)·윤응대(尹應大) 등 10인 이다.

그림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출궁도(出宮圖)」는 세자가 궁을 나와 성균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작헌도(酌獻圖)」는 문묘 대성전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게 술을 올리는 모습을, 「왕복도(往復圖)」는 세자가 성균관박사에게 수업을 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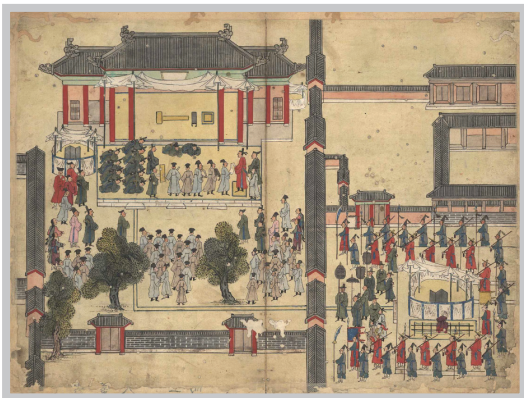


그림 17. 『춘궁강학도』 중 「수폐도(授幣圖)」

학도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세자강학도 가운데 거의 유일한 본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입학례의 전 과정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하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훌륭한 사료(史料)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왕족의 그림이다. 우리에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으로 알려진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은 고종의 아버지이며, 예술가이기도 하다. 이하응은 순조 20년(1820)에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 1788~1836)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20세 전에 부모를 잃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런 가운데에도 뛰어난 정치적 계략으로 궁내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趙大妃)와 연줄을 맺고 그의 둘째 아들 명복(命福: 고종의 아명)을 철종의 후계자로 만들었다. 조대비는 12세인 고종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자신이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다. 흥선군은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으로 봉해졌으며 임금의 아버지로서 국정의 전권을 거머쥐었다. 그는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지만, 서화에도 능하였다. 특히 예서와 묵란화(墨蘭畵)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며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유년시절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에게 글씨와 그림을 배우면서 많은 예술가와 교류하였다. 묵란화에서는 ‘석파란(石坡蘭)’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농담의 변화와 날카롭고 경쾌한 운필을 보이며 한국식 묵란화의 전형을 이루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이하응의 그림 10폭이 남아있다. 『대원군운란(大院君雲蘭)』(古貴0232-3-58)은 채색 10폭 병풍으로 한 폭의 크기는 147.0x47.0cm이다. 마지막 폭에 ‘己卯柳夏六十叟大院君作’이라고 되어 있어, 대원군의 나이 60세인 1879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8]과 한 폭을 확대한 [그림 19]를 살펴보자.

이 병풍에 그려진 석란은 혜란(蕙蘭)이다. 혜란은 이하응이 즐겨 그린 소재인데, 다른 난에 비해 숫자가 많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으나, 꽃이 풍성해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림 18. 『대원군운란』(古0232-3-58)

10폭의 그림에는 시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감상이 배가 되고 있다. 시의 내용은 당나라 안사고(顔師古, 581~645)의 『유란부(幽蘭賦)』에서 취하였다.



그림 19. 『대원군운란』 중 아홉 번째 폭

이 병풍에서는 다른 석란도와 마찬가지로 괴석(怪石)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농묵(濃墨)으로, 위에는 담묵(淡墨)으로 난을 표현하였다. 풍부한 색채와 강한 윤묵(潤墨)의 변화로 바위의 입체묘사가 이전 작품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 석란도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인장(印章)과 사구인(詞句印)이다. 인장(印章)은 음각의 ‘석파(石坡)’와 양각의 ‘대원군(大院君)’이 사용되었다. 사구인은 좋아하는 문구나 명언을 새긴 도장을 말하는데, 이하응의 작품에는 다양한 사구인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약 90여종의 사구인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이 또한 인장 마니아였던 추사의 영향은 아닐까 싶다.

이 병풍은 이하응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그의 화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작된 것이다. 그림과 시구, 그리고

인장까지 여러 각도에서의 감상이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 석란도 병풍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동영상<sup>(7)</sup>으로도 제작되어 있어, 감상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준다. 두려워 말고 감상을 시작해보자.

(7) 동영상원문 : [mms://124.137.58.14/video/KOL000030396.wmv](https://mms://124.137.58.14/video/KOL000030396.wmv)

## 2. 책 만드는 도구

우리나라의 고서는 사람이 직접 붓으로 써서 만드는 사본(寫本)과 여유가 있는 집안이나 관청 혹은 국가에서 목판이나 활자를 사용해 만드는 간인본(刊印本)<sup>(8)</sup>으로 나뉘어진다.

사본은 필사본이라고도 하며, 작자(作者)가 처음으로 쓴 사본은 원고본(原稿本) 혹은 고본(稿本)이라 말한다. 이런 원고본을 바탕으로 거듭 베껴쓰면 전사본(傳寫本)이 되는데, 사본의 제작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효율이 매우 낮은 방식이다. 또한 베껴쓰는 행위가 거듭될수록 내용의 변화가 심해지며,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원고를 자기가 쓴 것처럼 위조도 용이하다.

목판과 활자를 사용한 인쇄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쇄 기술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방법이었다. 때문에 아무나 책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책값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목판본이나 목활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나무이다. 책판의 제조에 필요한 나무는 강도와 탄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무가 마르면 연판(鍊板) 처리를 하고 적당한 크기와 부피로 나무판을 자른 후 책의 내용을 필서한 판하본(版下本)을 써 준비한다. 그리고 이를 나무 판에 뒤집어 붙여 칼로 새겨내면, 책을 찍을 책판이 완성된다. 목활자본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목판본 인쇄를 위한 책판(冊版)은 우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간인본을 만들 때 사용한 인쇄용구와 민간의 목활자는 조금 남아있다. 귀중본으로 지정된 『민간활자 및 인쇄용구(民間活字 및 印刷用具)』(古472-1-12)는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목활자 인쇄에 필요한 활자와 여러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 번호 | 종류       | 수량   | 상세내역  |
|----|----------|------|---|
| 1  | 印書體木活字   | 19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18상자(18개) 中字 20,000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字: 세로 1.0 cm, 가로 0.9cm, 두께 0.7 cm</li> </ul> </li> <li>• 제 19상자(1개) 大字 90여자, 小字 1,200여자, 2葉花紋魚尾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字: 세로 1.3 cm, 가로 1.6 cm, 두께 0.5 cm</li> <li>- 小字: 세로 0.7 cm, 가로 0.5 cm, 두께 0.5 cm</li> </ul> </li> </ul> |
| 2  | 조각칼(彫刻刀) | 2개   | 길이: 25 cm, 17.8 cm  |

(8) 간본(刊本)과 인본(印本)의 합성어로, 목판에 새겨서 찍어내 만든 책은 간본으로, 활자로 인쇄(印出)해 만드는 책은 인본으로 불린다.

| 번호 | 종류         | 수량   | 상세내역  |
|----|------------|------|---|
| 3  | 송곳(錐)      | 5개   | 길이: 19.6 cm, 14.9 cm, 13.5 cm, 13.3 cm, 12.1 cm   |
| 4  | 싯톱(細鋸)     | 2개   | 길이: 17.3 cm, 15 cm  |
| 5  | 대젓가락(竹箸)   | 7벌 반 | 길이: 22-24 cm  |
| 6  | 인판용 대쪽     | 1벌   | 크기: 세로 24 cm, 가로 34 cm  |
| 7  | 계선용 대쪽     | 20여개 | 길이: 19.3-24.2 cm, 폭 0.7 cm  |
| 8  | 각종 죽제용구    |      | 대필통 2개, 대자 1개, 대칼 6개, 통대 1개, 기타 대쪽  |
| 9  | 인쇄용털뭉치(印鬚) | 1개   | 크기: 높이 6.5 cm, 지름 9.8 cm  |
| 10 | 인쇄용 밀랍(印蠟) | 1개   | 크기: 높이 8.5 cm, 지름 10 cm   |
| 11 | 먹술(墨帚)     | 1개   | 크기: 길이 16.7 cm, 너비 22.5 cm  |
| 12 | 먹판(墨板)     | 1개   | 인쇄할 때 먹물그릇 먹물 등을 놓는 판<br>크기: 세로 21.5 cm, 가로 47 cm, 높이 19 cm   |
| 13 | 고리짜(拷桠)    | 1개   | 인쇄도구보존용<br>크기: 세로 21.5 cm, 가로 47 cm, 높이 19 cm   |
| 14 | 인쇄날장류      | 9종   | 오산세고(烏山世稿), 무은유고(霧隱遺稿), 효열록(孝烈錄),<br>동국과환성보(東國科宦姓譜), 조선과환보(朝鮮科宦譜),<br>나주김씨세보(羅州金氏世譜), 청주한씨세보(淸州韓氏世譜),<br>광산김씨가승(光山金氏家乘), 육천속지(浴川續誌) |

1번의 인쇄체목활자는 민간에서 만들어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으로 가지고 다니며 돈을 받고 주로 민간의 문집류(文集類)나 족보 등을 찍는데 사용된 것이다. 이 목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순조 초에서 일제강점기로 약 1세기 반에 걸쳐 부족한 것을 더 만들고 보충하여 책을 찍어 준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편찬한 『문헌보국(文獻報國)』 제8권 1호에 따르면 충청도 모구가(某舊家)에 대대로 전해져 오던 것이다. 이관된 것 중 활자는 “대소이종(大小二種)의 목활자 오만오천자(五萬五千字)”였고, 인쇄용구는 수십 종이였으며, 책을 만들다가 남은 날장류를 모은 것은 30 cm와 40 cm의 두 뭉치로 많은 양이었다.

이후 1986년 보물로 지정될 당시 조사한 바로는 활자의 수가 작은 글자 1,200자, 중간 글자 20,000자, 큰 글자 90여 자로 모두 21,290여 자로 나타나, 애당초 수집된 시기의 약 반 이하만 전해져 40여 년의 시간동안 활자의 유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쇄용구는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각칼, 송곳, 밀랍 등 목활자 인쇄에 꼭 필요한 도구 12종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책을 만들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날장 인쇄물은 9종이 남아 있다.

이 목활자와 인쇄용구는 다른 활자에 비해 조잡하고,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조선후기에 1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호남과 호서지방의 민간도서(民間圖書)를 찍는데 활용되어 지방 인쇄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친 점은 높이 평가되며, 소중한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다.

또 다른 『목활자(木活字)』(古472-2)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203개의 목활자이다. 판심에 사용되는 화문어미(花紋魚尾)가 2개, 큰 글자 150자, 작은 글자 51자다. 이 활자는 어느 지방에서 사용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또 앞의 활자와 달리 계선(界線)이나 인판틀 같은 것들도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활자만 남아있다. 아마도 다른 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활자만 따로 떨어져 전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큰 자의 크기는 1.5x1.0cm 내외로 그 모양이 정연하지 못하고, 높이 또한 1.2cm가 넘는 것도 있고, 0.6cm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작은 자는 1.0x1.0cm 내외로, 높이도 각각이 다르다. 어미의 경우 모두 2엽화문어미인데,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



그림 20. 『목활자』(古472-2)의 큰 자(字)



그림 21. 『목활자』(古472-2)의 작은 자(字)

### 3. 이것도 확인가요?

청구기호 古2511-45-36의 『백자명기(白磁明器)』, 古2511-45-37의 『백자철화묘지석(白磁鐵畫墓誌石)』은 서명만 보아도 웬지 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마치 박물관에만 있을 법한 모양의 두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극소수의 자기(磁器)로 된 자료이다. 백자명기는 형태로만 본다면 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백자철화묘지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을 연상시키는 인류의 전통적인 기록유물임은 분명하다. 백자명기와 묘지석은 묘지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백자명기는 묘지에 죽은 이를 매장할 때 부장품으로 넣은 물건이다.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넣기도 하고, 작은 형태로 만들어 넣기도 한다. 묘지(墓誌)는 죽은 이의 행적이나 무덤이





그림 22. 『백자명기(白磁明器)』(古2511-45-36)

있는 장소와 방향을 글로 새겨 무덤 앞에 묻은 돌이나 도판 또는 거기에 새긴 글을 말한다. 보통 정방형으로 만들어진다. 묘지는 묻힌 이의 집안 계통이나 신분 등 개인 신상은 물론 그 당시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백자명기』는 안홍량(安弘量)의 묘역을 이장할 때 발견된 기물로 안홍량의 후손인 안형주에 의해 기증된 자료이다. 안홍량(安弘量, 1590~161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몽부(夢孚), 호는 취봉(醉峰)이다. 조부는 감사(監司) 안방경(安方慶)이며, 부친은 부사(府使) 안창(安昶)이다. 선조 39년(1606)에 병오식년사마시(丙午式年司馬試)에 진사(進士) 3등으로 합격하고, 광해군 4년(1612)에 통사랑(通仕郎)으로 임자증광문과(壬子增廣文科) 병과에 급제하였다. 성균관(成均館)의 전적(典籍)을 거쳐 삼사(三司)를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능하였고 통정대부(通政大夫) 도승지(都承旨)에 증직되었다. 묘는 남양주(南楊州) 별내면(別內面) 덕송리에 있다.

이 백자기물은 모두 12점으로, 술병과 술잔·향로·그릇·접시 등 제기의 모양을 본떠 작게 만든 부장품으로 기물의 제작 시기는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각 기물의 크기는 모두 가로세로 5 cm 가량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감 같이 귀여운 모습이다.



[그림 23]의 『백자철화묘지석』은 안방경의 조부인 안방경(安方慶)의 묘지문이다. 안방경(安方慶, 1513~156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선응(善應), 호는 구배헌(灸背軒)이다. 중종 35년(1540) 생원이 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 예문관검열·대교(待敎)·봉교(奉敎) 등을 거쳐, 명종 즉위 후 사헌부감찰·예조좌랑·함경도도사·영서도찰방(迎署道察訪)·형조정랑·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에도 교리(校理)·동부승지를 거쳐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이 해에 문정왕후(文定王后)와의 불화로 외직에 나가 청흥도 관찰사를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용인에 기거하면서 거처를 남록구배헌(南麓灸背軒)이라 하였다.

묘지석의 내용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송인(宋寅, 1516~1584)이 지었다. 송인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명중(明仲), 호는 이암(頤庵)·녹피옹(鹿皮翁)이다. 중종 21년(1526)에 중종의 셋째 서녀(庶女)인 정순옹주(貞順翁主)와 결혼하여 여성위(礪城尉)가 되고 명종 때 여성군(礪城君)에 책봉되었다. 송인은 이황(李滉)·이이(李珥)·성혼(成渾)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했고, 글씨에도 능하여 해서를 잘 썼으며 수많은 글을 짓고 썼다. 「덕흥대원군신도비」, 「송지한묘갈」, 「황산대첩비」, 「김석옥묘비」 등이 대표적이며, 이 묘지는 송인의 문집인 『이암집(頤庵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3648-39-33)에 수록되어 있다. 묘지석에는 순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이암집에 수록된 「忠淸道觀察使安公墓誌銘」을 토대로 그 순서와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다.

이 묘지석의 크기는 24.3 x 19.0 cm, 두께는 약 2.0 cm 정도로 원래 10점으로 만들어 진 것이나, 현재 5점만 소장되어 있다. 발굴 당시에 깨진 것을 붙여 복원하였다. 묘지석은 철회백자(鐵繪白瓷)로 만들어졌다. 철회백자는 철화백자(鐵畫白磁)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백토로 그릇을 만들어 낮은 온도에서 초벌구이를 해내고 그 표면에 산화철안료(酸化鐵顏料)로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입혀 번조한 것으로 백자에 다갈색, 흑갈색 계통의 무늬가 나타난 자기를 말한다. 한국에서 백자에 철분안료로 무늬를 입힌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으며, 조선 전기에는 주로 묘지(墓誌)에 쓰였다.

안방경의 묘지석의 글자는 백토판에 글자를 눌러쓰고, 그 위에 산화철을 채워 넣는 상감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백자철화묘지석은 대부분 붓으로 백토 표면에 서사하였다.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자가 흐려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방경의 묘지석은 글자를 점토위에 눌러 쓰고 그 위에 철을 채워 넣고 유약을 발라 구어 시간이 지나도 글자가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다. 글자색은 진한 갈색을 띄고 있다.



그림 23. 『백자철화묘지석(白磁鐵畫墓誌石)』(古2511-45-37)

조선 중기에 백자를 구운 가마터[窯址]로는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비롯하여 용인·천안·괴산·철원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안방경이 치사(致仕)한 후에 용인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 양질의 묘지석을 제조하기에 용이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도서관에 소장되어 관리되고 있는 서화 및 유물 가운데 특색 있고 재미있는 자료 몇 점을 살펴보았다. 이런 자료들은 도서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유물 관리 시스템이나 보존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료의 손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손상이 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의 문제뿐 아니라 이용의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선조들의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나아가 국민들 문화생활 함양에 함께하여, 과거와 현재가 소통되는 문화발전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기능 및 발전 방향

봉 성 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

## 07

### 1. 고문헌의 정의

고문헌(古文獻)이란 고서, 고문서, 고지도, 고서화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용어이다.<sup>(1)</sup>

그 중 고서(古書)는 책자형 옛 도서를, 고문서(古文書)는 낱장의 옛 문서를, 고지도(古地圖)는 옛 지도를, 고서화(古書畵)는 옛 글씨와 그림을 가리킨다. 이 밖에 동아시아에서 고문헌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고본(古本), 귀중본(貴重本), 고전적(古典籍), 고적(古籍), 고간본(古刊本), 고사본(古寫本), 희귀본(稀貴本) 등이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서(古書)’가, 일본에서는 ‘고전적(古典籍)’이, 중국에서는 ‘고적(古籍)’이 고문헌을 가리켜 자주 사용하던 용어였다.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서 고문헌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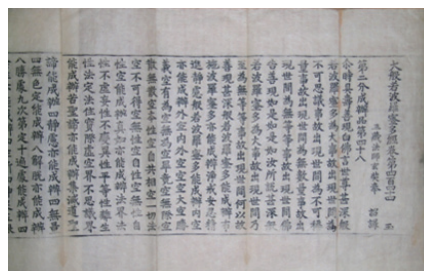
고문헌으로 규정하는 자료의 간행 또는 필사 시기도 한중일 세 나라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의 1910년 이전, 중국에서는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근대국가를 건설한 신해혁명의 1911년 이전, 일본에서는 에도바쿠호(江戸幕府)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근대국가를 건설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1868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고문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4), 29p.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이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고문헌으로 분류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목록규칙』(제4판, 2003)에는 고문헌을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刊印)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라 하고 “다만 그 이후에 간사(刊寫)된 것으로 고서의 영인본(影印本)이나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동장본(東裝本)이란 근대 이전 ‘동양에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만든 책’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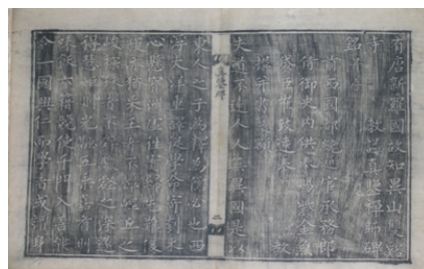
권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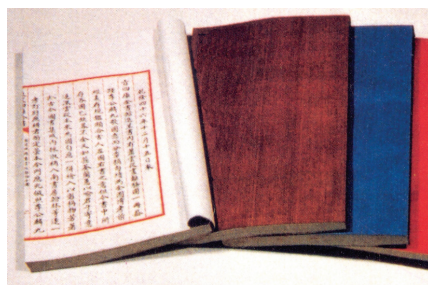
절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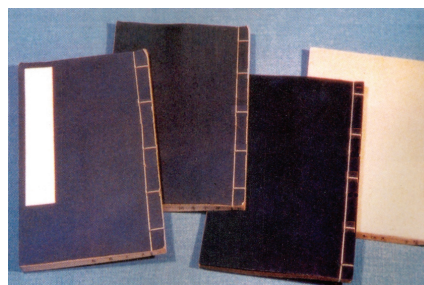
선풍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

그림 1. 동장본의 종류



동장본의 종류로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진 권축장(卷軸裝), 병풍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앞뒤에 표지를 따로 만든 절첩장(折帖裝), 절첩장과 비슷하지만 앞뒤의 표지가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펼치면 회오리바람(旋風)을 일으킨다는 모양의 선풍장(旋風裝), 가운데의 판심 부분을 안쪽으로 접고 풀을 붙여 만들어 펼치면 나비(蝴蝶)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 호접장(蝴蝶裝), 가운데의 판심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고 풀을 붙여 만든 포배장(包背裝), 가운데의 판심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고 풀을 붙이는 대신 줄(線)로 묶은 선장(線裝) 등이 있다.<sup>(2)</sup>

인간은 역사시대 이전에는 몸짓과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역사시대에 들어서고 나서 초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점토판, 이집트 문명권의 파피루스, 인도 문명권의 나뭇잎(貝葉), 지중해 문명권의 양피지, 황하 문명권의 대나무(竹簡)나 나무판(木簡, 木牘) 등에 기록하였다. 중국 전한 말기인 서기 105년에 채륜(蔡倫)이 종이를 개량하여 다량으로 생산함에 따라 기록문화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져 고문헌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 2. 우리나라 고문헌 현황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1966년 10월 13일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자 몸돌(塔身) 안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제 사리의함에서 목판본의 불경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발견되었다. 석가탑이 74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봉안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의 동양문헌실에는 우리가 줄여서 ‘직지(直指)’로 부르는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鈔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소장되어 있다. 쿠텐베르크가 활자인쇄술을 발명하여 1455년에 간행한 ‘42행성서’보다 78년 빠른 1377년에 간행되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을 갖고 있고, 가장 이른 시기에 금속활자본을 생산한 나라답게 풍부한 고문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고문헌은 국내에 428만여 점과 국외에 10만여 점이, 목판은 국내에 22만여 장이 기관과 개인에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2) 선풍장 사진은 NAVER에서, 포배장과 선장 사진은 박문열, 《문헌문화학의 이해》에서 발췌함



있다.<sup>(3)</sup> 그 중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이 중심이 되어 2004년에 창립한 고문헌 소장기관의 협의체인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韓國古典籍保存協議會) 40개 회원기관의 소장 고문헌은 231만여 점으로 전체 추정치의 53.7% 정도다.

우리나라 최대의 고문헌 소장처 중 하나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체 추정치의 6.5%인 28만여 책(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국보 2종과 보물 9종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963종 3,475책을 귀중본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본과 중국의 고문헌도 각각 52,548책과 34,924책을 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문헌 주요 소장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지정문화재에 대해 살펴보면, 국보로 지정된 고서는 2종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이다. 404년 전에 목활자로 간행된 『동의보감(東醫寶鑑)』(25권 25책, 1613)은 허준(許浚, 1539~1615) 선생 평생의 역작으로 국보 제319-1호로 지정되었으며, 동양 최고의 의학서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1책, 1412)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처음으로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인출한 희귀본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148-2호로 지정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고서는 3종을 소장하고 있다. 662년 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동인지문사록(同人之文四六)』(1책, 1355)은 시기가 오래된 고려시대의 판본이란 점을 인정받아 보물 제710-3호로, 570년 전에 간행된 『석보상절(釋譜詳節)』(4책, 1447)은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본 중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받아 보물 제710-3호로, 409년 전에 허준 선생이 편찬한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1책, 1608)는 한글로 번역된 산부인과 계통의 의서 목판본이란 점을 인정받아 보물 제1088-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에서 활자본을 간행할 때 국가는 금속활자로, 민간에서는 주로 목활자를 사용하였다. 금속활자에 비해 목활자는 제작이 간편한 반면 쉽게 마모되고 보관이 어려워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민간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목활자와 인쇄용구 19상자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희귀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1986년에 보물 제865호로 지정되었다.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조선에서는 후세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행사 과정, 소요 경비와 인원, 주관자에 대한 포상 등 모든 것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것을 의궤(儀軌)라고 부르는데, 2016년에 의궤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우리나라의 12곳에 소장된 573종

(3) 박문열,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 기초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10p.

2,751책을 일괄적으로 보물로 지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전주의 조경단(肇慶壇), 삼척의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를 수리할 때의 의궤 2종 3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제1901-5호로 지정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고지도는 4종이다. 『목장지도(牧場地圖)』(1첩)는 1678년에 20,213마리의 말, 895마리의 제사용 소, 5,178명의 목동을 아우르던 138개의 목장을 아름다운 그림식 지도로 그려낸 희귀본이어서 보물 제1595-1호로 지정되었으며,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1장)는 1700년대 전반에 청나라와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여 만주와 우리나라 북부 지역을 함께 그린 대형 군사지도라는 측면에서 예술성 및 희귀본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537-1호로 지정되었다.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3책)는 1770년 영조 임금의 명을 받은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20리 간격의 가로세로 눈금선을 그어 정확하게 제작한 대축척 전국 고을지도책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편집한 유일한 완질본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593호로 지정되었다. 『청구도(靑邱圖)』(2책)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 제작자 김정호(金正浩, 추정: 1804~1866)가 네 번에 걸쳐 서로 다르게 제작한 대축척 대중 지도책 중 마지막 작품으로 보존 상태가 좋고 색감과 글씨 등이 훌륭하여 보물 제1594-1호로 지정되었다.

### 3. 고문헌과(古文獻課)가 되기까지

#### 1) 고전운영실 신설 및 정착 단계(1992~2006)

1992년 9월 18일, 고문헌의 수집을 담당하던 자료조직과의 고서계와 고문헌의 이용을 담당하던 열람봉사과의 고전자료실을 통합하여 고문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전운영실을 자료조직과 안의 독립적인 계로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전운영실의 고문헌 업무를 총괄하는 별정 5급의 고서전문원을 처음으로 선발하였다. 개실 때의 고전운영실은 별정직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등 4명의 고서전문원과 사서직 2명, 기능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전운영실 개실 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문화재적 가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별정직 고서전문원을 2006년에 2명을 충원하여 고서전문원은 총 6명이 되었다. 인력 증원과 함께 고전운영실의 체계가 새롭게 정착되고 고문헌 관련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였다.

먼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고문헌의 기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 및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일본을 발굴하여 국역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발행하다 중단된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는 2003년부터, 『고문서해제』는 2006년부터 매년 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 자료의 원본 보존과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원색 이미지의 복제본 간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5~2008년까지 『해동여지도』(3책) 및 자료집 간행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국보 『석보상절』과 18첩 필사본의 유일본인 『대동여지도』 등 총 17종의 복제본을 간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 고문헌 전체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한국고전적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받아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을 개발하여 서지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고문헌 소장기관의 자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2) 고전운영실 성장 단계(2007~2016)

2007년 5월 22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연구소가 신설되었고, 9월 19일에는 자료기획과 소속 고전운영실과 주제정보과 소속 자료보존실을 도서관연구소로 이관 통합시켰다. 이에 도서관연구소에서 도서관 관련 연구 기능과 함께 고전운영실(고문헌 열람 업무), 자료보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성격이 다른 3개 팀이 도서관연구소를 구성함에 따라 고문헌에 대한 고전운영실 업무가 반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더불어 고서전문원을 2009년에 2명을 충원하여 고서전문원은 총 8명이 되었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업무를 확대·개발하여, 우리말 지명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업무로, 2007년부터 민간에 소장된 고문헌을 발굴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서지사항의 목록집을 간행하였으며,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시작하였다. 간행된 목록집과 이미지는 소장자에게 모두 제공하여 도난 위험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에 개최한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의 특별전을 시작으로 고문헌 상설전(연 4회)과 비정기적 특별전 개최를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고문헌 소장처이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높여 왔다. 특별전의 경우 2009년의 한국한의학연구원, 2012년의 순암 안정복(1712~1791) 가문, 2014년의 주한 이

탈리아대사관 등 국내외 관련 주요 기관과 함께 전시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연구 교류의 장으로도 기능하였다.

2010년 7월 26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과의 학술적 교류 증진을 위해 제1회 한일 고문헌연구교류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부터 연례행사로 정례화 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국가도서관의 고적관 등 고문헌 소장 주요 외국기관과의 국제 교류로 확대시켜 나갔다. 사라져가는 우리말 지명을 되찾기 위해 2010년부터 연구총서의 형식인 지명연구 총서를 간행하고 있다. 2010년 『고지도로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경기, 충청(1)·(2), 전라(1)·(2), 경상(1)의 순서로 발간하였다.

2011년부터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연 4회)를 시작하여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인 대중강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또한 고문헌 상설전시 또는 특별전시와 고문헌강좌를 연계 개최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를 배가시켰다. 2015년의 경우 규남 하백원(1781~1845) 가문에서 948종 955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한 것을 기념하여 상설전과 고문헌강좌를 연계 개최하여 우리나라 고문헌의 총체적 관리를 담당한 국가대표도서관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였다.

### 3) 고문헌과(古文獻課)의 신설(2016.9.29.)

우리나라는 인쇄문화 분야에서 세계의 강국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금속활자본도 소유하고 있는 등 풍부한 고문헌들이 있다.

우리나라 고문헌은 국내외에 460만여 점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쇄문화 강국답게 전통지식문화유산을 통합하고 한국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 및 통합 DB 구축 등 그 역할 확대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6년 9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에 과단위의 조직인 ‘고문헌과’가 탄생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프랑스국립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프랑스국립도서관 내 한국고문헌을 전수 조사하고 원문이미지는 전자도서관(GALICA)과 연계하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고문헌과는 고문헌 관련 기관 간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 체계를 확장하고 국민의 지적 욕구와 정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가문화발전의 토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이후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소장된 국가 기록문화유산의 종합목록 및 표준화된 일원적 통합관리 서비스 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영토영해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독도문제 등 관련 연구도 지원해나갈 것이다.

한편, 국외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록문화 유산을 한국학 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발굴조사하여, 국가문헌을 확충하고 기록문화유산의 통합 운영을 통해 체계적 보존과, 연구, 이용 등 효율성 제고 및 문화콘텐츠 산업 개발로도 연결하여 한국학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 고문헌의 구입, 수증, 수탁은 기본 업무로서 지속할 것이며, 해외 소재 우리나라 고문헌 조사 및 디지털화 수집, 국외소재 한국고문헌 조사보고서 간행 업무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4. 고문헌과(古文獻課) 업무

### 1) 고문헌 이용 및 보존 업무

#### ① 고문헌실 및 지도자료실 운영

고문헌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서 중 족보를 중심으로 직접 와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실이다. 최근에 편찬된 양장족보와 참고문헌은 개가식으로, 원본의 영인본과 마이크로필름은 신청과 함께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폐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향온향습이 완벽한 서고에 별도 비치되어 있는 고서 원본과 희귀 복제본은 신청 3일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지도자료실은 지도 및 영토·영해 관련 참고 자료 등을 비치해 놓고 있다. 특히, 영토·영해 코너를 설치하여 시각적 또는 상세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코너를 마련해 두고 있다.

#### ② 원문이미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어디서든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고문헌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은 원본의 보존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원문 이미지의 인쇄도 가능하여 화면으로 보는 불편함을 보완하고 있다.

#### ③ 촬영협조 및 전시대여

책의 출판, 신문 게재, 방송 프로그램에 고문헌을 활용할 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원본의 이미



지를 필요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증가되고 있는 박물관·도서관의 전시행사 때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복제본을 관람자들에게 제공해야 전시의 진정한 의미를 성공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용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방송국 등에 촬영협조 및 전시대여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④ 해제 및 전문 이용 상담

일반도서와 달리 고서는 제목이나 목차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첫째, 종별로 고서의 기본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문을 작성·교정하여 홈페이지의 상세정보에 업로드 시키는 해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고서를 찾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해제집 및 연구서 발간

유일본이나 희귀본을 중심으로 분야별 주요 고서의 정보만 정리한 『선본해제(善本解題)』와 고문서의 상세한 설명과 이미지를 수록한 『고문서해제(古文書解題)』를 연차적으로 발간·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관내에서 연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총서의 형식으로 간행하고 있다.

#### ⑥ 고문헌 전시

고문헌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열람자에게 개별적으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고문헌 원본 속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이용 업무로써 전시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연수·회의·학술대회 등 각종 계기를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지식체계의 보고인 도서 생산 문명국으로서의 찬란한 역사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공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⑦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

국민들에게 고문헌 원본 속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를 2011년부터 매 분기마다 1회씩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 ⑧ 소장 문화재 및 귀중본의 복제본 제작

열람·촬영·전시대여 등의 이용 수요가 많은 문화재나 귀중본 고서에 대한 보존과 이용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원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복제본을 제작하여 개인 및 기관의 이용 수요에 제공하고 있다.

## ⑨ 고문헌 포갑, 배접, 마이크로필름 및 복제본의 제작

고문헌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보호대 역할을 하는 포갑의 제작, 훼손 자료의 보전처리인 배접, 내용만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원본 이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마이크로필름과 복제본의 제작 등 원본의 보존과 이용의 기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고문헌 수집 및 정리 업무

### ① 구입(購入)

일반도서와 달리 고문헌은 희귀성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모든 고문헌을 구입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고문헌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 문화재로써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라는 두 가지 큰 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입한다.

### ② 수증(受贈)

전국적으로 개인·문중·서원·사찰 등 민간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문헌이 분산 소장되어 있는데, 도난 위험과 고가의 보존비용으로 인해 자료의 훼손과 멸실의 우려가 높다. 이에 소장자 및 소장기관에 대한 꾸준한 조사와 접촉을 통해 고문헌 소장 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의 기증을 활성화 시키는 수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③ 복제본·마이크로필름·이미지파일 제작 및 수집

구입과 수증을 통해 국내외의 기관 및 민간에 소장된 엄청난 양의 고문헌 원본을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소장 자료의 경우 원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제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국내 다른 기관 소장 자료의 경우 마이크로필름을 제작·수집·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수탁(受託)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문헌 소장 개인·단체·기관의 요청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기탁(寄託)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맡아 보존해주는 수탁(受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⑤ 민간 소장 고문헌 발굴사업

개인·문중·서원·사찰 등 국내의 민간 부분 고문헌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소장 고문헌을 조사·분류·정리하여 목록집을 만들고, 고문헌의 모든 면에 대해 촬영하거나 스캔을 받아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소장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지사항 및 이미지 파일을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 ⑥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운영

국내외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고문헌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박물관 등 국내 65개, 국외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장기관의 참여와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의 사무국을 또한 운영하고 있다.

#### ⑦ 고문헌 관련 학술대회와 연구교류행사 및 교육

고문헌 관련 국내 연구자, 학회, 소장기관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고문헌 소장 외국 도서관 등과의 연구교류행사를 정기·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문헌의 학술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량의 고문헌을 소장한 다수의 국내 기관과 해외 한국학 자료실에 전문 담당자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문헌 이해 및 서지사항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방문 및 초청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 ⑧ 고서위원회 운영

고문헌의 문화재 및 귀중본 지정, 구입 감정평가회의 그리고 고문헌과 관련한 업무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고문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서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주관하고 있다.

## 5. 고문헌과(古文獻課) 승격과 중장기 발전 방향

### 1) 고문헌과(古文獻課)로의 승격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설립 및 운영의 제1목적이 국내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온라인의 완성형 지식 자료를 망라적(網羅的)으로 수집·정리하여 영구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문헌의 경우 이미 고가(高價)에 거래되고 있어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문화재로 인식되어 소장처 또는 소장자가 거래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망라적 수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고문헌을 조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보존하면서 국민들에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담당 부서인 고전운영실이 고문헌 관련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6년에 도서관연구소 산하의 계(係)로 있던 고전운영실을 서기관 과장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7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 등 총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고문헌과(古文獻課)로 승격시켜 고문헌 관련 업무에 대한 독립적 운영의 폭을 높였다.

고문헌은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후대에 전승될 기록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고문헌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고문헌에 대한 국내외 조사, 수집, 연구 등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고문헌 관련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고문헌과는 앞으로 ‘기록문화유산의 보고에서 창조적 지식문명 센터’라는 비전을 갖고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이다.

고문헌과(古文獻課)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핵심 추진과제 ‘국가 기록문화유산의 통합 운영’, ‘국내외 고문헌 온·오프라인 수집 강화’, ‘고문헌 학술 연구’, ‘고문헌 홍보 및 교육 기능 선진화’, ‘고문헌 콘텐츠 활용 강화’, ‘글로벌 고문헌 교류 협력 확대’ 등을 중장기목표로 정하고 수행에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문헌 관련 한국학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기록문화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장기 목표

### ① 국가기록문화유산의 통합운영

첫 번째로 ‘국가기록문화유산의 통합운영’이다. 국내의 주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서원, 향교, 사찰, 문중, 개인, 고서점 등에 전해지고 있는 고문헌의 산재량(散在量)은 고서 약 321만 책, 고문서 약 107만 점, 목판 22만여 장으로 도출(導出)되었다.<sup>(4)</sup>

한편 국내가 아닌 국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고문헌은 10만여 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 밝히고 있는 국외 유출 한국문화재는 168,330점(2017.4.1.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악되지 않은 고문헌을 모두 포함한다면 그 수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흩어져 있는 한국의 기록문화 유산에 대해 정확한 소장처뿐만 아니라, 자료명도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디지털파일로 수집하고, 소장 사항과 함께 서지 및 원문이미지 파일을 구축 통합하여 국가장서로 확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기록문화유산의 이동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학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쉽게 있는 자료마저 유출(流出)되거나 유실(流失)될 가능성이 많다.

유실 및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고문헌 총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 고문헌 디지털 정보구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한국고문헌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클라우드 기반 ‘표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18세기말에 《사고전서》 같은 표준정보를 구축했다. 한국에서도 표준정보 대상자료를 선정하여 표준정보(서지, 원문, 텍스트, 해제 등) 구축으로 기록문화에 대한 한국학 문화중흥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sup>(5)</sup>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2005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써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모바일 원문서비스까지 확대 실현하고 현 IT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4) 박문열,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 기초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10p.

(5) 2017년 6월 현재 국내는 규장각 등 65개 기관, 국외는 하바드대학교 옌청도서관 등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지목록DB 약 44만 건과 원문이미지DB 4만 건 등을 탑재한 대한민국 고문헌 최대 종합목록 시스템이다.





그림2.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과 검색된 이미지 화상(가곡원류)

한편, 한국고문헌의 영구적 보존과 함께 활용을 위해서 2004년도에 창립한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 그 동안 협의회 소속기관이 돌아가면서 회장기관을 맡아 왔으나, 내실을 위해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고문헌과장이 사무국장을, 총무는 학예연구관이, 간사는 학예사가 맡았다. 현재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40개 회원기관에 고문헌을 소장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인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고문헌 목록, 보존, 활용 등 공통 주제에 대해 표준화를 마련하고, 보존 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각 회원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고문헌의 영구 보존과 공동활용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등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② 국내외 고문헌 온·오프라인 수집 강화

국가대표도서관은 망라적(網羅的) 수집을 근간으로 보존의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문헌은 고가(高價)의 수집 비용 때문에 선별적 수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외 고문헌 온·오프라인 수집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행할 것이다.

수집방법으로 오프라인 수집과 온라인 수집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 수집방법으로는 매도자로부터 고문헌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다.

일반도서와 달리 고문헌은 생산이 중단된 희귀성(稀有性) 때문에 매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일반도서와 같이 망라적으로 모든 자료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연구될 가치가 높은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또한, ‘수증’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법이다. 전국적으로 개인·문중·서원·사찰 등 민간 부분에 많은 고문헌들이 분산 소장되어 있는데, 도

난의 위험과 보존비용으로 인해 자료의 훼손과 멸실의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소장자 및 소장 기관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탁 및 기증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기증을 통해 들어온 고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설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개인문고 심의를 통해 개인문고로 지정한다. 개인문고로 설치되면 10년간 개인문고실에 별도로 운영 관리되는데, 직원들은 기증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증자의 별칭기호를 청구기호에 부여하는 등 국가대표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필요에 따라 기증자료 연구와 더불어 학술대회나 전시 등 행사를 통해 당사자나 연구자 및 국민들 누구나 기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위탁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의 민간 기관 등에 소장된 모든 고문헌을 구입·수증·영인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장자에게는 도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위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수탁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문헌 소장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수탁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맡아 보관해주는 수탁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수탁제도는 기증과 달리 소유권은 기탁자에 있어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해주는 제도로써 위탁서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원본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원본자료를 영인하거나 디지털파일 등의 온라인 형태로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국외 39개 기관으로부터 한국고서와 고문서를 종이 혹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하거나 디지털파일로 수집했는데, 2016년 말 현재 총수량은 4,532종 14,524책(점)이며, 이 중 디지털파일로 수집된 것은 1,713종 4,345책(점)이다.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고문헌 원본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디지털 파일 등으로 수집해 나가는 방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외에 유출된 고문헌은 국내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서인(藏書印) 등 소장인(所藏印)이 제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많아 유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수집해야 한다.

### 3) 중단기 목표

#### ① 고문헌 학술 연구

중단기 추진과제 중 첫 번째 목표는 '고문헌 학술 연구'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고문헌 해제 및 연구', '고문헌 학술연구 교류회 활성화'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 고문서 가운데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해제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학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연구자료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자료 축적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연구 교류회를 통한 국가 간 고문헌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외에 소장된 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고문헌의 수량 및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고문헌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문헌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과거의 기록물이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된 유일본과 자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국고전적국역총서》라는 총서명으로 국역총서를 13집까지 발행했는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나갈 계획이다.



그림3. 한국고전적국역총서

마지막으로, 국내 고문헌 학술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지식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학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② 고문헌 홍보 및 교육 기능 선진화

고문헌은 주로 어려운 한자로 구성된 기록물이며, 한글로 이루어졌더라도 옛날 글자이고 또한 문화재적 가치로 취급하여 보존에 우선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접근조차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문헌 홍보 및 교육 기능 선진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며, 세부추진과제로는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 ‘고문헌 교육기능 확대’, ‘고문헌 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기능별 공간 활용 개편을 위해서는 위탁 및 기증 기념코너를 설치하고, 고문헌 등 문화재의 전

시와 보존에 적합한 조명 및 온습도조절 기능이 완비된 전시실 확충으로 품격 높은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코너를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4.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발간도록

5층의 지도자료실은 국토실, 독도실, 동해실, 기획전시실 등 영토영해코너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영토영해코너에는 예약 관람운영 및 전문해설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문헌 교육 기능 확대 측면에서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 강좌’ 및 ‘국민과 함께하는 영토 영해강연’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고문헌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신설하여 고전 강독 프로그램과 주제별 고문헌 전문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림5. 이야기로풀어가는 고문헌강좌 및 영토영해 강연 자료집



보통 도서관에서는 고문헌 담당사서 없이 일반사서가 다른 업무와 고문헌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서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가장 기본적인 고문헌 보존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고문헌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는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문헌이 활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고문헌 콘텐츠 활용강화

고문헌과(古文獻課)에서 운영하는 고문헌실을 족보자료실과 전문연구자료실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전문정보 수요에 따라 맞춤형정보서비스 및 고문헌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상담 등을 통해 연구활성화를 촉진해나가기 위한 ‘고문헌 콘텐츠 활용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추진과제의 하나로 ‘고문헌 무료 상담서비스 코너’ 설치를 통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고문헌 발굴에 힘을 쓸 것이며, 더 나아가 필요한 자료는 디지털화나 위탁보관 등을 유도하여 국가문화재 및 기록문화 확충에 힘을 쓸 계획이다. 또한 고문헌 활용 다변화를 위해 박물관 및 방송, 출판사 등 전시대여나 촬영 관련 전문 상담을 통해 적극 권장 하고, 원본자료의 영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인본 제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④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

국제화 시대에 맞게 한국기록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구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고문헌 교류·협력 확대’를 목표로 국제단체 등과 협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 한국고문헌 워크숍 개최’, ‘한중일 고문헌 연구교류회’, ‘국외 학술단체 참석 및 학술발표’, ‘국외한국문화재단지원 유관기관협의회’ 활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등재 추진’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한국학 관련사서나 한국인 사서들이 도서관 등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고문헌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고문헌은 특성상 문자가 한자로 된 경우가 많아 중국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고문헌에 대한 기초적 이해뿐만 아니라, 고문헌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을 통해 국외에 유출된 한국고문헌에 대한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현황 소장처 파악 등으로 한국고문헌의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중국고문헌 3만 5천여 책 그리고 일본고문헌 5만 3천여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한일 간 또는 한중 간 연구교류를 한다거나 한중일 연구교류를 통해 중국과 일본내 유출 한국고문헌에 보다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져나가고, 삼국 간 서지학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첨병역할의 근간을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미아시아학회(AAS), 유럽한국학회(AKSE), 세계고지도협회(IMCoS) 및 학술발표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나갈 계획이다.

국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문화재를 발굴하고 해당 국가에서 전시 등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협의체<sup>(6)</sup>를 지난 2009년도에 조직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각 기관별로 국외문화재 관련 사업 등을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문화재가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관 단체 및 기관 간 협력연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자료를 발굴하고, 등재 추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것이며, 그 대표적인 자료로는 연행록, 한국족보 등이 있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인 동시에 문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지식정보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며 콘텐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사회의 문화흐름은 상상을 초월하여 글로벌화 되어 갈 것이며,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기기의 발전과 함께 고문헌분야에서는 더디지만 깊이 있게 문화 창조의 모태가 되고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고문헌의 중심축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과(古文獻課)가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6) 국외한국문화재지원유관기관 협의회, 2009년 9월 창립,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2017년 기획대담

## II

08 \_ [고문헌과에 바란다] 기록문화유산, 후대에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 144

[고문헌과에 바란다]

## 기록문화유산, 후대에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2017.8.17.)

08



사회 :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패널 :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김현영(前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정제규(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박병주(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옥영정** 2016년 9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대담이 고문헌과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지속해야 할 것 등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담에서 논의할 여섯 가지 논제를 미리 제시하였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고문헌 연구자를 위한 고문헌과의 역할과 두 번째 고문서정리와 고문헌과의 역할, 세 번째 문화재급 고문헌과 우선 선정대상으로 삼아야 할 자료의 발굴 방식, 네 번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국외 고문헌에 대한 고문헌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섯 번째로 고문헌 위탁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마지막으로 고문헌과의 중장기 실행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외에 함께 다루어야 할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국립중앙도서관의 대국민서비스 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고문헌과도 그 중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문헌은 주로 전문가가 많이 보는 자료로 고문헌과 신설 이전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한 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제규** 고문헌과의 신설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고문헌에 대해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종이 없는 도서관을 지향하는 디지털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고문헌과의 지향점은 종이문화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식**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고문헌 자료를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만 고문헌과나 그 이전의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앞서 김현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헌과 설치 이전에는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지 짚어본 후에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병주** 고문헌과 이전에는 고문헌과 관련된 업무를 보존업무와 함께 도서관연구소에서 수행하였고, 작년 9월에 직제개편으로 과(課)로 승격되었습니다. 고문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문외한이지만 고문헌과가 예전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헌과의 신설로 인해 타기관이나 민간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에 대해 수집 및 이용 방법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옥영정** 도서관의 자료관리 부분은 크게 수집, 정리, 이용의 3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문헌도 마찬가지로 수집, 정리, 이용, 더 나아가 보존까지의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가,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제의 첫 번째로 고문헌 연구자를 위한 고문헌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수집 분야에 대한 것으로 고문헌과에서 현재 고서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주** 고문헌과에서 수집하고 있는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소장 고문헌은 매년 초에 구입공고를 낸 후 내부검토를 거쳐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입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중 소장 등의 민간소장 자료는 기증을 받기도 하고 또는 디지털화하여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자료는 소장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옥영정**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입, 기증, 디지털화로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수집 방식에 대해 개선점이나 새로운 수집방식 등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현영** 국립중앙도서관에는 28만 여건의 고문헌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새로 증가되는 자료는 약 700여 점으로 그 동안 수집기능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장되어있는 자료를 잘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 기능이야말로 국립중앙도서관고문헌과의 중요한 기능이라 사료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다른 곳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으나, 중점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곳에서 수집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영정** 고문헌자료의 기증이나 기탁은 개인이나 문중에 한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자료는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하는지요? 디지털화한 후에 자료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요?

**박병주** 기증이나 기탁을 꼭 개인이나 문중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소장 기관들은 요구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큰 성과를



언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증이나 위탁된 자료는 주로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영정** 기탁이 활성화되는 것도 수집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탁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신속히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제규** 수집은 고문헌과의 본연의 기능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수집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주어진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의 구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발굴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예를 들어 전시나 학술대회 등을 미리 기획하여 이와 연계하여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중이나 개인의 기증 또는 기탁의 경우, 전시나 도록 편찬 등의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되돌려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기증·기탁 기간의 최저시한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문식** 예전에 옥 교수님께서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서적의 손상이 심각하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원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문헌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개인 소장이므로 기증, 기탁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옥영정** 기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중이나 서원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더불어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들에 대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현영** 고문헌 수집에 대해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예산을 늘려서 양질의 고서 구입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제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획수집은 이상적인 수집방안으로 보이나 실은 어떠한 고문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수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서원자료, 향교자료, 사찰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옥영정** 자료구입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수집의 목표가 가장 선본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문헌 정리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경향이 폭 넓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식사회학을 포함하는 책의 유통, 독서문화사 등으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서지목록의 항목개발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서와 관련해서는 장서인이나 종이의 지질, 구결자료 등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기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서지 목록작성은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를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역할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계해본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문식** 서지목록은 규장각에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자료의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됐고, 또 자료를 사료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문헌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전에 비해 서지목록에서 요구되는 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되는 목록들은 대부분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연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규장각에서는 수년 전부터 연구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목록양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목록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 양식을 새로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목록 양식의 표준안이 있고 각 기관에서는 표준안을 자료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한다면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준안 작성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영정**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사료로 이용하는 것보다 문헌자체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많이 늘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목록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현영** 자료의 정리를 등록과 목록, 나아가 해제까지로 본다면,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지질이나 장서인 판독까지 너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장서인의 유무 정도

를 기술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나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제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해제를 하는 경우 좀 더 심화된 목록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영정** 과거에도 고문서의 목록 작성에 대한 논의에 항상 해제를 기반으로 한 목록작성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충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제규** 원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향점이 연구자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서비스인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서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는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으로 서지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 빈도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서지를 어느 집단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이 각기 달라서 검색시스템의 표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할 중심 기관의 역할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정** 통합을 염두에 둔 검색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해제나 서지는 수준별, 단계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서인을 예로 든다면 이미지를 목록에 연계하는 방법은 어떨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지목록의 수준문제는 주제별로 각기 상세하게 구축해야 할 부분이 달라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족보와 문집의 체계는 다르므로 주기사항의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병주** 서지구축의 최종적인 목적은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소장자료의 서비스를 위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검색 방식 등을 통일화하는 것이 고문헌과의 역할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영**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자료에 대한 접근장벽 없이 서비스하는 부분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장 큰 업적이자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목록이나 해제가 잘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미지까지 제공한다면 최상의 서비스이겠으나 아직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고문헌과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옥영정**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는 고문헌 국가서지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목록이 다른 기관에서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전거문헌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식** 규장각도 목록의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 표준화된 목록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제의 경우, 규장각의 도서 해제는 오래 전에 작성된 것으로 서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정도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연구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갱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 항목이 보완, 강화된 서지목록이 재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제 작성을 위해서도 목록양식의 표준화가 꼭 필요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 주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제규** 세계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를 보면 판본에 따라 전체 수량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유물들도 그 명칭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도출, 공론의 장 마련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옥영정** 고문헌 국가서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고문헌에 대해 전거문헌을 설정하고 개발, 활용하는 면에서 고문헌과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목록은 다양한 형태의 목록이 될 수 있으나, 그 또한 표준화된 목록 형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고문헌과가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고문헌 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제외한 이용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영** 요즘은 직접 책으로 보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등과 같이 고문헌을 각각 검색하여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문헌 검색부분에 있어 포털시스템이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지 제공에 있어서 컬러이미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선명한 컬러이미지로 제공된다면 원본의 훼손도 줄어들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식** 이용서비스부분에서는 이미지 제공과 더불어 본문의 내용이 텍스트화가 된다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영** 이미지 제공의 측면에서 해외 고문헌 자료들을 컬러이미지로 제공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고문헌과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면 좋을 듯합니다.

**박병주** 고문헌의 수집, 정리, 이용에 있어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수집의 다양화, 목록의 표준화, 컬러이미지 제공 등 모든 것들이 고문헌과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문헌과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정** 지금까지는 주로 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고서에 비해 수량은 적으나,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고문서에 대해서 수집, 정리, 서비스의 측면에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고문서 정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고문서 정리시 문서군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문서군이 각각의 기관에 흩어져 있어 서지도 각각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문서군의 통합적인 정리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목록끼리의 링크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원소장처를 목록에 기술해주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습니다. 수집에 대해서는 현재 고문서 구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뿐만 아니라 고문헌 자료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문식** 고문서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초서를 탈초해야 하는 부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고문서는 주로 생활사 자료들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나 탈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영정** 그러한 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고문서 해제집은 탈초를 비롯한 해제가 실려 있어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문헌을 어떻게 선정하여 문화재로 지정되게 할 것인지, 그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제규**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재가 19종 65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5책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만큼 문화재로 등록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문화재청에서 지정문화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문화재 지정시 혜택보다는 제재 등의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는 각 기관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옥영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영** 정제규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화재 지정시 혜택보다는 규제 등 제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각 기관에서 굳이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고문헌과에 있는 자료는 거의 다 문화재급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량적으로 문화재를 늘리려는 방안보다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존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선별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해제 등을 통해서 자료의 가치가 증명되면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서첩, 서화 등의 자료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고문헌 다량 소장기관인 규장각 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조사와 함께 자료군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강문식** 문화재 지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소장된 국보, 보물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과 내용 및 판본이 동일한 경우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관련 고문헌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주** 모든 고문헌이 중요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는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도 귀중본으로 지정하는 등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게 됩니다. 원본은 보존문제로 인해 보존서고에서 관리하게 되고 이용서비스는 디지털화, 영인본 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용 시의 규제

등이 뒤따르게 되니 고문헌과에서도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영정**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이용 및 연구해야 할 자료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등과 연계하여 문화재급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재 지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고문헌과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박병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중요하나, 민간이 소장한 고문헌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도 고문헌과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문헌 위탁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있으신지요?

**옥영정** 고문헌과에서 제시한 폐교 등을 활용한 권역별 위탁서고 설치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제안을 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별도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등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고문헌과에 그치지 않고 고문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문헌자료관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영정** 위탁자나 기증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위탁하거나 기증한 자료가 폐교의 위탁서고에서 관리되는 것보다는 고문헌자료관에서 관리되는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처럼 지역거점형태로 위탁서고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탁서고가 꼭 필요하다면 몇 개의 주요 도시를 위주로 설치하고, 고문헌 보존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문헌의 특징상 항온항습, 소방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영 인력이나 예산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서고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가능하면 중앙에서 위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병주** 위탁 및 기증자의 경우, 본인의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홍보되는지, 예를 들어 전시나 개인문고 설치 등에 관심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증이나 위탁

의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특징적인 자료로 족보자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족보자료의 위탁 및 기증을 활성화하여 각 문중의 족보자료를 관리, 보존해주면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탁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옥영정** 기증이나 위탁자료의 보관 장소 위치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위탁서고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국외 고문헌에 대한 고문헌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고문헌에 대해서는 고문헌과에서 관련 업무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김현영** 국내자료보다는 자료양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하면 그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외 고문헌에 관련한 업무는 잘 수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옥영정** 고문헌과에서 제안한 국가별 조사팀 구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외 고문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 고문헌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국외 고문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일본 고문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현영**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국립고문서관이나 국립국회도서관 등에 고문헌이 상당히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고문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식** 국외 고문헌에 대한 수집,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타기관에서도 국외자료 수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옥영정** 국외 고문헌에 대한 망라적인 조사 및 목록작성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이미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제규** 국외 고문헌 조사에 있어서는 이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목록 작

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의 목록을 토대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영정** 마지막 논제인 고문헌과의 중장기 실행업무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적인 정리의 입장으로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영**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모두 나온 이야기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첩, 서화, 도록 등 그동안 그 가치가 평가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문화재 지정 및 일반인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적인 과제로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족보자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족보자료 총목록 등을 만들어 족보를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징적인 자료로 집중적으로 소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문헌자료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규** 고문헌자료관 설립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큰 특징은 희귀본 등 가장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과 이러한 소장자료를 토대로 생산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공유와 소통의 부분이 고민되어야 하고 희귀본 등의 자료발굴과 문화재 지정 등에 있어 고문헌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식** 앞서 많은 말씀들에 더해 한 가지 보충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중에 국내 유일 사서교육훈련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고문헌과에서 고문헌 전문사서 양성과 교육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헌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문헌과에서 각 대학의 고문헌관리학과와 서로 연계해서 고문헌 관리의 실무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여 고문헌 전문사서를 양성한다면, 이는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고문헌 소장 기관의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주** 지난해 고문헌과장으로 부임하여 고문헌 소장자료의 활용방안과,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의 발굴 및 이용,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통합서비스 등의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이번 대답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제기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 고문헌과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규장각 등에 비해 연구기능

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고문헌과가 수행해야 할 많은 역할과 기능에 더해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숙고하여 고문헌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위상 정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정** 고문헌에 대한 수집, 정리, 서비스 및 교육과 연구기능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문헌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고문헌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2017년도 연구현황

### III

10 \_ 2017년도 연구현황 · 157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정책기획단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서비스와 유기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박옥남(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가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를 분석, 미래방향성 및 정책을 제안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유기적인 공간 재구성 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장덕현(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의 역할 및 중장기 계획 사례를 조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비전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

- **연구책임자:** 윤소영, 김홍규(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및 운영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의 기능 및 역할을 설정,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방향 제시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전략 및 서비스 모형 구축 연구

- **연구책임자:** 김용(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국립세종도서관의 IoT 기반 서비스 모형 제안

### 근대문학자료 도서관 서비스 방안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박승진(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대문학 연구자 등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방안 마련 및 국내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기 조사·연구 보완

## 독서지도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연구책임자:** 황금숙(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외 독서지도 관련 교육과정, 독서지도 실무자와 전문가의 교육 요구, 기존 교육과정 실태 및 개선점을 분석하여 교수방법과 교과목을 설계·개발하고 교수자 및 운영담당자 매뉴얼 개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 현황 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이지연(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세부적인 발전 계획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 자료로 활용

##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윤희운(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외 주요기관 정책정보 관련 장서개발정책과 국립세종도서관 장서 및 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하고,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안) 개발

## 국립장애인도서관

### 점자자료 품질 평가 기준 연구

- **연구책임자:** 민혜경((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점자자료 품질 평가 개념을 정의하고, 품질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정립, 점자자료 품질 결정 요인, 저해 요인, 점자자료 품질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도출

### 2017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정책연구

- **연구책임자:** 김진원((주)네오알앤에스)

도서관장애인서비스관련 시책 수립의 근거를 향후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고 변화 추이를 조사

###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최진혁(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 조직, 시설, 자료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정립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체자료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조현양(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체자료 서비스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보화 전략을 수립, 장애인 관련 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모델 및 장애인 사용자 참여형 도서 추천 큐레이션 플랫폼 제시

## 도서관정책기획단

### ■ 사서대상 독서치유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수경(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외 독서치유 관련 교육과정 및 양성체계 현황 분석, 독서치유 전문사서 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방안 제안 등

### ■ 2017년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화 현황 조사

- 연구책임자: 메가리서치

정보화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 정보서비스 신규 발굴 등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요소 발굴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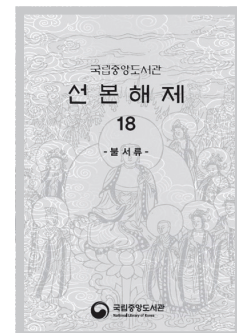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만든 자료들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만든 자료들

한 지 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 선본해제

『선본해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중 귀중자료를 중심으로 발간된 해제집이다. 선본(善本)은 자료적 가치가 큰 귀중본을 의미한다.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의 고문헌을 수록하고 있으며, 해제의 내용은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저작 관련 인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판종, 간행 시기 등을 고증하였다. 또한 형태적인 특징, 자료의 가치와 평가를 기술하였다.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선본해제 I    | 귀중본 및 별치자료 583종       | 1970 |
| 선본해제 II   | 문집 220종               | 1971 |
| 선본해제 III  | 문집 400종(필사본)          | 1972 |
| 선본해제 IV   | 문집 77종                | 1973 |
| 선본해제 V    | 귀중본 229종 633책         | 2003 |
| 선본해제 VI   | 귀중본 197종 591책         | 2004 |
| 선본해제 VII  | 귀중본 174종 566책         | 2005 |
| 선본해제 VIII | 위창문고 180종 412책        | 2006 |
| 선본해제 IX   | 일산문고 186종 628책        | 2007 |
| 선본해제 X    | 성호문고 169종 795책        | 2008 |
| 선본해제 11   | 고소설 160종 379책         | 2009 |
| 선본해제 12   | 지리지 578종 1,394책       | 2010 |
| 선본해제 13   | 일기 141종 297책          | 2011 |
| 선본해제 14   | 순암 안정복 관련자료 116종 318책 | 2012 |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선본해제 15 | 의서류 148종 381책         | 2013 |
| 선본해제 16 | 조선통신사 관련자료 109종 201책  | 2014 |
| 선본해제 17 | 천문 수학 관련 자료 119종 426책 | 2015 |
| 선본해제 18 | 불서류 116종 166책         | 2016 |

## 고문서해제

『고문서해제』는 2003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본 고전적해제사업에 의해 해제 완료된 고문서 가운데 그 해에 선정된 주제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고문서에 대한 서지사항과 해제, 원본 이미지를 수록한 해제집이다. 권말에 용어설명과 함께 각 고문서의 내용을 한글로 설명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고문서해제 I    | 토지문기, 호적, 소지, 자문 등 7,747건의 간략목록, 해제 | 1972 |
| 고문서해제 II   | 교지, 공물문서 등 5,700건의 간략목록, 해제         | 1973 |
| 고문서해제 III  | 교령류 504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               | 2006 |
| 고문서해제 IV   | 교령류 502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541건의 목록     | 2007 |
| 고문서해제 V    | 교령류 501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556건의 목록     | 2008 |
| 고문서해제 VI   | 호적류 502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496건의 목록     | 2009 |
| 고문서해제 VII  | 호적류 474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476건의 목록     | 2010 |
| 고문서해제 VIII | 매매문기류 463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810건의 목록   | 2011 |
| 고문서해제 IX   | 매매문기류 410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991건의 목록   | 2012 |
| 고문서해제 X    | 외교문서 311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와 493건의 목록    | 2013 |
| 고문서해제 XI   | 입안류 177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               | 2014 |
| 고문서해제 XII  | 매매문기류 288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             | 2015 |
| 고문서해제 XIII | 공인문서 321건의 목록, 해제, 이미지              | 2016 |

## 고문헌연구총서

『고문헌연구총서』는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지도의 연구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말 지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기획된 연구총서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지도의 이미지를 원색으로 수록하고, 순우리말 이름을 알 수 있는 지명찾아보기, 지명의 유래 및 기능, 고을의 역사와 특징을 알 수 있는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 서울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0 |
|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 경기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1 |
|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연구(1) | 충청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2 |
|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연구(2) | 충청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4 |
| 고지도를 통해 본 전라지명연구(1) | 전라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5 |
| 고지도를 통해 본 전라지명연구(2) | 전라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6 |
| 고지도를 통해 본 경상지명연구(1) | 경상 고지도 이미지, 순우리말 지명과 유래 및 논문 수록 | 2017 |

## 한국고전적국역총서

『한국고전적국역총서』는 우리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유일본 및 희귀본을 발굴, 국역하여 일반인들이 우리 고문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총서이다. 국역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유일본 및 희귀본, 국역하여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할 가치가 있으면서 타 기관에서 번역되었거나 번역 추진 중이지 않은 자료를 선정하였다. 귀중한 전적문화재에 대한 국역본 발간으로 한국의 전적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을병조천록(乙卯朝天錄) | 허균이 광해군(光海君) 7~8년(1615~1616) 2년 동안 중국 북경(北京)에 사신으로 가서 느낀 정서를 읊은 기행시집 | 2005 |
| 동책정수(東策精粹)   | 조선시대 중종(中宗)부터 명종(明宗)까지 과거에 급제한 19인의 20개 답안을 모아놓은 과거답안모음집             | 2006 |

| 서 명                | 수 록 내 용                                  | 발 행 년 |
|--------------------|--|-------|
| 곡운공기행록(谷耘公紀行錄)     | 권복이 자신의 관료 생활을 날짜별로 엮은 기행문집              | 2007  |
| 연행일기(燕行日記)         | 이항익이 북경을 오가며 기록한 사행일기                    | 2008  |
| 연행록(燕行錄)           | 강선이 북경을 오가며 기록한 사행일기                     | 2009  |
| 연행일기초(燕行日記艸)       | 유득일이 북경에 가면서 기록한 사행일기                    | 2010  |
| 가례향의(家禮鄉宜)         | 포저(浦渚) 조익(趙翼)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재해석한 예서(禮書) | 2011  |
| 금대전책(錦帶殿策)         | 정조의 책문(策問)에 대한 이가환(李家煥)의 대책(對策)          | 2011  |
| 금화집(金華集)           | 이원휴의 시문집                                 | 2012  |
| 지재유집(支齋遺集)         | 이희의 문집 『지재유집』의 선집(選集)                    | 2012  |
| 정종대왕어필간첩(正宗大王御筆簡帖) | 정조가 세손시절에 외조부 흥복한에게 보낸 39통의 편지           | 2013  |
| 을병일기(乙丙日記)         |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 전후의 기사와 관련문서       | 2014  |
| 검신록(檢身錄)           | 산림학자 이재(李穡)의 인격수양서                       | 2014  |

## 연구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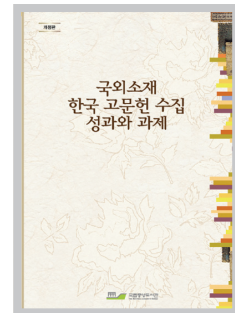
『연구자료집』은 우리관 소장 고문헌 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문헌 사업의 결과로 발간하는 자료집이다.

『해동여지도』는 조선 정조연간에 국가에서 제작한 지도로, 『해동여지도』를 영인·색인하고 논고를 수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고문헌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독도관련 고서 12종과 고지도 37종 등 총 49종을 수록, 해설한 것이다. 고서와 고지도의 독도관련 이미지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미지 아래쪽에 해석문을 달아 원문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외소재 한국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는 연구자료집이다. 논고편과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고편에는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의 현황 등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고, 자료편에는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수집자료 목록이 각 기관별로 수록되어 있다. 이후 발간된 개정판에는 2010년까지의 수집실적과 미국 하바드엔칭도서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목록이 추가되었다.

『희귀본과 필사본 장서의 디지털화 지침』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희귀본 및 특수장서 분야에서 편찬한 고문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침을 번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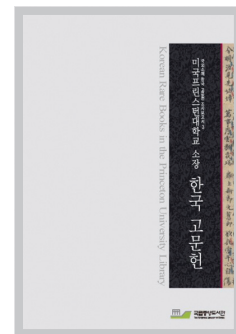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문헌의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을 알리고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I             |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 2005 |
| 해동여지도 II                   | 강원, 황해, 함경, 평안도                          | 2006 |
| 해동여지도 III                  | 지리지, 전국의 봉화망 기록                          | 2007 |
| 해동여지도연구                    | 해동여지도 해설색인집                              | 2008 |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 독도관련 고서 고지도 49종 상세 해설                    | 2009 |
| 국외소재 한국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관련 논문 및 수집자료 목록 수록           | 2009 |
| (개정판) 국외소재 한국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관련 논문 및 수집자료 목록 수록           | 2011 |
| 희귀본과 필사본 장서의 디지털화 지침       | 고문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지침 번역 | 2015 |

##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수집·보존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 1982년부터 해외에 소장된 한국 전적문화재를 조사하고 귀중한 자료는 복사,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집해 오고 있다.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보고서』는 이 조사 사업의 결과물으로써 귀중한 우리 전적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고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간된 자료집이다. 국외에 소장되어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각 자료의 이미지와 서지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기관에서 한국 고문헌을 소장하게 된 경위, 자료의 특징과 의의 등에 대한 논고를 함께 수록하여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
| 플레주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 플레주드 프랑스 소장 한국고문헌 53종 421책 목록 및 논문 수록                | 2012 |
|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br>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 미국하와이주립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br>329종 1,354책 목록 및 논문 수록 | 2014 |
| 프린스턴대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 95종 505책 목록 및 논문 수록             | 2015 |
| 캐나다 토론토대 소장 여흥민씨<br>민관식가의 고문서    | 캐나다 토론토대 소장 한국 고문서 333점 목록 및 논문 수록                   | 2015 |

## 문화재영인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화재나 귀중본 등 보존이 매우 중요하면서, 이용 빈도가 높고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자료를 대상으로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영인본을 제작하여 전적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면서 문화재의 공개를 활성화 하고 있다. 문화재영인본을 학술연구 및 전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한국 고문헌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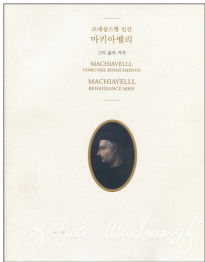



| 서 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비고             | 사진  |
|--------------------------------|--|------|----------------|---|
| 석보상절<br>(釋譜詳節)                 |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어머니 소헌 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가보 및 불경에서 뽑아, 한글로 번역하여 산문체로 엮은 석가모니의 일대기 | 2005 | 보물<br>523-1호   |    |
| 목장지도<br>(牧場地圖)                 | 전국의 목장소재지를 지도로 만들고 각 목장 별 소, 말, 목자의 통계 및 목장 면적 등을 기재한 채색필사본                        | 2006 | 보물<br>제1595-1호 |    |
| 십칠사찬고금통요<br>(十七史纂古今通要)         | 중국 태고로부터 오대에 이르기까지의 17정사 중 요점만을 뽑아 편찬한 책   | 2007 | 국보<br>제148-1호  |   |
|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br>(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 국경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의 북부지방과 만주 지방을 그린 관방지도   | 2008 | 보물<br>제153-1호  |  |
| 청구도 건<br>(靑邱圖 乾)               | 대동여지도 제작의 기초가 된 자료로 김정호가 전국을 나누어 그린 채색필사 지도책                                       | 2009 | 보물<br>제1594-1호 |  |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비고              | 사진  |
|--------------------|--|------|-----------------|---|
| 삼재화첩<br>(三齋畫帖)     | 조선시대의 화가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등 삼재(三齋)의 그림을 모은 화첩   | 2010 | 귀중본 제366호       |    |
| 대동여지도<br>(大東輿地圖)   | 김정호가 22첩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전 필사한 18첩 채색필사지도  | 2011 | 귀중본 제114호       |    |
| 조아통상조약<br>(朝俄通商條約) | 조선과 러시아 간 체결한 통상조약의 한문본, 노문본   | 2012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8호 |    |
| 조영통상조약<br>(朝英通商條約) | 조선과 영국 간 체결한 통상조약  | 2012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9호 |  |
| 강화부궁전도<br>(江華府宮殿圖) | 1881년 경기 강화부(江華府)의 궁전(宮殿)·묘전(廟殿) 등을 모사(模寫)한 4폭의 절본식(折本式) 채색도첩(採色圖帖)  | 2015 | 귀중본 제922호       |  |
| 조불통상조약<br>(朝佛通商條約) | 고종(高宗) 23년(1886) 6월 4일 조인된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전문(全文) 13조(條)의 『조법수호통상조약(朝法修好通商條約)』과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및 세칙(稅則), 세칙장정(稅則章程), 선후속조(善後續條)』 | 2015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12호 |  |

| 서명                                 | 수록 내용  | 발행년  | 비고          | 사진   |
|------------------------------------|--|------|-------------|--|
|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br>(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 직지 초인본(初印本)이 간행된 이듬해인 우왕 4년(1378) 6월 여주 취암사에서 개판(開板)한 목판본                        | 2015 | 귀중본 제657호   |   |
| 규합총서                               | 빙허각 이씨(1759-1824)가 1809년경에 저술한 여성용 교양백과사전. 한글필사본                                 | 2016 | 귀중본 제932호   |   |
| 연행도폭(燕行圖幅)                         | 해로(海路)를 통해 중국 북경으로 가는 사행(使行)의 각 노정(路程)을 그린 채색(彩色) 필사본(筆寫本). 인조 2년(1624)의 노정으로 추정 | 2016 | 귀중본 제141호   |   |
| 청구도 곤(靑邱圖 坤)                       | 대동여지도 제작의 기초가 된 자료로 김정호가 전국을 나누어 그린 채색필사 지도책                                     | 2016 | 보물 제1594-1호 |  |



## 전시도록

고문헌과에서는 매년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을 다양한 주제로 흥미롭게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적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고인쇄 문화 및 전적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 전시명                            | 전시내용  | 발행연월      | 사진  |
|--------------------------------|---|-----------|---|
| 순암 안정복의 책바구니                   |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역사가인 순암 안정복의 저서와 수택본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전시             | 2012. 10월 |    |
| (르네상스형 인간)<br>마키아벨리 : 그의 삶과 저작 | 한이수교 130주년 마키아벨리의 삶과 작품을 보여주는 필사본 원본 및 육필 서간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 전시     | 2014. 3월  |    |
| 옛 문서와 책에서<br>만나본 어보            | 조선시대 국왕의 인장인 어보(御寶)가 찍혀져 있는 고문서, 고서를 통해 국왕, 왕비, 왕세자들의 다양한 인장 전시 | 2015. 1월  |   |
| 아름다운 산수공간, 누정                  |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 누정(樓亭)에 관해 옛 지식인들이 남긴 시문, 가사, 기문(記文) 등의 기록 전시       | 2015. 5월  |  |
| 고전(古典)에서 만난<br>우리 금속활자         | 고려시대, 조선시대 주조한 금속활자로 찍은 고문헌 자료의 전시를 통해 우리의 인쇄기술과 문화수준 발달을 조명    | 2015. 8월  |  |



| 전시명                          | 전시내용  | 발행연월      | 사진   |
|------------------------------|---|-----------|--|
| 조선과 청조(淸朝)<br>문인의 만남         |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문인들간 적극적인 교류<br>와 소통에 관한 자료의 전시를 통해 문명 교류사<br>의 기반 마련  | 2015. 11월 |    |
| 지리지의 나라 조선                   |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다양한 지리지에 대한 이<br>해 증진 및 전통시대 전 세계에서 지리지가 가장<br>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조선의 새로운 모습<br>을 조명   | 2016. 1월  |    |
|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br>전남 화순에서 꽃피우다 | 규남 하백원 선생의 책과 지도, 천문도, 회화 속<br>에 담긴 투철한 실학사상 재조명  | 2016. 6월  |   |
| 조선의 독서열풍과 만나다:<br>세책과 방각본    | 조선후기 독서 계층이 확산, 대중화되어 새로<br>운 독서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br>주고 아울러 상업출판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br>돈 받고 빌려주던 세책과 대량 생산을 위해 목판<br>으로 찍어낸 방각본 소설 전시 | 2016. 8월  |  |
| 조선의 사진                       | 전통 문명국가인 조선에서 실용 사진이 광범위<br>하게 편찬되어 이용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백<br>과사전, 한자사전, 생활백과사전, 특수사전 등<br>다양한 종류의 사전 전시                                    | 2016. 12월 |  |

| 전시명                      | 전시내용   | 발행연월     | 사진  |
|--------------------------|--|----------|---|
| 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          | 전통시대 '나'를 포함하여 집안과 동족을 파악하는 족보를 신분별 뿐 아니라, 형태·내용·재질별로 다양하게 전시        | 2017. 6월 |  |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br>고문헌 컬렉션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고문헌 중 자료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난 선본(善本) 자료 60종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수록한 명품도록 | 2017. 9월 |  |



도서관

통권 제 **391** 호

2017

비매품

기획 · 편집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인 쇄 | 2017년 12월

발 행 | 2017년 12월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 (02)590-0799

팩 스 | (02)590-0546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주)계문사

## DOSEOGWAN

vol. 391

December 2017

Publishing office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90-0799 Fax | (02)590-0546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